

2006-2007 사업 결과 보고서

2007. 5

<차 례>

1. 센터 구성 및 운영 현황	1
가. 설립 취지	2
나. 구성	6
1) 운영자문위원 구성	6
2) 운영위원회 구성	6
3) 연구진 구성	7
4) 전문정책자문단 명단	9
다. 주요사업	10
1) 연차별 사업	10
2) 1차년도 세부 사업	11
라. 센터 구축 사업 내용	16
1) 브로셔 제작	16
2) 홈페이지 제작	27
3) 로고 제작	57
4) 센터 공간의 확충 및 설비 구축	57
마. 센터내규	75
2. 정보센터구축	79
가. 정보센터 구축의 의의	80
나. 사업내용	89
다. 2006년 정보센터 구축 결과 보고	105
1) 정보의 분류	105
2) 독자적 정보 분류체계 개발의 필요성	106
3) 포함 정보 내용 소개	126
4) 정보 search 방법	144
5) 전자도서관 자료 입력 현황 및 향후 사업	171

3. 활동 보고서	178
가. 센터 주최 및 주관 행사	190
1) 행사 개최 현황	178
2) 국제심포지엄	179
3) 국내심포지엄	182
4) 포럼	185
5)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187
나. 생명윤리정책 네트워크 구축	190
다. 국제협력을 위한 기초 네트워크 구축	190
라. 수시 정책자문	190
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제작	190
4. 개별연구보고서	190
가. 법령 번역집	190
1) 법령 번역의 목적 및 필요성	190
2) 사업의 내용	192
3) 경과	196
4) 제언	202
나. 정책동향 연례 보고서	205
1) 취지 및 의의	205
2) 진행 과정	206
3) 동향에 대한 평가	209
4) 향후 조사에 대한 제언	214
다. 익명화	215
1) 취지 및 의의	215
2) 연구 내용	215
3) 사업 진행 내역	216

4) 익명화 방안에 대한 간략 소개	221
5) 향후 사업에 대한 제언	222
라. 생명윤리기본법 프로젝트	224
1) 기본법의 개념과 필요성	224
2) 사업의 내용	229
3) 로드 맵	233
마. 시소러스	237
바.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237
사. 생명윤리 교재	237

부록

○ 센터 활동 일지	238
○ 행사 홍보 및 보도자료	250

<표 차례>

<표 1-2-1> 운영자문위원회 명단 현황	6
<표 1-2-1> 운영위원회 명단 현황	6
<표 1-2-2> 연구진 구성 현황	7
<표 1-2-2> 연구지원팀 명단 현황	8
<표 1-2-3> 전문정책자문단 명단 현황	9
<표 1-4-1> 브로셔 제작	16
<표 1-4-2> 홈페이지 제작일정	28
<표 1-4-3> 홈페이지 구성도	29
<표 1-4-4> 로고 제작 일정	59
<표 2-1-1> 정보센터 구축의 정의	82
<표 2-3-1> BPRC 분류표	108
<표 2-3-2> 리재철 동서저자기호 제6표	117
<표 2-3-3> 카터 샌본표(열거식저자기호표)	122
<표 2-3-4> 자료입력 현황 (2007년 현재)	171
<표 3-2-1> 행사 개최 현황	178
<표 3-2-2> 유네스코 아태지역 생명윤리 교육회의 현황	179
<표 3-2-2> 2006 바이오코리아 ‘생명윤리’ 분과 현황	181
<표 3-2-3>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재평가 토론회 현황	182
<표 3-2-3>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 설명회 현황	183
<표 3-2-3>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현황	184
<표 3-2-4> 제1회 생명포럼 현황	185
<표 3-2-4> 제2회 생명포럼 현황	186
<표 3-2-5> 제1회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현황	187
<표 3-2-5> 제2회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현황	188
<표 3-2-5> 제3회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현황	189
<표 4-1-1> 법령 번역 사업 수행 체계	192
<표 4-1-2>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자문위원	194

<표 4-1-2>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195
<표 4-1-3> 우선 번역 대상 선정 목록	197
<표 4-3-2> 과제진행 일정	220
<표 4-4-2> 기본법 프로젝트의 핵심 쟁점	229
<표 4-4-2> 내부 연구진 구성 현황	231
<표 4-4-2> 외부 연구진 구성 현황	231
<표 4-4-2> 자문 연구진 구성 현황	232
<표 4-4-2> 세부 연구 주제 분담 현황	232
<표 4-4-3> 제1차 기본법 회의	233
<표 4-4-3> 제2차 기본법 회의	233
<표 4-4-3> 제3차 기본법 회의	233
<표 4-4-3> 제4차 기본법 회의	234
<표 4-4-3> 제5차 기본법 회의	234
<표 4-4-3> 제6차 기본법 회의	234
<표 4-4-3> 제7차 기본법 회의	234
<표 4-4-3> 제1차 TFT 회의	235
<표 4-4-3> 제2차 TFT 회의	235

<그림 차례>

<그림 1-1> 센터 개념 구성도	2
<그림 1-1> 커뮤니케이션 포털로서의 사회적 역할 도식	3
<그림 1-3-1> 연차별 사업 계획 도식	10
<그림 1-4-1> 브로셔 시안1, 표지	17
<그림 1-4-2> 브로셔 시안2, 2~3쪽	18
<그림 1-4-3> 브로셔 시안3, 4~5쪽	19
<그림 1-4-4> 브로셔 시안4, 6~7쪽	20

<그림 1-4-5> 브로셔 시안5, 8~9쪽	21
<그림 1-4-6> 브로셔 시안6, 10~11쪽	22
<그림 1-4-7> 브로셔 시안7, 12~13쪽	23
<그림 1-4-8> 브로셔 시안8, 14~15쪽	24
<그림 1-4-9> 브로셔 시안9, 16~17쪽	25
<그림 1-4-10> 브로셔 시안10, 18~19쪽	26
<그림 1-4-11> 홈페이지 메인화면	31
<그림 1-4-12> Contact us	32
<그림 1-4-13> 폼페이지 메인화면	32
<그림 1-4-14> LOGIN 화면	33
<그림 1-4-15> 회원관리 화면1-회원약관 확인	34
<그림 1-4-16> 회원관리 화면2-회원정보입력	35
<그림 1-4-17> 사이트 맵	36
<그림 1-4-18> 센터소개와 인사말	37
<그림 1-4-19> 연혁 및 설립목적	38
<그림 1-4-20> 조직도	39
<그림 1-4-21> 연구진소개	40
<그림 1-4-22> 협력기관	41
<그림 1-4-23> 오시는 길	42
<그림 1-4-24> 캠퍼스 지도	43
<그림 1-4-25> 센터활동과 주요사업내용	44
<그림 1-4-26> 연간행사일정	45
<그림 1-4-27> 뉴스브리핑	46
<그림 1-4-28> 공지사항	47
<그림 1-4-29> 센터간행물	48
<그림 1-4-30> 뉴스레터	49
<그림 1-4-31> 참여마당과 토론방	50
<그림 1-4-32> 토론방의 토론내용 보기	51

<그림 1-4-33> POLL	51
<그림 1-4-34> 자료문의	52
<그림 1-4-35> 전자도서관과 기본검색	53
<그림 1-4-36> 확장검색	54
<그림 1-4-37> 분야별검색	55
<그림 1-4-38> E-learning	56
<그림 1-4-39> 로고 디자인 의뢰회사 ‘허브지엔’ 로고	58
<그림 1-4-40> 1차 로고 시안	60
<그림 1-4-41> 2차 로고 시안	61
<그림 1-4-42> 3차 로고 시안	62
<그림 1-4-43> 최종 시안	63
<그림 1-4-44> 센터로고 심볼마크의 해석	64
<그림 1-4-45> 센터로고 심볼마크의 칼라규정	65
<그림 1-4-46> 센터 명함 (국영문 혼용)	66
<그림 1-4-47> 센터 소봉투 (국영문)	67
<그림 1-4-48> 센터 대봉투 (국영문)	68
<그림 1-4-49> 센터 신문/잡지광고 포맷	69
<그림 1-4-50> 센터 대외공문 양식	69
<그림 1-4-51> 센터 팩스용지	70
<그림 1-4-52> 센터 메모지	70
<그림 1-4-53> 센터 파일바인더	71
<그림 1-4-54> 노트 및 다이어리 표지	71
<그림 1-4-55> 센터 명찰 및 휴대폰고리/열쇠고리	72
<그림 1-4-56> 센터 현수막	72
<그림 1-4-57> 센터 인터넷 게시물 태그	73
<그림 1-4-58> 센터 사인물	73
<그림 1-4-59> 센터 종이컵	74
<그림 1-4-60> 센터 차량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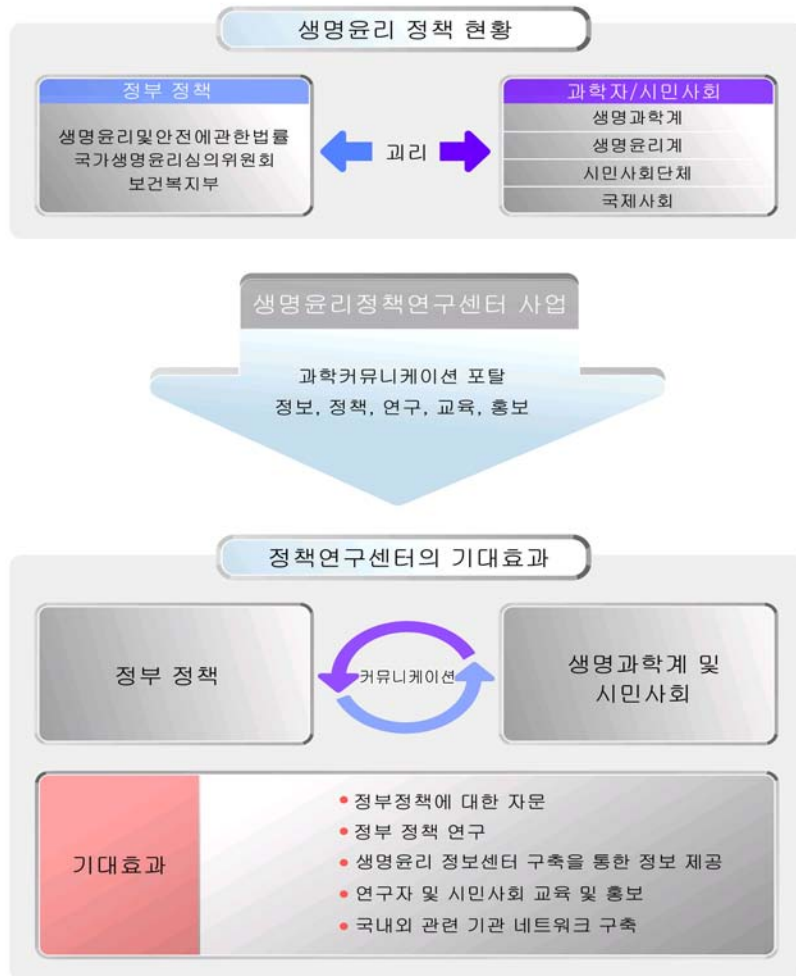
<그림 2-1-1> 정부센터 구축의 의의	81
<그림 2-1-2> 정부센터 구축의 개발목표 및 기대효과	83
<그림 2-1-3> 기획 전략	85
<그림 2-1-4> 디자인 전략	87
<그림 2-1-5> 기술 전략	88
<그림 2-2-1> 프로그램 개발 Flow	89
<그림 2-2-2>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수립	90
<그림 2-2-2>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수립	90
<그림 2-2-4> 기술계획	91
<그림 2-2-5> 데이터 및 응용계획	92
<그림 2-2-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92
<그림 2-2-7> DB 설계	93
<그림 2-2-8> 홈페이지 설계	93
<그림 2-2-9> 검색 인터페이스 설계	94
<그림 2-2-10> 전자게시판 및 전자우편	94
<그림 2-2-1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95
<그림 2-2-12> 관리자모드	95
<그림 2-2-13> DB 구축	96
<그림 2-2-14> 시스템 구축	97
<그림 2-2-15> 설치	97
<그림 2-2-16> 테스트	98
<그림 2-2-17> 설치 및 인도	99
<그림 2-2-18> DB 구축 세부 일정	100
<그림 2-2-19> 연차별 개발계획	101
<그림 2-2-20> 연차별 개발계획	102
<그림 2-2-21> 연차별 개발계획	102
<그림 2-2-22> 연차별 개발계획	103
<그림 2-2-23> 연차별 개발계획	103

<그림 2-2-24> 연차별 개발계획	104
<그림 2-2-25> 연차별 개발계획	104
<그림 2-3-1> 선언 입력 화면	127
<그림 2-3-2> 법령 입력 화면	129
<그림 2-3-3> 지침 입력 화면	131
<그림 2-3-4> 언론보도자료 입력 화면	133
<그림 2-3-5> 논문 입력 화면	135
<그림 2-3-6> 연구보고서 입력 화면	137
<그림 2-3-7> 각종 양식 입력 화면	139
<그림 2-3-8> 단행본 입력 화면	141
<그림 2-3-9> 기타자료 입력 화면	143
<그림 2-3-10> 기본 검색 화면	144
<그림 2-3-11> 검색어 입력 화면	144
<그림 2-3-12> 검색 결과 페이지 화면	146
<그림 2-3-13> 결과 더 보기 화면	147
<그림 2-3-14> 이동탭 화면	148
<그림 2-3-15> 재검색 화면	149
<그림 2-3-16> 검색결과 상세보기 화면	150
<그림 2-3-17> 콤보박스 화면	151
<그림 2-3-18> 콤보 박스 내 검색 화면	151
<그림 2-3-19> 이동탭을 이용한 검색 화면	152
<그림 2-3-20> 홈페이지에서의 기본검색 화면	152
<그림 2-3-21> 전자도서관 기본검색 화면	153
<그림 2-3-22> 확장검색 화면	154
<그림 2-3-23> 완전일치 검색 화면	155
<그림 2-3-24> 후방일치 검색 화면	155
<그림 2-3-25> 전방일치 검색 화면	155
<그림 2-3-26> 검색결과 화면	156

<그림 2-3-27> 저자 검색 화면	157
<그림 2-3-28> 상세보기 화면	158
<그림 2-3-29> 타이틀 전방일치 검색	159
<그림 2-3-30> 발행처 검색	160
<그림 2-3-31> 타이틀과 발행처를 이용한 검색	161
<그림 2-3-32> 타이틀과 발행처를 이용한 검색	162
<그림 2-3-33> 기간사이의 자료 검색	163
<그림 2-3-34> 특정 기간 이전의 자료 검색	164
<그림 2-3-35> 특정 기간 이후의 자료 검색	165
<그림 2-3-36> 분야별검색 화면	166
<그림 2-3-37> 기본검색 결과의 출력	167
<그림 2-3-38> 결과 내역의 출력	168
<그림 2-3-39> 상세보기 내역의 출력	169
<그림 2-3-40> 검색결과에의 출력 확인페이지	170
<그림 4-4-2> 기본법 프로젝트 추진 단계	229
<그림 4-4-2> 기본법 프로젝트 수행 모델	229
<그림 4-4-3> 기본법 초안 도출 일정(2007-2008)	230

1. 센터 구성 및 운영 현황

가. 설립 취지



<그림 1-1-1> 센터 개념 구성도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정책 분야는 해당 전문가와 민간 연구기관 및 관련 정보 등의 부재로 인해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생명윤리 및 생명과학 연구 규제에 관한 정책 전문가는 매우 부족하며, 날로 국제화되고 있는 생명과학 연구의 정책분야에 대한 국제적 공조 역시 미미하다.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라 규제와 관리 기능 역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생명과학 관련 생명윤리 논의와 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공 기능이 필요하지만 정보 수집과 정보 지원 기능 역시 부재하다. 또한 공공부분은 물론, 민간부문에도 이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이 희소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정책 자문 그룹을 육성하고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지식 정보의 집적과 효율적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센터는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명윤리 연구에 있어서 정부-연구계-시민사회-국제사회를 잇는 커뮤니케이션 포털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되었다.



<그림 1-1-2> 커뮤니케이션 포털로서의 사회적 역할 도식

본 센터의 설립 취지 및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적시에 탄력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5년 소위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과학 연구에 있어서 윤리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효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있으나 줄기세포와 배아연구는 물론, 유전자연구와 치료, 이종이식 등 다양한 첨단 생명과학 연구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법률, 또는 규범들과 이와 같은 분야를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립, 혹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생명윤리학(Bioethics) 및 생명법(Biolaw), 생명의료정책(Biomedical policy), 생명과학의 통제 및 관리(governance)의 경험이 우리나라는 매우 일천하며 이 분야의 경험 있는 전문가가 매우 희소하므로 효율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한 집중적인 전문가 풀과 think tank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정부의 생명윤리 및 정책에 대한 지원은 <인간유전체사업단>,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 등 개별 연구 주제 별로 이루어져 왔으나 포괄적이고 일관된 정책 제시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규범의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센터는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지원하며, 현행 법규와 제도 내에서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제시하고자한다.

두번째로 본 센터는 생명과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생명윤리를 교육, 홍보하여 과학과 윤리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자 한다. “황우석 사태”는 우리나라 생명과학 연구진이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에 대한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에 얼마나 뒤떨어져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연구자들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과학 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cation)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 명망가 과학자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국민들이 과학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소위 “황우석 극렬지지자”들의 자해 및 사회 기강 문란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일반 국민에 대해 생명과학 연구 현황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 기관, 혹은 집단이 필요하다. 연구자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네트워크의 구축, 교육 자료의 발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본 센터는 주요 사업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를 직접, 간접적으로 교육하고, 교육 표준안을 마련하며 국민 및 여론 주도층에게 첨단 생명과학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은 물론, 그것의 윤리적·사회적 함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센터는 생명윤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여, 정보의 국제 교류와 국내 정책의 대외 홍보를 담당하고자 한다. “생명윤리법”이라는 세계적으로도 앞선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사태”의 결과 우리나라 과학계의 윤리수준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국제적인 신인도가 하락하는 결과를 빚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생명과학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의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가 생명윤리에 관해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첨단 생명과학 연구에 있어 그에 걸맞은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첨단 생명윤리와 법은 생명과학의 발전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첨단 생명과학에 있어서 국제적인 표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각국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조성하며, 국내의 관련 정보를 해외에 홍보하도록 할 것이다.

나. 구성

1)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표 1-2-1> 운영자문위원회 명단 현황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기 타
진교훈	서울대 명예교수	윤리학, 인간학	
박은정	서울대 법대 교수	법철학, 생명윤리	전 IBC 위원
맹광호	가톨릭대 의대 교수	예방의학, 의학교육	현 IBC 위원
김문현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법학	법대학장
이순남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의학	의대학장

2) 운영위원회 구성

- 실무형으로 구성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분기별 1회 정기 회의 개최

<표 1-2-2> 운영위원회 명단 현황

성 명	소속 및 직위	연구센터 직위	기 타
장영민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센터장	
양병국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	운영위원	
권복규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정보관리팀장	
김현철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정책연구팀장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대학 연구교수	연구지원팀장	

3) 연구진 구성

- 연구진 구성에 있어 이화여자대학교에 재직 중인 연구진 이외에 타교에 재직 중인 분도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함
- 센터장 장영민 교수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 (1명 휴직 중 실연구진 15명)

<표 1-2-3> 연구진 구성 현황

팀 명	팀 장	연구진
정보관리팀	권복규(이화여대 의학)	강민아(이화여대 행정학)
정책연구팀	김현철(이화여대 법학)	정성철(이화여대 의학) 김계성(한양대 의학) 신승남(이화여대 법학) 허라금(이화여대 여성학)
국제협력팀	박수현(강원대 법학)	김영석(이화여대 법학) 박경신(고려대 법학)
교육홍보팀	최경희(이화여대 과학교육학)	홍석영(경상대 생명윤리) 고인석(이화여대 과학철학) 이은정(KBS, 의학)
연구지원팀	최경석(이화여대 생명윤리)	

- 정보관리팀: 연구센터의 생명윤리 DB 구축 및 도서관 기능 구축, 유지관리 및 정보 업데이트, 정보 제공 등을 주로 담당.
- 정책연구팀: 연구센터의 각종 정책,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를 주로 담당.
- 국제협력팀: 해외 유관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WHO, UNESCO, CIOMS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생명윤리 관련 국제 협약 등 대책 수립, 그리고 국내 자료의 영문 번역 및 영문 자료의 국내 번역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
- 교육홍보팀: 생명윤리교육 네트워크의 유지와 관리, 연구자 및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재 개발, 교육프로그램 평가 등 그리고 언론 홍보 및 언론 대책, 교재 및 자료 출판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
- 연구지원팀: 박사급 연구지원팀장 1인을 중심으로 하여 각 팀의 연구지원을 담당하는 연구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센터에 상근하며 연구위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검색 및 정리,

정보 수집, 리포트 작성, 각종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연구센터의 행정, 인사, 재정, 구매,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 1인을 둔다.

- 연구지원팀 구성

<표 1-2-4> 연구지원팀 명단 현황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비 고
팀 장	최경석(생명윤리, 연구교수)	연구지원 총괄	상근
박사급 연구원	박준석(법철학)	정책연구	07.01 이후 상근
	고봉진(생명법)	정책연구	07.03 이후 상근, 인건비 비지급 (교내 대응)
연구 보조원	모효정(생명의료윤리)	정보관리	06.07-07.02 상근 07.03 이후 비상근, 인건비 비지급 (교내 대응)
	박미영(사회철학, 생명윤리)	교육홍보, 국제협력	06.07-07.02 상근 07.03 이후 비상근, 인건비 비지급 (교내 대응)
	박지윤(법철학)	정책연구	07.03 이후 비상근, 인건비 비지급 (교내 대응)
	김은애(법여성학, 생명윤리법)	정책연구	06.07-07.02 상근 07.03 이후 비상근, 인건비 비지급 (교내 대응)
	이진영 (생명윤리)	정책연구	07.03 이후 비상근, 인건비 비지급 (교내 대응)
	김나진(의료윤리교육)	교육홍보	06.07-06.12 상근
행정직원	박지영	행정업무	상근
사서	나은영	사서업무	07.01 이후 상근

4) 전문정책자문단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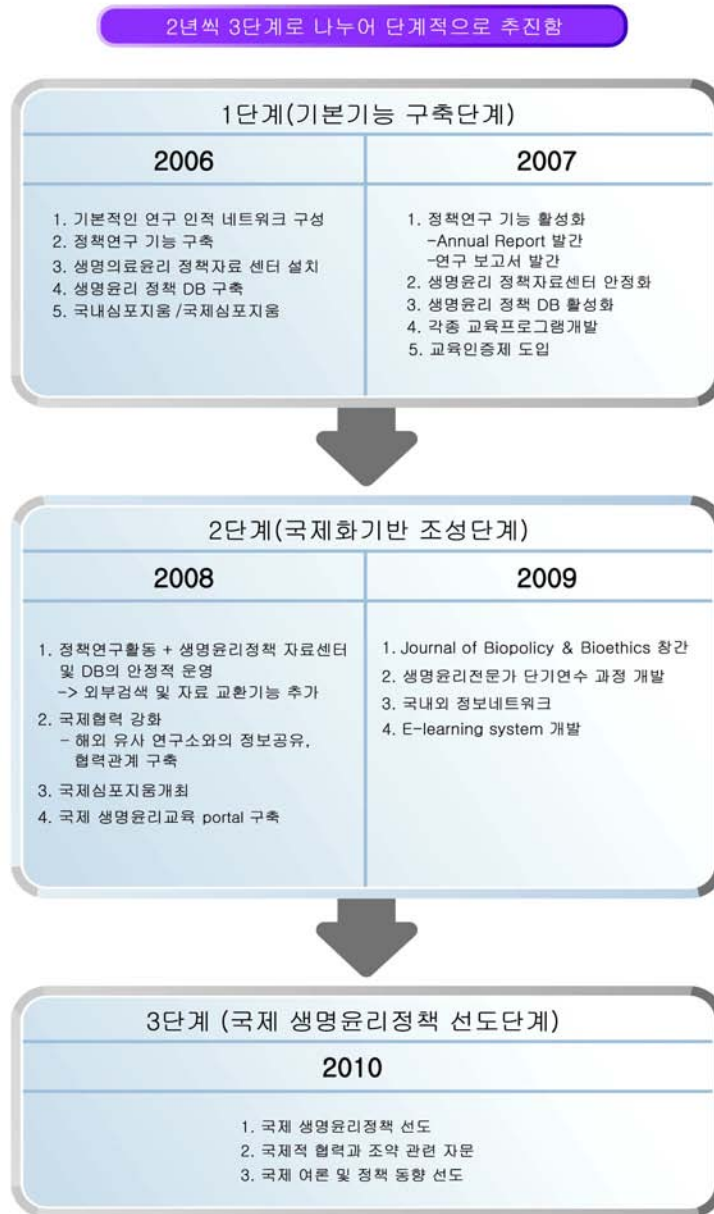
- 분야별 전문정책 영역을 구체화하여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며, 향후 국외 인사로 정책자문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표 1-2-5> 전문정책자문단 명단 현황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 타
줄기세포 연구	김동욱	연세대 의대	
	정형민	중문의대	
	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한용만	카이스트	
유전자 연구	김선영	서울대 의대	
	김장한	울산대 의대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임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명진	가천의대	
	김종묵	(주)바이로메드	
	김한겸	고려대 의대	
	김수진	미 켄터키대 의대	
I R B 및 연구 윤리	김옥주	서울대 의대	
	조은희	조선대 사범대	
	황은성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동물실험 및 이 종 이 식	박정규	서울대 의대	
	강병철	서울대 의대	
생 명 윤 리 일 반	이덕환	서강대 자연과학부	
	김상득	전북대 철학과	
생 명 윤 리 법 정 책	김미경	미 스탠포드대 연구원	
	고봉진	독 프랑크푸르트대 연구원	
	이석배	경남대 교수	
	김나경	영 에딘버러대 연구원	

다. 주요사업

1) 연차별 사업



<그림 1-3-1> 연차별 사업 계획 도식

2) 1차년도 세부 사업

가) 세부과제별 계획

(1) 제1세부과제

- (가) 과제명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체제 정비 및 운영
- (나) 과제내용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비 및 운영
 - 연구진 구성 : 연구진 위촉, 정책자문위원 위촉, 업무 분장 등
 - 시설 및 장비 구축 : 내부 시설 및 인테리어
 - 행정지원체계 확립 : 각종 규정 및 양식 등 구비
- (다) 과제책임자 : 최경석

(2) 제2세부과제

- (가) 과제명 : 생명윤리정책정보센터(가칭)의 구축
- (나) 과제내용 : 정보센터 시스템의 초기 구축
 - 홈페이지 제작
 - DB시스템 구축 : 중장기 적인 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한 기본 DB플랫폼 구축
 - DB콘텐츠 생산 : 금년 사업에서는 국내외 법령, 정책보고서, 각종 선언, 주요지침의 4가지 카테고리의 DB콘텐츠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
- (다) 과제책임 : 권복규

(3) 제3세부과제

(가) 과제명 : 생명윤리정책네트워크 구축

(나) 과제내용 : 시민사회, 생명윤리게, 생명과학자 그룹 등과 생명윤리 정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통로 구축

- 생명윤리학회 공동 심포지움
- 시민단체 정기 정책 집담회
- 생명과학자 자문 네트워크 구축
- 언론인 대상 간담회

(다) 과제책임 : 김현철

(4) 제4세부과제

(가) 과제명 : 해외 관련 기관과의 공동 연구 협약 체결

(나) 과제내용 : 국제협력을 위한 기초 네트워크 구축

- 미국(케네디센터, 헤이스팅스센터, 인디애나대학 생명윤리센터, Society and genetics 센터 등을 포함한 기타 해외 관련 기관)
- 영국(너필드 재단), 일본(Eubios Institute), 독일(DRZE), 중국(베이징대학 생명윤리 연구소) 등을 포함한 기타 해외 관련 기관

(다) 과제책임 : 박수현

(5) 제5세부과제

(가) 과제명 : 생명윤리법령 개정에 관한 정책 자문

(나) 과제내용

- 법령 제·개정 작업에 대한 법률 자문
- 각종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발간 자문

- 각종 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육 활동 지원
 - 기타 생명윤리팀 업무에 대한 수시 정책 자문
- (다) 과제 책임 : 김현철

(6) 제6세부과제

- (가) 과제명 : 생명윤리 교육과정/교재 및 인증체계 개발
- (나) 과제내용
- 생명윤리 교재 (일반인용) 개발
 - 교육 및 정책 기초자료 연구
- (다) 과제 책임 : 최경석

(7) 제7세부과제 (신규)

- (가) 과제명 : 생명윤리기본법제 연구과제 수행
- (나) 과제내용
- 생명윤리 기본법(가칭) 제정에 관한 연구
 -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에 대한 법정책학적 문헌 연구
 - 생명윤리법제에 관련된 해외법령체계 분석
 - 국내 기본법, 개별법 유사 사례에 대한 분석연구
- (다) 과제 책임 : 김현철

(8) 제8세부과제

- (가) 과제명 : 국내외 심포지움 개최, 연구보고서 및 연구 활동
- (나) 과제내용
- 아시아 태평양 생명윤리 교육회의 (국제회의)
 - 바이오코리아 생명윤리 분과

- 정책동향 연례보고서 발간
 - 활동 및 연구 결과보고서(실적보고서) 발간
 - 국내 심포지엄 개최
- (다) 과제 책임 : 최경석

나) 2006년 성과물

(1) 생명윤리정책정보센터 구축 (사이버)

- 홈페이지
- DB시스템 플랫폼 장착
- 콘텐츠 : 법령, 정책 보고서, 각종 지침, 각종 선언을 국문과 영문으로 서비스

(2) 활동 보고서, 개별연구 보고서 및 학술행사 자료집

○ 활동 보고서

- 센터 구축 사업 내용 보고
- 정보센터 구축 사업 보고 : 정보 검색 방법, 정보 분류 체계, 포함 정보 내용에 대한 소개 및 사용자 설명서 등 포함
- 생명윤리법령 개정 및 연구 관련 보고 :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연구 활동 보고서
- 센터 학술 활동 보고 : 각종 학술행사, 간담회, 국제 협력 활동 등

○ 개별연구 보고서

- 생명윤리 국제정책동향 연례 보고서 : 주요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EU, 중국, 일본 등)의 법령 중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06년 동향 정리
- 법령 가이드라인 번역집 : 주요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EU, 중국, 일본 등) 법령 중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는 내용에 국한하여 법령 번역집 발간. 우선 번역이 필요한 줄기세포와 유전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번역

- 생명윤리 시소러스 : 생명윤리 용어 정리 (현재 번역어의 통일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는 용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DB 구축에 있어 검색어를 통한 관련 자료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작업)
- 유전자은행 식명화 보고서 : 유전자은행의 식명화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운영지침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생명윤리기본법제 연구 보고서 :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에 대한 법정책학적 문헌 연구, 생명윤리법제에 관련된 해외법령체계 분석 및 국내 기본법, 개별법 유사사례에 대한 분석 연구 수행
- 생명윤리 교재 개발 (교재초안) : 기본적으로는 대학 교재이지만 일반인을 위한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생명윤리 교재 개발

○ 학술행사 자료집

- 센터 주최 및 주관, 국제 및 국내 심포지엄, 포럼, 세미나 등의 발표 자료 수록

(3) 국제 및 국내 심포지엄

○ 국제 심포지엄

- 아시아태평양 생명윤리 교육회의
- 바이오코리아 생명윤리 섹션

○ 국내 심포지엄 및 세미나

- 체세포복제아연구 관련 토론회
- 생명윤리법·정책 관련 심포지엄, 간담회 등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 심포지엄 등
- 생명윤리 관련 심포지엄 및 언론인·시민단체 대상 집담회 등

라. 센터 구축 사업 내용

1) 브로셔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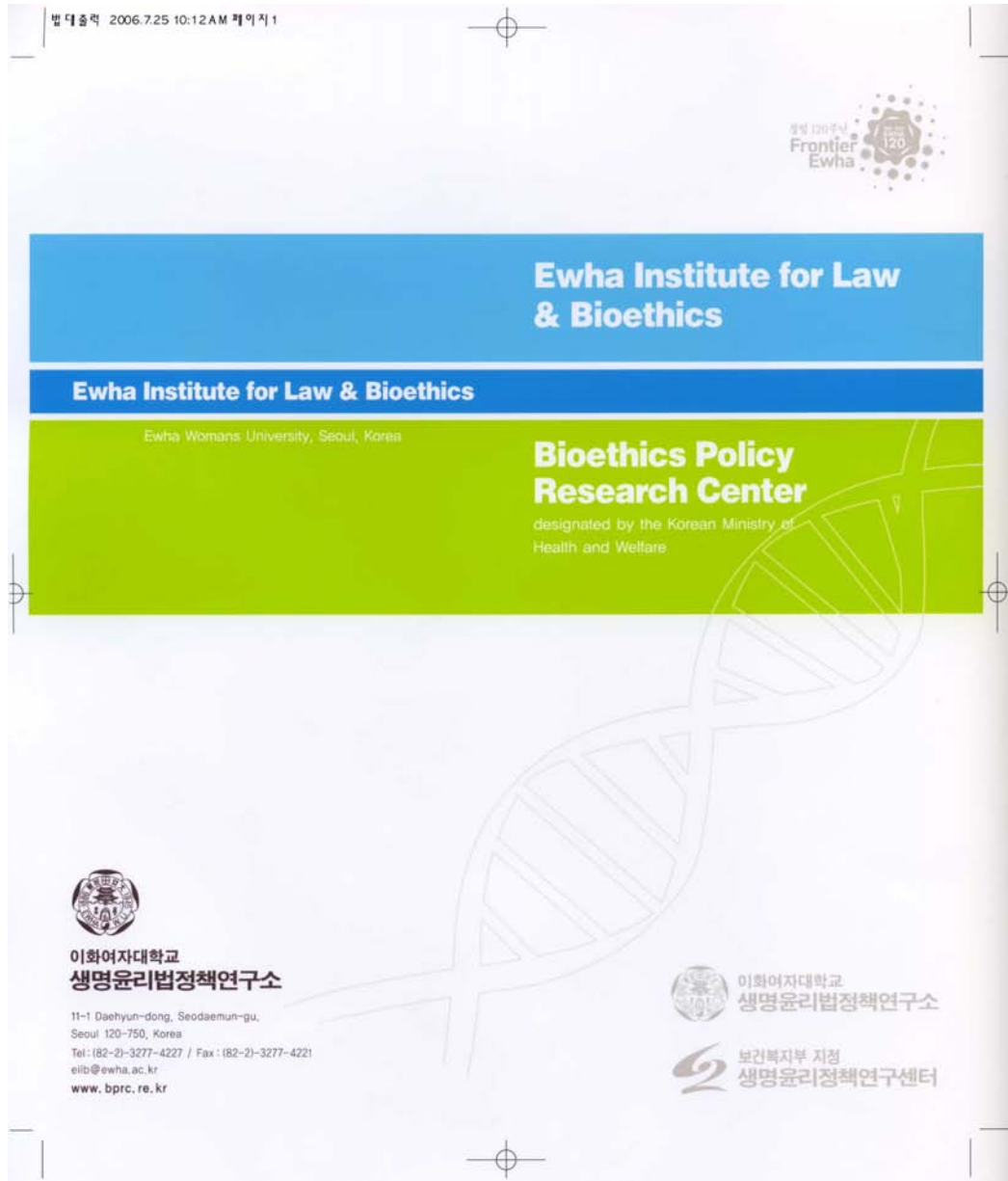
본 센터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설립목적과 운영체계에 대한 소개의 목적으로 브로셔를 제작하였다. 브로셔의 제작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브로셔 전문제작 업체인 베스트플랜[®](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12-1, 02-2269-1057)에서 디자인과 인쇄를 의뢰하였다.

제작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브로셔는 가로 10cm, 세로 23cm의 크기이고, 5장짜리 인쇄물을 한번 접어 가운데를 접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앞뒷면 인쇄에 총 20면으로 구성되었다. 종이 재질은 200g 아트를 사용하였고, 표지는 유광 코팅, 내부는 무광코팅으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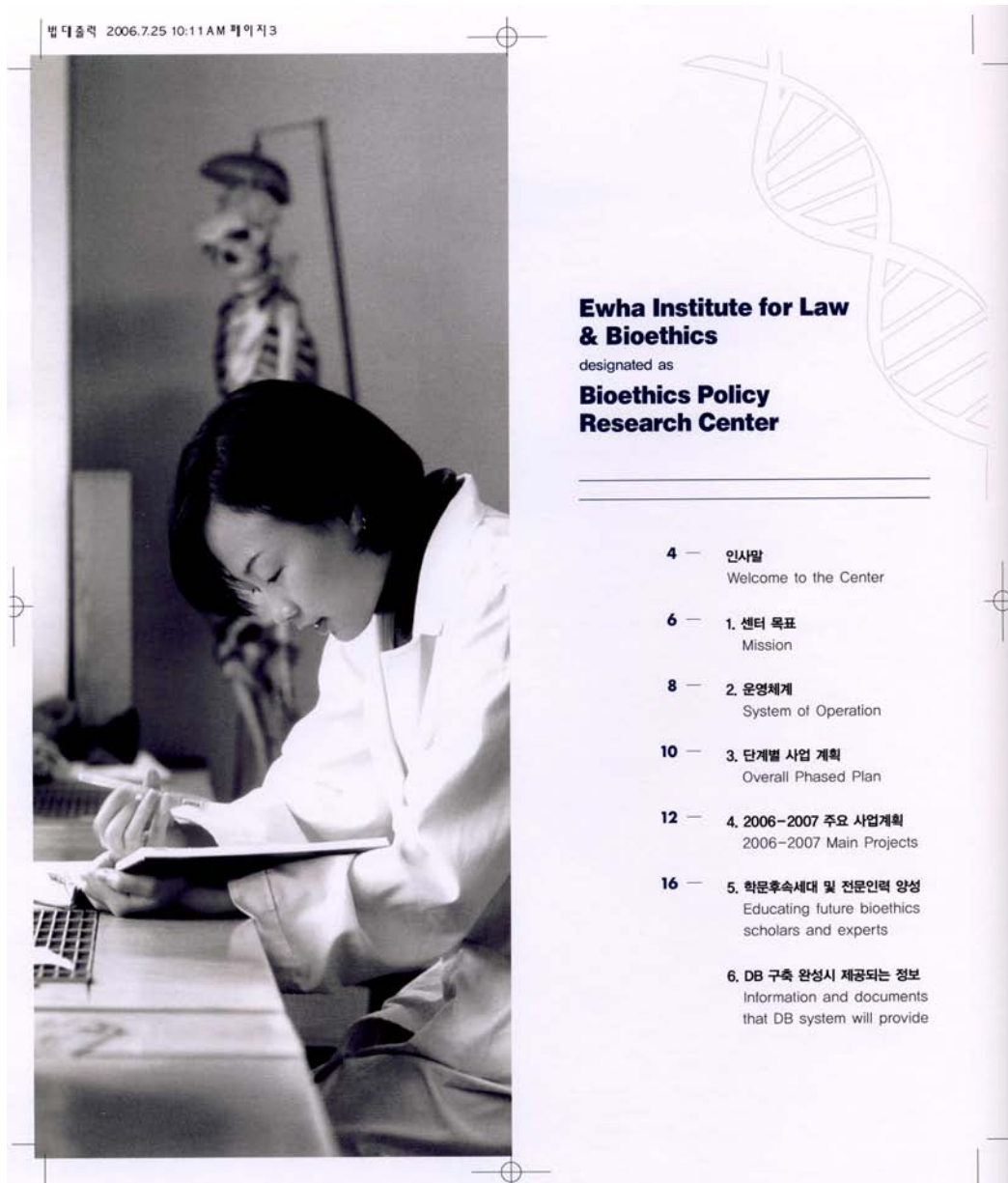
브로셔는 국문과 영문을 모두 사용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센터에 대해 간단히 알 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첨부 내용으로 센터의 설립 목표와 운영체계 및 사업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센터의 위치와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책자의 형식을 취하였다.

<표 1-4-1> 브로셔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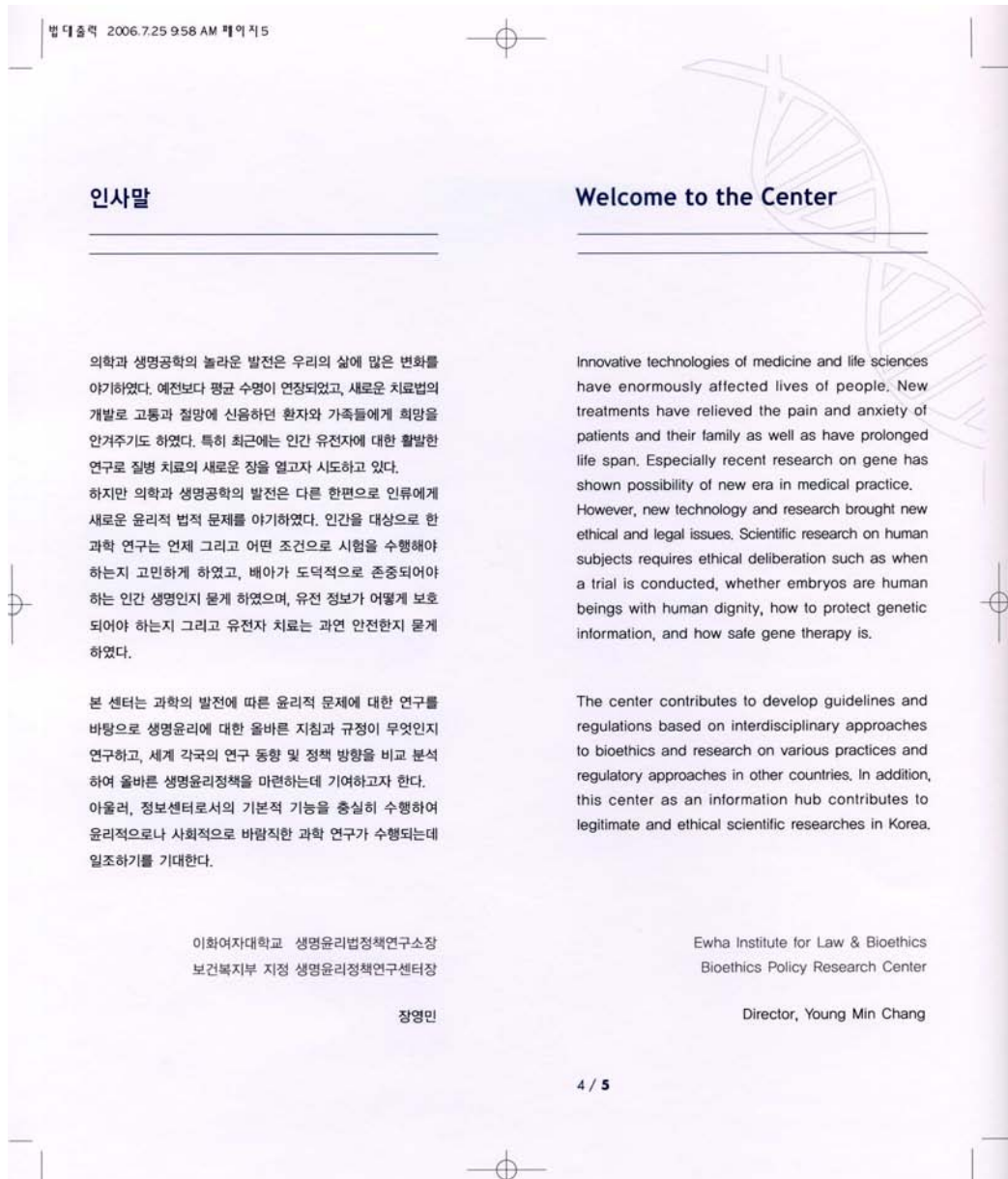
제작기간	2006년 7월 10일 ~ 2006년 7월 28일
제작업체	베스트플랜 [®] (서울시 중구 충무로 위치)
크기 및 쪽수	가로 10cm X 세로 23cm, 20쪽
재질 및 코팅여부	200g 아트지, 표지-유광코팅, 속지-무광코팅
일차 시안 확인	2006년 7월 25일
최종 인쇄일	2006년 7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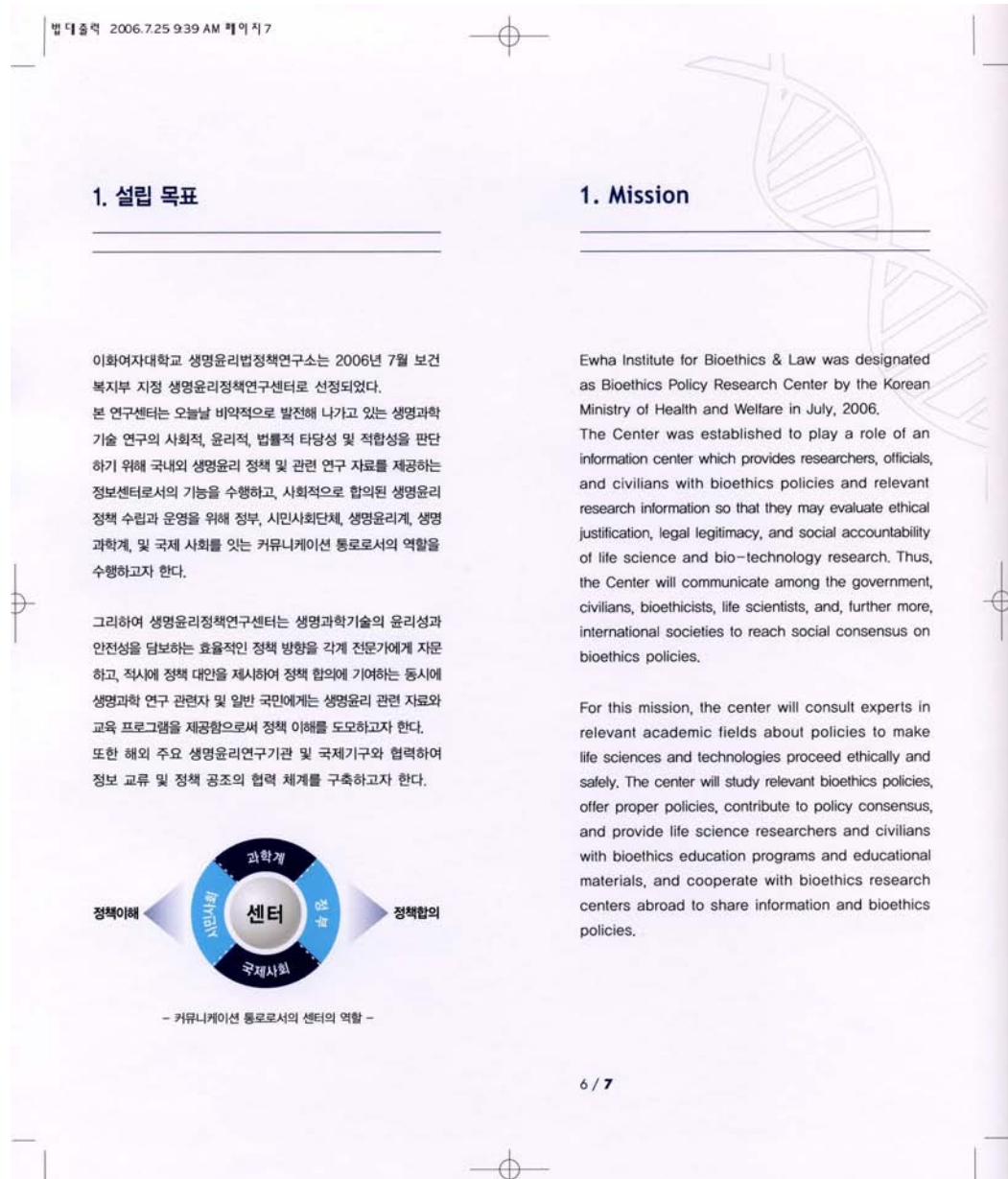
<그림 1-4-1> 브로셔 시안1, 표지



<그림 1-4-2> 브로셔 시안2, 2~3쪽



<그림 1-4-3> 브로셔 시안3, 4~5쪽



<그림 1-4-4> 브로셔 시안4, 6~7쪽

법 다크 2006.7.25 9:39 AM 제 19

2. 운영체계 System of 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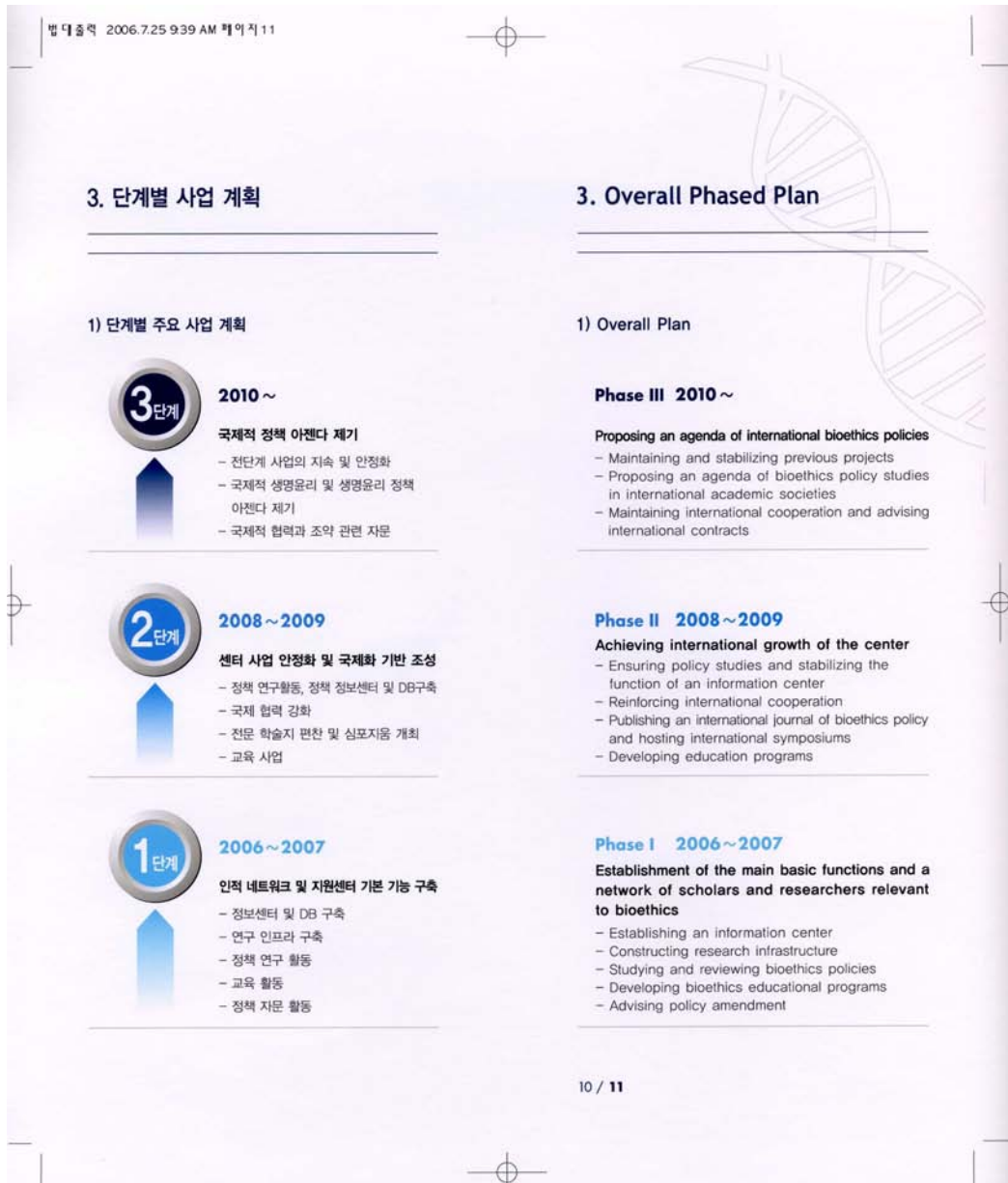
본 센터의 제반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기획하고 결정하며,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생명과학, 생명윤리학, 법학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책연구팀, 정보관리팀, 교육홍보팀, 국제협력팀, 연구지원팀을 두고 있으며, 각 팀은 본교 교원인 연구위원과 교외의 객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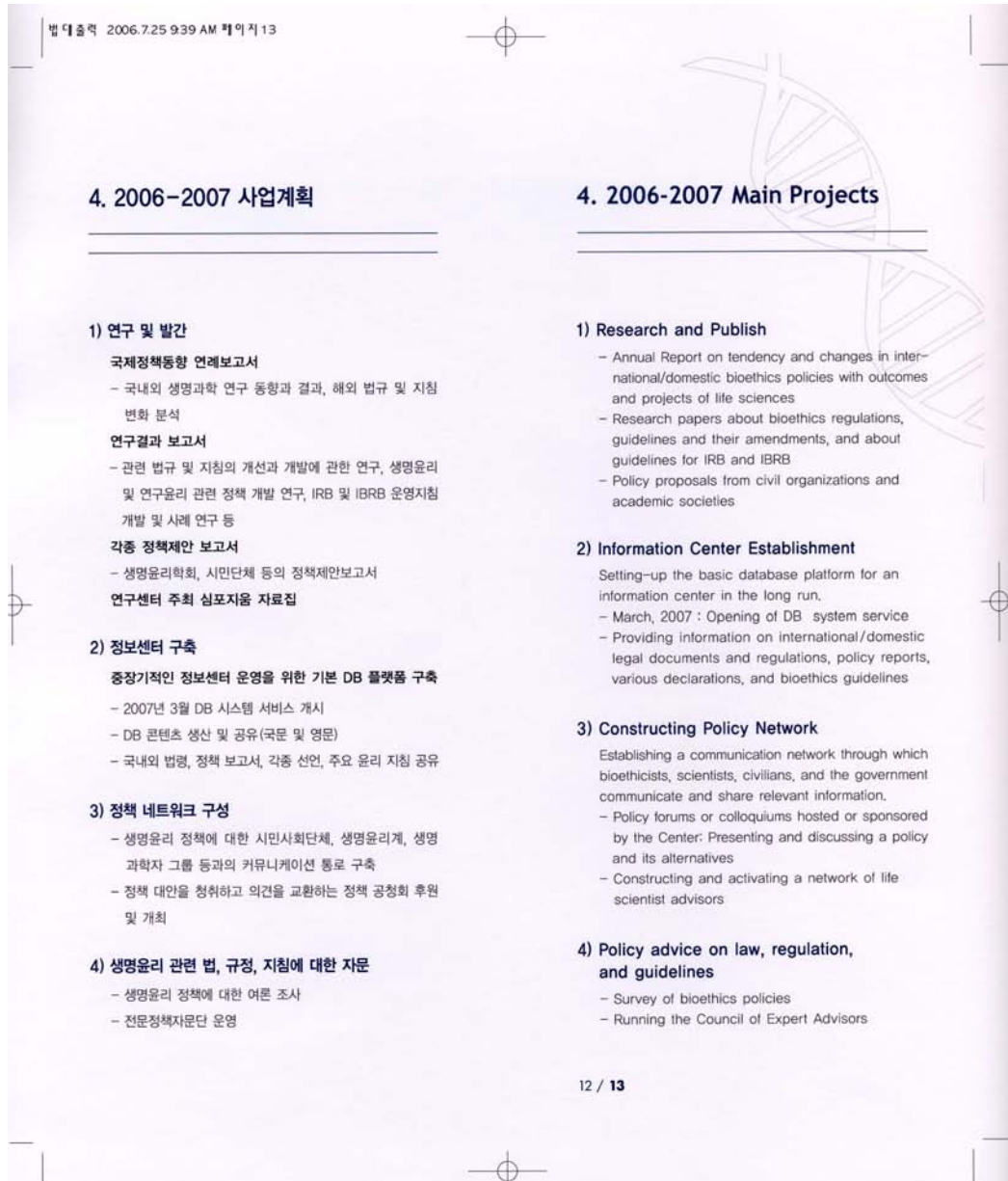
The goal and strategic plans of the Center are set up by the Executive Committee. The Center runs the Council of Expert Advisors, which consists of experts in life sciences, bioethics, law, and any other studies relevant to bioethics policies at issue. To ensure that the Center delivers its services, it consists of Policy Research, Database Management, Education and Communic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Support Teams. Research Associates who belong to each team are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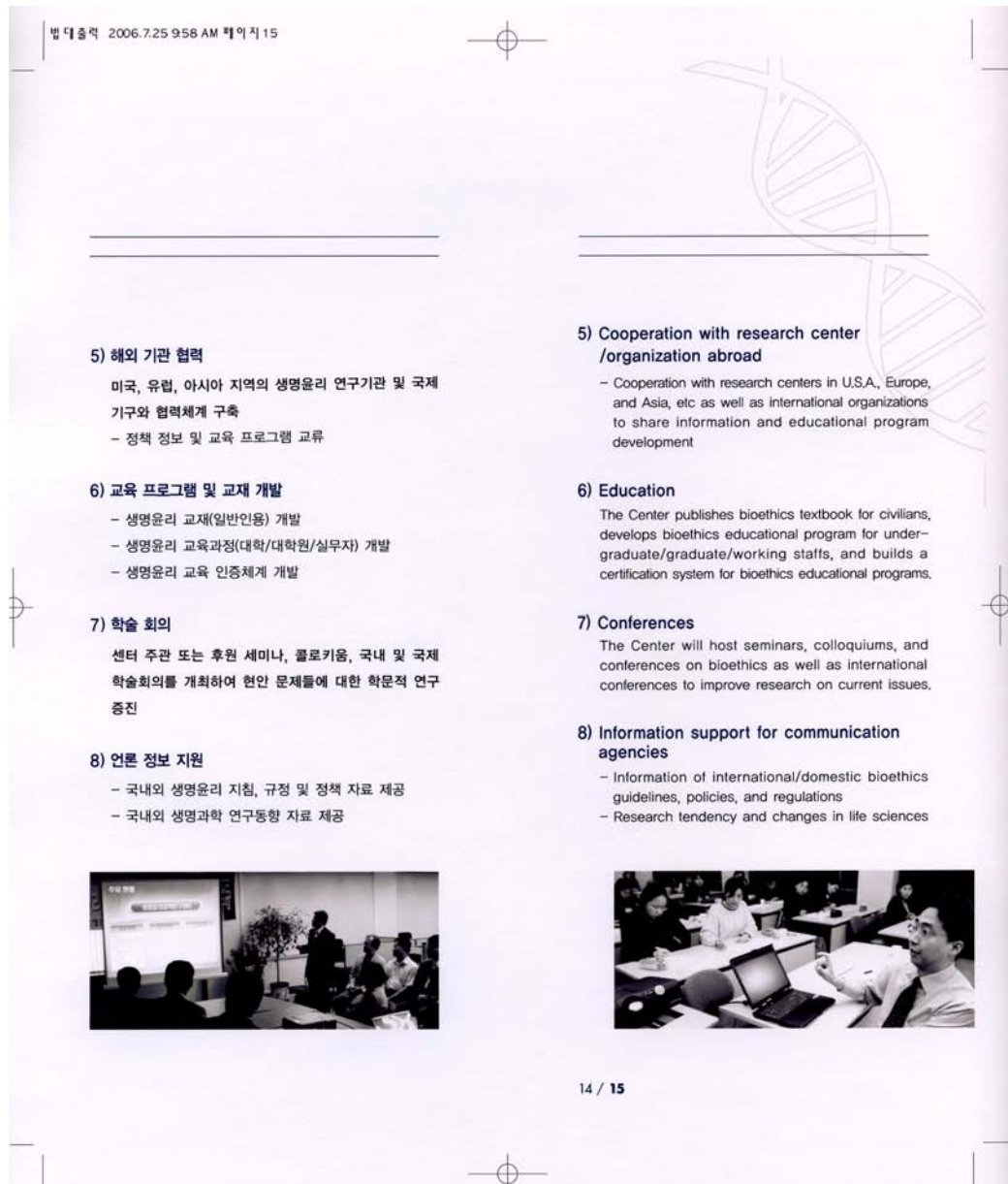
이름 Name	전공 Major	소속 Position
장영민 Young Min Chang	형법학, 법철학 Criminal law, Philosophy of law	센터장, 법과대학 교수 Director, Prof. of Law
강민아 Minah Kang	보건의료행정학 Public Health and medicine administration	행정학과 교수 Prof. of Public Administration
고인석 Insok Ko	과학철학 Philosophy of science	주제통합형교양 교수 Prof. of General and Integrated Education
권복규 Ivo Kwon	의료윤리, 생명윤리 Medical ethics, bioethics	의과대학 교수 Prof. of Medicine
김영석 Young Sok Kim	국제법 International law	법과대학 교수 Prof. of Law
김현철 Hyeon Cheol Kim	법철학, 생명법 Philosophy of Law, Bio Law	법과대학 교수 Prof. of Law
신승남 Seung Nam Shin	특허법, 생물법제학 Patent Law	법과대학 교수 Prof. of Law
정성철 Sung-Chul Jung	생화학 Biochemistry	의과대학 교수 Prof. of Medicine
최경석 Kyungsuk Choi	생명의료윤리학 Biomedical Ethics	법과대학 연구교수 Research Prof. of Law
최경희 Kyunghee Choi	과학교육학, STS Science Education, STS	과학교육과 교수 Prof. of Science Education
허라금 Ra-Keum Huh	여성학 Women's Studies	여성학과 교수 Prof. of Women's Studies
김계성 Kye-Seong Kim	세포발생학 Cell Developmental Biology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 Prof. of Medicine at Hanyang Univ.
박경신 Kyung-Sin Park	미국법 American Law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Prof. of Law at Korea Univ.
박수현 Soo Hun Park	과학기술행정법 Administrative Law of Science Technology	강원대 법과대학 교수 Prof. of Law at Kangwon National Univ.
홍석영 Suk Young Hong	생명윤리 Bioethics	경상대 윤리교육과 교수 Prof. of Ethics Education at Gyeongsang National Un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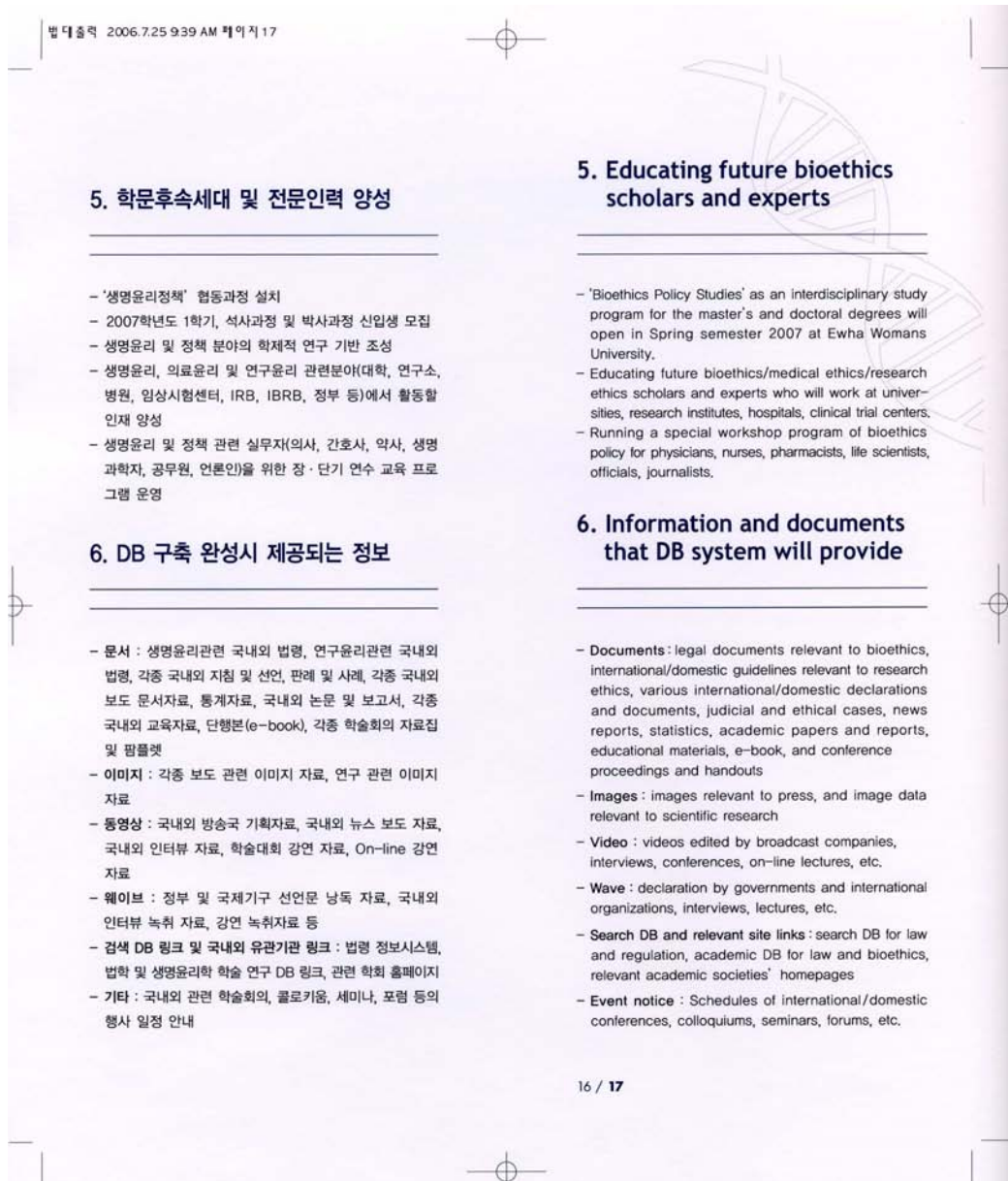
<그림 1-4-6> 브로셔 시안6, 10~11쪽



<그림 1-4-7> 브로셔 시안7, 12~13쪽



<그림 1-4-8> 브로셔 시안8, 14~15쪽



<그림 1-4-9> 브로셔 시안9, 16~17쪽



<그림 1-4-10> 브로셔 시안10, 18~19쪽

2) 홈페이지 제작

가) 제작 업체 선정

센터의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업체의 선정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되는 생명윤리정책과 관련된 정보센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홈페이지의 제작과 함께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자료의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한 정보센터(DB)의 구축이 요망되었다. 따라서 일반 웹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정보검색을 위한 도서관 기능이 부여된 DB 제작과 서버 구축의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작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업체에 사전 상담을 걸쳐 업무에 대한 견적과 일정들을 조율하였다.

도서관 WEB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법과대학 서버의 구축 및 유지에 관한 경험이 있는 은아소프트(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위치, 대표 : 강지웅)사에 센터의 홈페이지와 DB 구축을 의뢰하였고, 세부 일정 및 제작은 디자인 및 기획에 관한 계획서의 검토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나) 제작일정

홈페이지 및 DB의 제작 일정은 계획서와 견적서를 바탕으로 2006년 8월 1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홈페이지 디자인과 이미지의 선정 후 DB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의 구입 순서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도서관처럼 자료의 열람이 가능한 자료검색 시스템으로서 독자적인 생명윤리의 분류체계를 통해 용어의 검색이나 문서의 유형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고자 기존의 분류방식이 아닌 새로운 분류방식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두었다.

프로그램이 제작된 후 서버에 설치하여 각종 자료의 입력 작업을 실시하였고, 자료의 분류와 입력을 전담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하였다.

<표 1-4-2> 홈페이지 제작일정

견적의뢰	2006년 5월 28일
제작 일정 계획	2006년 6월 17일 - 계획서 제출
계약체결일	2006년 8월 10일
제작기간	2006년 8월 10일 ~ 2007년 3월 28일
제작업체	은아소프트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위치)
프로그램 및 디자인 선수금	2006년 9월 06일
센터 홈페이지 1차 시안	2006년 10월 08일
센터 홈페이지 2차 시안	2006년 10월 18일
프로그램 및 디자인 1차 중도금	2006년 11월 21일
DB 서버 구입 (씨원시스템)	2006년 12월 26일
센터 홈페이지 3차 시안	2006년 1월 23일
프로그램 및 디자인 2차 중도금	
센터 홈페이지 4차 시안	2007년 4월 30일
DB 테스트와 자료 입력	2007년 3월 1일부터 - 자료 입력 시작
홈페이지와 DB 최종확인	2007년 5월 20일
홈페이지 최종 확인	2007년 6월 28일 예정

다) 홈페이지 제작 결과

<표 1-4-3> 홈페이지 구성도

최초 페이지	홈페이지 구성도		구축현황 완성(O)/ 미완(X)	비고
	1차 하위화면	2차 하위화면		
Main 화면	센터소개	인사말	O	센터장님의 인사말
		연혁 및 설립목적	O	센터의 설립목적과 연혁
		조직도	O	센터의 조직도와 조직의 역할
		연구진소개	O	센터의 연구진 소개
		협력기관	X	전 세계의 생명윤리 관련 기관 : 학회, 학교, 저널 등
		오시는 길	O	센터로 찾아오는 길
	센터활동	주요사업내용	O	센터의 주요 사업내용
		연간행사일정	O	생명윤리 관련된 전 세계의 행사와 일정
		뉴스브리핑	O	생명윤리와 관련된 전 세계의 뉴스
		공지사항	O	센터의 공지사항
		센터간행물	O	센터에서 발간된 간행물
		뉴스레터	X	센터에서 발송예정인 뉴스레터 모음
	참여마당	토론방	O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요 논쟁에 대한 토론의 장
		POLL	X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투표의 장
		자료문의	O	생명윤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문의의 장
		FAQ	X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요 질문사항
	전자도서관	기본검색	O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요 자료들의 기본검색
		확장검색	O	자료의 유형에 따른 분류검색
		분야별검색	O	생명윤리 분류법에 의한 자료의 검색
	E-learning		X	홈페이지에서 생명윤리를 배워보는 교육의 장
LOGIN	LOGIN 및 회원가입 MY PAGE		O	회원관리 페이지
HELP			X	홈페이지의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의 장
SITEMAP			O	홈페이지의 사이트 맵
ENGLISH			X	영문홈페이지
Contact us			O	홈페이지 웹마스터와 연결
개인정보보호			O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센터의 규정

(1) 메인화면

홈페이지 최초 페이지의 디자인은 센터의 현재 현황과 관심사,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단순하면서도 메인 화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다가가는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색감은 생명윤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고 어렵지 않다는 느낌을 줌으로서 일반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유도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최초 페이지에는 각각의 하위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게 센터의 로고 아래에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란을 마련하였다. 업데이트 자료는 입력된 자료들의 형태에 따라(선언/법령/지침/논문/보고서...) 분류된 최신 업데이트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CYBER POLL’ 란은 현재에 이슈화된 논쟁에 대한 대중들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투표방으로서 1차 하위화면에 있는 ‘참여마당-POLL’의 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다. 일반 대중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투표가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의 현황이나 결과는 센터의 자료로서 축적될 예정이다. 또한 POLL은 ‘참여마당-토론방’과 연계되어 투표의 결과와 토론의 경향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메인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이미지는 생명윤리정책이라는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명공학과 법과 윤리, 행정, 교육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형상화 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생명윤리정책의 수립을 위한 정보, 교육, 대화의 장’이라는 문구를 화면의 가운데 둠으로서 홈페이지에 최초 접속한 사람도 센터 홈페이지의 취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다.

화면의 오른쪽 상부에는 홈페이지의 주된 목적인 DB를 검색할 수 있게 ‘전자도서관-기본검색’을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서 이루어지게 디자인하였다.

검색란 아래 칸에는 ‘센터활동-뉴스브리핑’ 란과 연계하여, 생명윤리와 관련된 전 세계의 뉴스를 올리어 생명윤리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센터의 행사, 공지사항 등을 알리는 공지사항을 메인화면에 두어 센터의 활동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안하였다.

오른쪽 하부에는 센터간행물, 뉴스레터, 협력기관, HELP에 대한 바로가기(Quick-menu) 아이콘이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구했다. 이 메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서 각각의 하위화면 설명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1-4-11> 홈페이지 메인화면

화면의 하부에는 센터에 건의사항이나 문의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Contact us’란과 개인정보정책에 대한 센터의 운영지침이 있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1-4-12> Contact us 화면

홈 > 회원가입 > 개인정보보호정책

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다. 쿠키에 의한 개인 정보 수집
 라. 목적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마.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사.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
 자.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차.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귀하께서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 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TOP ▲

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i)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제공을 위한 계약의 성립(본인식별 및 본인인사 확인 등)
- 기타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안내

ii)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TOP ▲

다.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그림 1-4-13> 개인정보보호정책 화면

오른쪽 상부에는 'LOGIN / HELP / SITEMAP / ENGLISH'가 구성되어 있다. LOGIN 화면에서는 홈페이지의 DB에 구축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실시하면 화면에서 보이는 'LOGIN' 메뉴는 'MY PAGE' 화면으로 전환되어 로그인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홈 > 회원가입 > 로그인

회원이신분은 로그인하여 주십시오.

비회원이신분은 회원가입을 하시면 더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다른어느곳과도 연계되지않고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참고자료로서 활용됩니다.
주민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I	D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로그인"/>
PASSWORD :	<input type="text"/>		

[회원가입](#)

<그림 1-4-14> LOGIN 화면

가입을 원하는 회원들은 'LOGIN' 화면의 회원가입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홈페이지 가입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홈페이지 가입을 위해 센터의 약관을 읽고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약관에는 센터 홈페이지의 DB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용어와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나열하였고, 또한 자료를 사용함에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들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은 가입되지 않게 하여 회원가입의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회원관리

홈 > 회원가입 > 약관

회원약관 확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회원약관입니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이며 약관을 꼭 읽어보시고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와 이용 회원(이하 '회원')간에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www.bprc.re.kr 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 '이용자ID'라 함은 센터를 통하여 인증절차를 거친 회원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문자, 숫자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여 센터에 등록한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동의

동의하지않습니다

<그림 1-4-15> 회원관리 화면1-회원약관 확인

센터의 약관에 동의한 회원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국내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실명인증 사이트(www.namecheck.co.kr)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무분별하게 회원의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실명인증이 확인된 회원은 회원가입을 위하여 회원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다. 회원의 정보는 센터의 가입과 DB의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이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원관리

홈 > 회원가입 > 회원가입신청

회원정보입력

기본입력사항 - 필수입력사항

회원실명	<input type="text"/>	
아이디	<input type="text"/>	아이디중복확인 (4~12자의 영문과 숫자 가능)
비밀번호	<input type="password"/>	(6~8자의 영문과 숫자 가능/대소문자,공백,특수문자구분)
비밀번호확인	<input type="password"/>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이메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daum.net(hanmail.net) ▼
주소	<input type="text"/>	우편번호 찾기
전화번호	02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핸드폰번호	010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뉴스레터수신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수신함 <input type="radio"/> 수신하지 않음	

추가입력사항 - 선택입력사항

직장명/학교명	<input type="text"/>
직업	<input type="text"/>

회원가입하기 취소하기

<그림 1-4-16> 회원관리 화면2-회원정보입력

회원가입이 완료된 접속자들은 즉시 홈페이지의 모든 화면의 접속이 가능해진다. 또한 토론방에

글쓰기가 가능하며, 검색 결과에 대한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해진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HELP’ 란은 홈페이지의 사용을 위한 상세한 방법을 설명해 놓아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SITEMAP’란은 홈페이지의 구성도를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 화면으로서 홈페이지에 각각의 메뉴에 바로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1-4-17> 사이트 맵

홈페이지의 최종 구성 목표는 국문 홈페이지와 영문 홈페이지가 같이 구축될 예정이며, 영문 홈페이지는 다음 년도에 구성될 계획이다. 영문홈페이지는 외국에서 접속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방식의 홈페이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외국의 주요 홈페이지들을 확인해본 결과 화면에 이미지와 아이콘의 사용이 적고, 인터넷 속도가 느려도 접속이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문홈페이지와는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센터소개

센터소개란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입력되어 있다. 센터소개란의 하부메뉴로는 ‘인사말 / 연혁 및 설립목적 / 조직도 / 연구진소개 / 협력기관 / 오시는 길’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장의 인사말을 초기 화면에 넣음으로서 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인사말이 구성되어 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website of the Bioethics Policy Research Center. The header features the center's logo and name in Korean and English, along with navigation links like '센터소개' (Introduction), '센터활동' (Center Activities), and '참여마당' (Participa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인사말' (Introduction) and includes a welcome message from the center director, Dr. Jang Young-min. The text discusses the center's mission to address bioethical issues and its commitment to research and public engagement.

인사말

홈 > 센터소개 > 인사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여러분 감사합니다.

의학과 생명공학의 놀라운 발전은 우리의 삶에 많은변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로 고통과 절망에 신음하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유전자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질병 치료의 새로운문장을 열고자 시도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인간을 대상으로 한 과학연구는 언제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시험을수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였고,
배아가 도덕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유전자 치료는 과연 안전한지 묻게 하였습니다.

본센터는 과학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대한연구를 바탕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과
규정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세계각국의 연구동향 및 정책방향을 비교, 분석하여 올바른 생명윤리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보센터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충실히수행하여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과학 연구가
수행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장 장영민

<그림 1-4-18> 센터소개와 인사말 화면

‘연혁 및 설립목적’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대한 간단한 도안과 2006년 센터의 연혁이 서술되어 있다. 생명과학계, 시민사회, 국제사회, 정부의 대화와 토론, 연계의 장을 마련하고, 생명공학의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윤리성을 보장하며 이에 대한 정책을 자문하는 센터의 목적이 간단하게 도안되었다. 연혁에는 2006년 센터의 활동이 서술되어 있으며, 연혁은 6개월마다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연혁 및 설립목적

홈 > 센터소개 > 연혁 및 설립목적

커뮤니케이션 포털로서의 사회적 역할



2006

- | | |
|-------|--------------------------|
| 4 10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사업 공고 |
| 6 14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최종 선정 |
| 7 1 | 1차년도 사업 개시 |
| 7 5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개소식 및 헌판식 |
| 7 20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재평가 토론회 |
| 7 26 | 유네스코 아태지역 생명윤리 교육회의 |
| 9 28 | 제1차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개최 |
| 11 3 | 제2차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개최 |
| 11 8 | 제1회 이화생명포럼 개최 |
| 11 10 | 거점은행 관련 해외학자 센터 방문 |
| 12 1 | 제2회 이화생명포럼 개최 |
| 12 20 | 제3차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개최 |

<그림 1-4-19> 연혁 및 설립목적 화면

‘조직도’에는 센터의 조직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살펴볼 수 있다. 센터장을 기준으로 센터의 운영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와 전문정책자문단이 있고, 센터에 상주하는 연구진들은 각각 정책연구팀, 정보관리팀, 교육홍보팀, 국제협력팀,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명칭을 클릭하면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도

홈 > 센터소개 > 조직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4-20> 조직도 화면

‘연구진소개’란에는 센터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자문위원회, 그리고 센터에서 상주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연구진의 성명과 소속과 직위, 그리고 전문분야를 소개함으로써 센터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도모하였다.

연구진소개

홈 > 센터소개 > 연구진소개

운영자문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진교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리학, 철학적 인간학
박은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철학, 생명윤리와 법
맹광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예방의학, 의학교육
김문현	이화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헌법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학

운영위원회

성명	소속 및 지위	전문분야
장영민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형법, 법철학
권복규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의료윤리, 의사학
김현철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법철학
정성철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생화학
최경희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수	과학교육
최경석	이화여대 법과대학 연구교수	생명의료윤리
양병국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팀장	

스텝

직급	이름	전문분야
선임연구원	박준석	법철학
	고봉진	생명윤리와 법, 형법
연구원	모효정	생명의료윤리
	박미영	철학, 사회철학
	박지윤	법철학
행정실장	박지영	행정업무, 법여성학
사서	나은영	문헌정보

<그림 1-4-21> 연구진소개 화면

‘협력기관’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생명윤리에 관련이 있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윤리와 관계된 저널이나 학회, 관련사이트 등을 나열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추후에는 각각의 사이트를 대륙별로 구분하여 관심 있는 나라나 대륙의 생명윤리 관련기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협력기관

홈 > 센터소개 > 협력기관



국내협력기관

more

대한민국	한국생명윤리학회	바로가기
대한민국	낙태반대운동연합	바로가기
대한민국	한국누가회	바로가기
대한민국	박상은의 생명윤리	바로가기
대한민국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바로가기

국제협력기관

more

영국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바로가기
미국	Bioethics.com	바로가기
미국	National Catholic Bioethics Center	바로가기
미국	Hastings Center	바로가기
미국	Center For Bioethics and Human Dignity(CBHD)	바로가기

<그림 1-4-22> 협력기관 화면

‘오시는길’에는 센터에 방문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센터에 쉽게 올수 있도록 외부에서 오는 길과 학교 내부의 상세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교내 상세지도는 ‘캠퍼스내 오시는 길’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난다.

오시는길

홈 > 센터소개 > 오시는길



캠퍼스내 오시는길

일반 주차안내

이화·삼성 캠퍼스센터 공사 관계로 차량 출입은 후문으로만 가능하며, 교내 버스 출입 및 주차가 불가합니다. (방학기간 제외)

연락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316호
 전화 : 02-3277-4227
 팩스 : 02-3277-4221
 이메일 : bprc@bprc.re.kr

<그림 1-4-23> 오시는 길 화면

복잡한 교내에서 센터로 오기 위한 상세지도가 플래쉬 화면으로 나타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내 정문으로 진입한 사용자는 화면에서 붉은 점으로 나타나는 길을 따라 오면 센터에 쉽게 도착할 수 있다. 차후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사용자를 위한(후문에서 진입한) 캠퍼스 지도를 첨부할 예정이다.

캠퍼스 지도

정문 > 100주년기념박물관 > 운동장 > 경영관 > 체육관
> 조형예술관 > 헬렌관 > 본관 > 법학관



<그림 1-4-24> 캠퍼스 지도

(3) 센터 활동

센터활동란에는 센터 활동상을 알 수 있다. 하부메뉴로는 ‘주요사업내용 / 연간행사일정 / 뉴스브리핑 / 공지사항 / 센터간행물 / 뉴스레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사업내용’에는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센터가 진행해야 할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센터의 창립 초기인 2007년까지는 센터의 설치와 DB의 구축, 법령/가이드라인 등의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국내외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수준의 저널을 창간하며, 생명윤리교육을 위한 포탈을 구성한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제여론 및 정책동향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적 협력과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기능을 함으로서 국내외 생명윤리 활동의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생명윤리의 형성에 기여함을 최종 목표로 센터의 사업은 진행된다.



<그림 1-4-25> 센터활동과 주요사업내용 화면

‘연간행사일정’에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행사들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국내외 행사를 연도별로 게시함으로써 생명윤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고 행사의 홍보효과를 기대한다.

연간행사일정

홈 > 센터개요 > 연간주요일정

◀ 2007년 6월 ▶							2007년 6월 행사 및 일정	
S	M	T	W	T	F	S	기간	내용
●	●	●	●	●	1	2	2007-6-4	센터홈페이지 개편 오픈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그림 1-4-26> 연간행사일정 화면

‘뉴스브리핑’에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국내외 소식과 행사 등을 게재하였다. 이는 센터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들에게 생명윤리와 관련된 소식을 알리고, 최근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각각의 뉴스들에 대한 단어검색을 가능하게 하여 지나간 뉴스나 동향, 행사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뉴스브리핑

* 홈 > 센터활동 > 뉴스브리핑

분야	제목	파일	날짜
대중강연	과학문화재단, 英 닐 챔프니스 교수 초청 대중 강연(2007.3.28~31)		2007-03-27
워크샵	심혈관졸기세포 워크샵(2007.4.24)		2007-03-27
심포지엄	Bio-Vision 2016 심포지엄 발표자료(2007.3.19)		2007-03-27
보도자료	[연합뉴스061207]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2)		2007-03-12
보도자료	[연합뉴스061207]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2007-03-12
보도자료	[뉴시스061207]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 열려		2007-03-12
보도자료	[뉴시스061207] 줄기세포와 생명윤리학의 변화 알수 있는 토론회 열려		2007-03-12
보도자료	[뉴시스061207] 황우석 사건이후 줄기세포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		2007-03-12
보도자료	[뉴시스061207] 생명윤리의 정책과 학회의 움직임 볼수있는 토론회 열려		2007-03-12
보도자료	[뉴시스061207] 황우석 사건 1년후, 생명윤리의 변화에 대한 토론회 열려		2007-03-12
보도자료	[뉴시스061207] 1년전 황우석 사건이후 줄기세포 연구의 변화입니다		2007-03-12
보도자료	[뉴시스061207] 각계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명윤리 토론회		2007-03-12
보도자료	[뉴시스061207] 미화여대, 생명윤리에 관한 발표회 및 토론회 열려		2007-03-12
보도자료	[이대학보]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신설		2007-03-12
보도자료	[Indiana Law School news] Korea's Ewha Institute for Law and Bioethics Joins Roster of International Partners		2007-03-12
보도자료	[이대학보] 보건복지부 지정, 본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개소식		2007-03-12
보도자료	[경향신문] 생명윤리정책연구기관 국가연구센터 지정		2007-03-12
포럼	2006 FERCAP (2006.11.29~30, Thailand)		2007-03-12
논문공모	2006년도 제4회 바이오안전성 대학(원)생 논문공모		2007-03-12
학술대회	제2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06.10.17, 가톨릭대)		2007-03-12

[이전10개] 1 [2] [3] [다음10개]

제목


검색

<그림 1-4-27> 뉴스브리핑 화면

‘공지사항’에는 센터내의 행사, 공지사항 등을 게시하여 센터의 활동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지나가 행사나 또는 앞으로 진행될 행사 등을 게시하여 센터 활동의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지나간 행사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공지사항

홈 > 센터활동 > 공지사항

분야	제목	파일	날짜
공청회	생명윤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2007.5.16)		2007-05-15
포럼	제3회 미화생명포럼 "생명과학과 윤리학적 명상"-박미문 교수 (2007.4.20)		2007-04-18
채용 공고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박사후과정 연구원 채용 공고◀ (채용완료)		2007-03-12
심포지엄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개최(2006.12.7)		2007-03-12
포럼	제1회 미화생명포럼 "기계와 생명"-김지하 시인 (2006.11.8)		2007-03-12
설명회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 설명회 (2006.11.7)		2007-03-12
회의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제2차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및 회의 (2006.11.3)		2007-03-12
회의	유네스코 아태지역 생명윤리 교육 회의 (2006.7.26~28, 미화여대)		2007-03-12
토론회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재평가」 토론회 (2006.7.20,미화여대)		2007-03-12
공청회	유전자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공청회 (2006.7.18,미화여대)		2007-03-12

[이전10개] 1 [다음10개]

제목 검색

<그림 1-4-28> 공지사항 화면

‘센터간행물’란에는 센터에서 발간되는 각종 자료집과 보고서, 원고 등을 게시함으로써 센터의 활동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또한 자료의 검색을 따로 시행하지 않고 바로 센터의 간행물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이다. 또한 생명윤리 분류법에 의해 간행물들을 분류할 수 있고 단어검색이나 청구기호검색 등이 가능하게 하였다.

센터간행물

▶ 홈 > 센터활동 > 센터간행물

대분류 |

코드 1단계 선택

중분류 |

코드 2단계 선택

소분류 |

코드 3단계 선택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	자료유형
1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공청회] 유전자 진단 및 치료에 ...	이화여자대학..	2006	
2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설명회]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	생명윤리정책..	2006	
3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토론회]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재평...	생명윤리정책..	2006	
4	[이화생명포럼] 생명의 이해와 생명윤리	장희익	2006	
5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생명윤리정책..	2006	
6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연구계획	이화여자대학..	2006	

[이전 10개] **1** [다음 10개]

청구기호

검색

<그림 1-4-29> 센터간행물 화면

‘뉴스레터’에는 센터에서 발송될 예정인 뉴스레터가 게시될 예정이다. 뉴스레터는 생명윤리에 대한 최신동향, 센터공지사항, 생명윤리 관련기관 소식 등이 게재되어 이메일링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뉴스레터

» 홈 > 센터활동 > 뉴스레터



<그림 1-4-30> 뉴스레터 화면

(4) 참여마당

참여마당은 생명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에 관한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메뉴로서, 하부메뉴로는 ‘토론방 / POLL / 자료문의 / FAQ’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론방’에는 쟁점화된 생명윤리 문제나 생명과학 기술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글쓰기 기능과 글보기 기능이 가능하며, 로그인하지 않는 회원의 글쓰기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게시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토론방은 다음의 ‘POLL’과 연계되어 투표와 의견개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bioethics POLICY RESEARCH CENTER

WELCOME TO BIOETHICS POLICY RESEARCH CENTER

Public Dialogue
생명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윤리쟁점

참여마당

- 토론방
- POLL
- 자료문의
- FAQ

토론방

번호 | 제목 | 날짜

1	연구목적의 난자 제공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2007-06-03
---	-------------------------	------------

[이전10개] 1 [다음10개]

제목 검색

<그림 1-4-31> 참여마당과 토론방 화면

토론방

홈 > 센터개요 > 공지사항

연구목적의 난자 제공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작성 : 관리자 작성일 : 2007-06-03

내용

연구목적의 난자 제공은 금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용처와 인권의 확실한 보호 아래 이루어 진다면

작성 : lala1104 날짜 : 2007-06-03

이용처와 인권의 확실한 보호 아래 이루어 진다면 본인의 동의하에 할수 있다고 봅니다. 채취과정등 인권이문제 시 때는 부분은 공정한 기관의 입회하에 투명하게 이루어 진다면 성인의 동의 하에 자의적으로 라면 제공이 가능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다른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전10개] | [다음10개]

<그림 1-4-32> 토론방의 토론내용 보기

‘POLL’은 쟁점화된 생명윤리 문제나 생명과학 기술에 대한 투표의 장으로서 메인화면의 ‘CYBER POLL’과 연계되어 있다. ‘POLL’에는 각각의 주제에 대한 대중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투표의 결과도 쉽게 볼 수 있다.

POLL


홈 > 참여마당 > POLL



UNDER CONSTRUCTION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자료를 업데이트중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1-4-33> POLL 화면

‘자료문의’란은 전자도서관의 검색으로 찾지 못한 자료의 요청이나, 전자도서관에 입수되지 못한 자료를 알려주는 메뉴로서 로그인한 회원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자료문의

홈 > 참여마당 > 자료문의

자료요청 입력

작성자

분야

제목

내용

<그림 1-4-34> 자료문의 화면

‘FAQ’란에는 센터와 생명윤리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자주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약 20여개의 질문과 답변이 업로드될 예정이다.

(5)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은 당해연도 정보센터의 주축의 사업으로서, 생명윤리에 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각국의 선언 및 법령, 지침, 논문, 언론보도자료, 각종 보고서와 양식들을 DB로 구축하였다. 전자도서관의 구성은 ‘기본검색 / 확장검색 / 분야별검색’으로 이루어져 자료의 정보 유무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기본검색’은 검색하고자하는 단어를 이용하여 제목이나 내용에서 입력한 단어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였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homepage of the Bioethics Information Center. The header includes the center's logo and name in Korean and English, along with navigation links like '센터소개', '센터활동', '참여마당', '전자도서관', and 'E-learning'. A central banner features a stack of books and the text 'Bioethics Information Center' and '연구, 교육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On the left sidebar, under '전자도서관', there are links for '기본검색', '확장검색', and '분야별검색'.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기본검색' and includes a search bar with a dropdown menu set to '전체' and a '검색'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is explanatory text about the search function and an example search interface. The example shows two search scenarios: one for '생명공학' (Biotechnology) with a note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 편리.' (Convenient when there is not much data), and another for '생명공학 윤리 도덕' (Bioethics and Ethics) with a note '자료가 많은 경우 편리.' (Convenient when there is a lot of data).

At the bottom, there is a section titled '확장검색 바로가기' (Expand Search Shortcut) with links to '국제선언', '국내외법령', '연구 및 행동지침', '언론보도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 및 저서', and '기타'.

<그림 1-4-35> 전자도서관과 기본검색 화면

‘확장검색’은 입력된 자료의 종류에 따른 세부코드와, 타이틀, 발행처, 키워드, 년도, 국가, 언어로
서 검색할 수 있는 메뉴로서 다수의 자료들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한 세부검색방법이다.

확장검색

홈 > 전자도서관 > 확장검색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기타 자료

대분류

코드 1단계 선택

중분류

코드 2단계 선택

소분류

코드 3단계 선택

쪽당출력수

10

타이틀

발행처

키워드

년 도 년부터 년 까지

년 이전 년 이후

국 가 대한민국

언 어 국어

완전일치

검색

<그림 1-4-36> 확장검색 화면

‘분야별검색’은 해당 자료의 종류에 따라 생면윤리 분류법에 의해 분류되어진 자료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메뉴로서 확장검색보다는 좀 더 많은 관련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분류별로
입력된 자료들의 현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전자도서관의 검색방법과 결과보기, 사용방법 등은 2장 다항의 ‘2006년 정보센터구축 결과 보고’
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분야별검색

홈 > 전자도서관 > 분야별검색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기타 자료

대분류 | 코드 1단계 선택

중분류 | 코드 2단계 선택

소분류 | 코드 3단계 선택

번호	제목	국가/언어	선언년도	자료유형
1	생명과학 연구자 윤리헌장	대한민국/국어	2005	
2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대한민국/국어	2005	
3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기타/국어	2005	
4	한국생명윤리학회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윤리 특별위원회 성...	대한민국/국어	2004	
5	FIAMC 성명서	기타/국어	2004	
6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선언	프랑스/국어	2003	
7	International Declaration on Human Genetic Data	프랑스/영어	2003	
8	과학과 과학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	기타/국어	1999	
9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한국철학회 1999 선언	대한민국/국어	1999	
10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기타/국어	1999	
11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기타/영어	1997	
12	한국 의사윤리 강령	대한민국/국어	1997	
13	캐나다 의사협회 윤리 지침	캐나다/영어	1996	
14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대한민국/국어	1995	
15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1 추가의정서	유럽연합/국어	1994	
16	사형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미국/국어	1990	
17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	기타/국어	1989	
18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미국/국어	1988	
19	마드리드 선언 : 직업적 자주성과 자율규정에 관한 선언	에스파냐/국어	1987	
20	직업적 자주성과 자율규정에 관한 마드리드 선언	에스파냐/국어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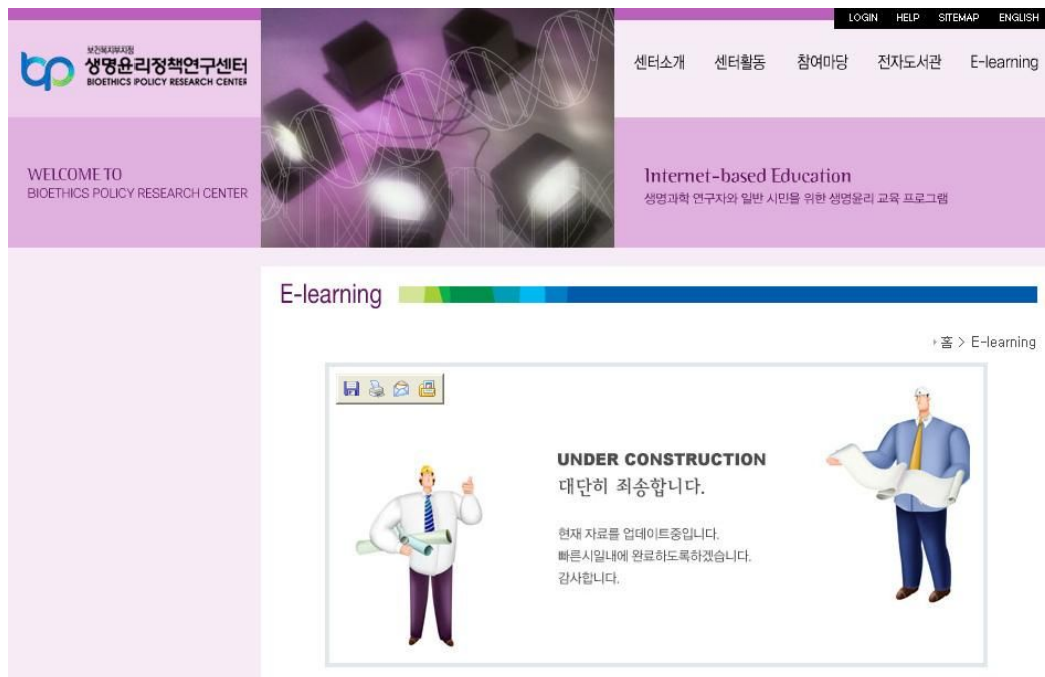
[이전10개] 1 [2] [3] [4] [다음10개]

제목 검색

<그림 1-4-37> 분야별검색 화면

(6) E-learning

E-learning란에는 생명윤리의 교육을 장을 실현하기 위한 생명윤리교육 포털이 구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구축방법이나 디자인구성 등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



<그림 1-4-38> E-learning 화면

3) 로고 제작

CI(Corporate Identity)란 일반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디자인을 통한 기업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또한 기업의 비전이나 실체를 고객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기업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정립하는데 필수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전략이기도 하다. CI란 「존재, 주체의 명시」, 「좋은 이미지의 형성」, 「표시의 통일」이라는 3가지 포인트에 대하여 그 기업자체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고 그 기업 나름의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CI의 올바른 개념이란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철학, 성질, 미래의 모습과 전략을 적절히 조정·통합함으로써 기업다움을 연출하여 기업외관을 정비하는 것이다.

연구센터의 CI를 제작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 일반 대중에게 전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증대된다.
- ▶ 연구센터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 ▶ 연구센터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센터의 이미지창조를 가중시킬 수 있다.
- ▶ 연구센터의 지명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 ▶ 연구센터 내 조직의 활성화와 능률의 향상, 관리의 용이, 효율적 조직 강화에 크게 기여가 된다.

따라서 연구센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연구센터로서의 목적과 이념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성과 연구의 전문성을 근거하여 센터의 로고를 제작하였다.

가) 제작 업체 선정

제작 업체는 2개의 CI 제작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상담과 비교 견적을 실시한 후 동일 작업 분량의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였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디자인 전문회사 HUBgN(허브지엔)은 Package Design, CI 및 BI, Editorial Design 등의 제작에 이르는 전략적 업무 분야의 개발 및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기업 이미지의 통합작업과 브랜드의 가치 향상적 요소의 개발에 있어 프로모셔널한 전략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고급 노하우를 제공한다. 특히 이 업체는 여러 바이오 벤처회사의 CI 및 Editorial Design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하여 생명 공학과 정책과 윤리의 이미지를 표출해야 하는 센터의 이미지를 가능한 한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업체를 선정하였고, CI 제작에 의뢰하였다.



<그림 1-4-39> 로고 디자인 의뢰회사 ‘허브지엔’ 로고

나) 로고 제작 일정

로고 제작을 위한 견적서 의뢰는 2006년 9월 22일 실시되었으며, 로고 제작 일정은 우선 시장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 CI 1차 시안, CI 2차 시안, CI 3차 시안, 최종 CI 완성과 사후 관리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사후 관리 과정을 통해 각종 양식과 대외 홍보용 제작물 등에 센터의 CI 및 로고를 첨부함으로써 센터의 이미지를 통일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표 1-4-4> 로고 제작 일정

견적의뢰	2006년 9월 22일
제작기간	2006년 9월 22일 ~ 2006년 11월 21일
제작업체	HUBgN (허브지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위치)
의뢰 내역	센터 CI 제작
첫 번째 시안	2006년 10월 12일
두 번째 시안	2006년 10월 17일
시안 발표	2006년 11월 1일 센터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최종 시안 확정	2006년 11월 21일



<그림 1-4-40> 1차 로고 시안



<그림 1-4-41> 2차 로고 시안



<그림 1-4-42> 3차 로고 시안



칼라수정안



<그림 1-4-43> 최종 시안

다) 확정된 로고와 그 의의



〈그림 1-4-44〉 센터로고 심볼마크의 해석

최근 CI 디자인 트렌드인 워드마크의 형태로 개발한 것으로, 본 심볼마크는 디자인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심볼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영문 (BIOETHICS POLICY RESEARCH CENTER) 이니셜인 BPRC중 주목성을 고려하여 BP를 형상화한 것이다. bioethics과 policy의 결합, biology, 또는 life science 와 public의 결합, 상징하며 DNA 이중 나선구조와 세포분열의 느낌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철학, 법학, 과학의 학제간 연계를 고려모양의 그라데이션으로 형상화 하여 이들 분야의 협력과 원활한 정보 교류 및 정책 공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표현한 것이다.

하나인 듯한 청색과 녹색의 그라데이션 원형은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상징하는데 인간의 생명을 위한 생명과학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법률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국내외 생명윤리 정책 및 관련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센터의 끊임없는 미래지향적 의지와 목표를 상징한다.

심볼마크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 상징물로서 연구주체인 연구센터의 이미지 및 서비스 이미지 이념 등을 함축하고 있다.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요소인 심볼마크는 그 이미지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연구센터의 특성상 각종 홍보물 및 연구자료의 배경 색상과 재질이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특별히 칼라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심볼마크에 그라데이션을 적용할시 그라데이션 비율을 정확히 사용하여야 하며, 네가티브 적용시 그라데이션 적용은 하지 않았다.



<그림 1-4-45> 센터로고 심볼마크의 칼라규정



<그림 1-4-46> 센터 명함 (국영문 혼용)

명함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이다. 제시된 명함은 국문, 영문, 국영문 혼합형을 자유로이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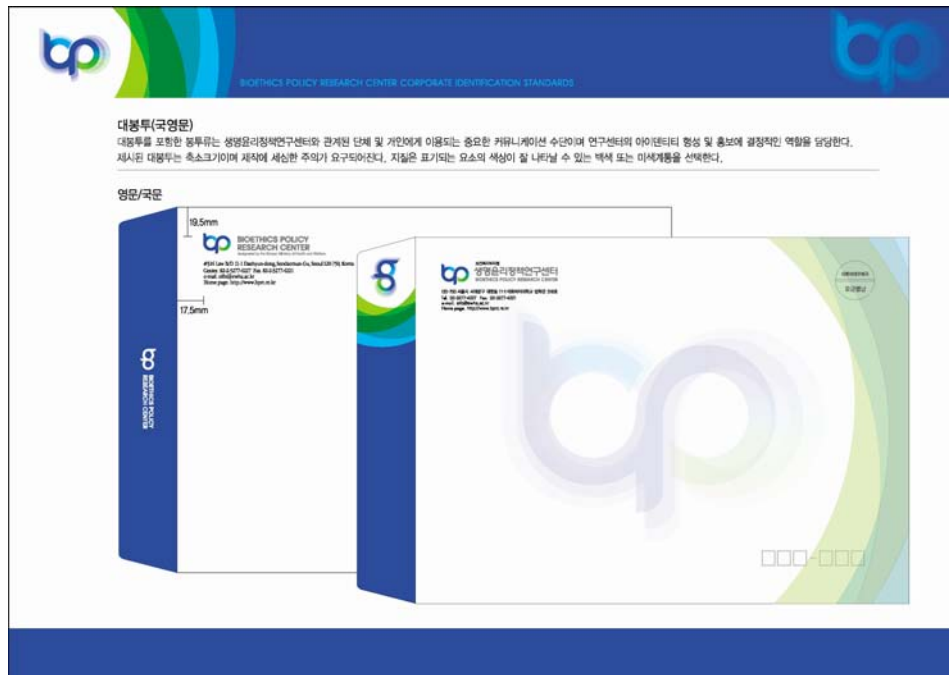
명함의 지질은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되 표기되는 요소의 색상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백색 또는 미색계통을 선택한다.



<그림 1-4-47> 센터 소봉투 (국영문)

소봉투 및 대봉투를 포함한 봉투류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와 관계된 단체 및 개인에게 이용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연구센터의 아이덴티티 형성 및 홍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제시된 소봉투는 제작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지질은 표기되는 요소의 색상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백색 또는 미색계통을 선택한다.



<그림 1-4-48> 센터 대봉투 (국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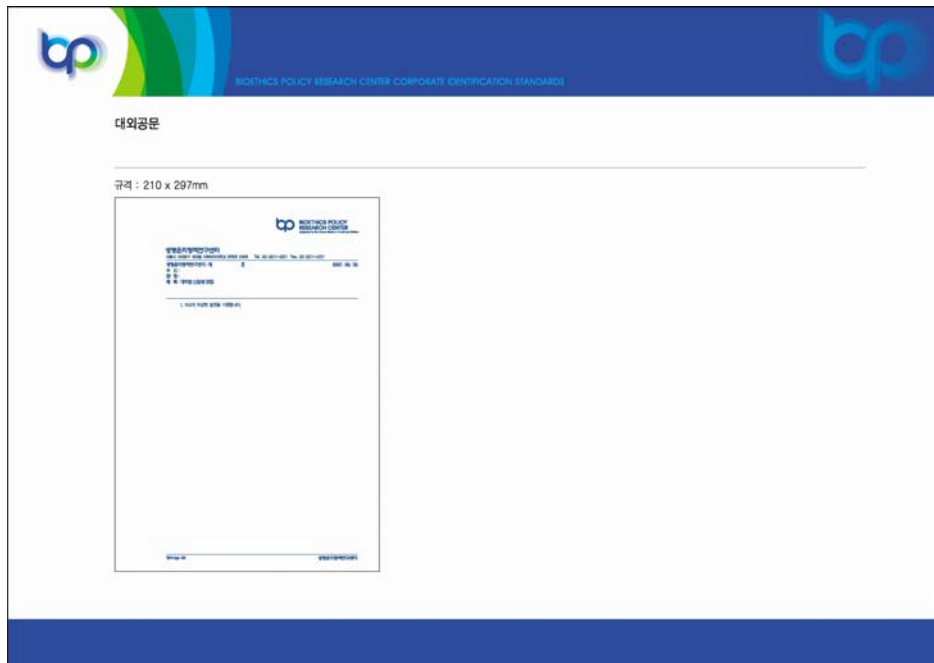
신문/잡지광고는 광고의 내용, 주제, 표현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사할 수 있으나 고정된 규격을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도하고자 하는 광고 표현에 크게 무리가 없는 한 본 시안에 따름으로서 디자인의 통일감을 유지한다. 이 외에 공문 양식으로 사용되는 팩스용지나 대외 공문용지 등에도 센터의 로고를 넣음으로써 외부 기관으로 송부시 센터의 이미지가 표출될 수 있는 하였다.

또한 현수막, 사인물, 인터넷 게시물 태그, 명찰, 만년필이라든가, 연필, 메모지나 포스트잇, 편지지와 노트 등 다양한 제품에 센터의 로고를 직접 넣어 제작함으로써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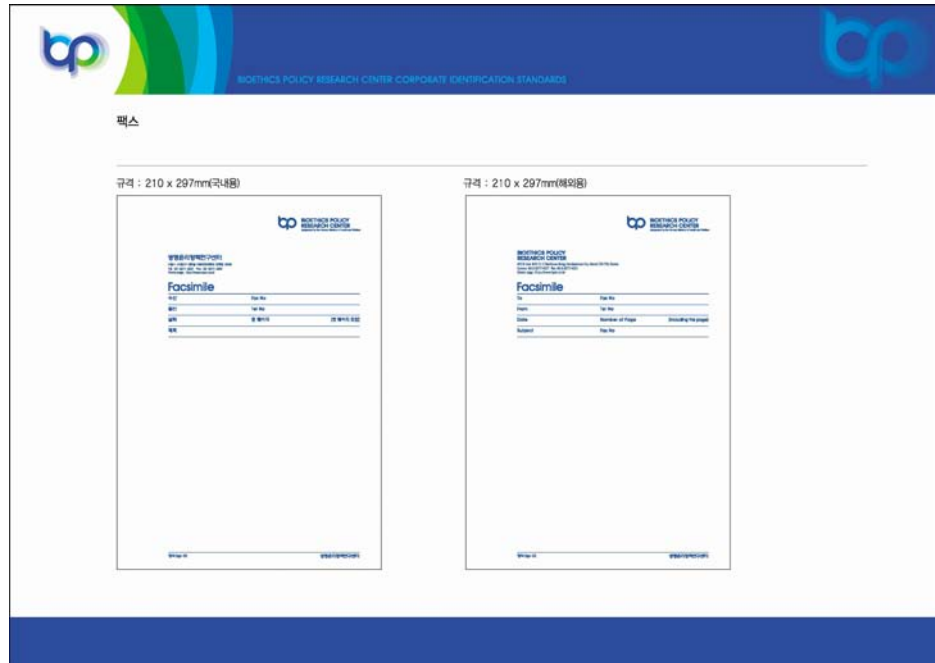
차량은 이동 중에 일반 대중과의 친밀감을 유도하며,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량은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제작회사 및 제작연도에 따라 규격과 비례를 달리하므로 제시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후 표시요소의 위치를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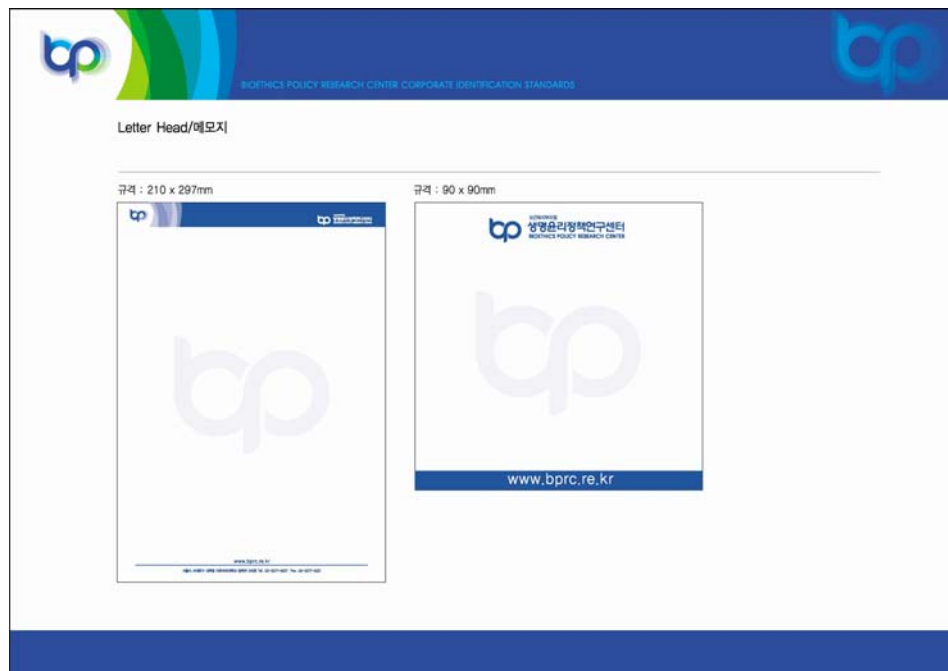
<그림 1-4-49> 센터 신문/잡지광고 포맷



<그림 1-4-50> 센터 대외공문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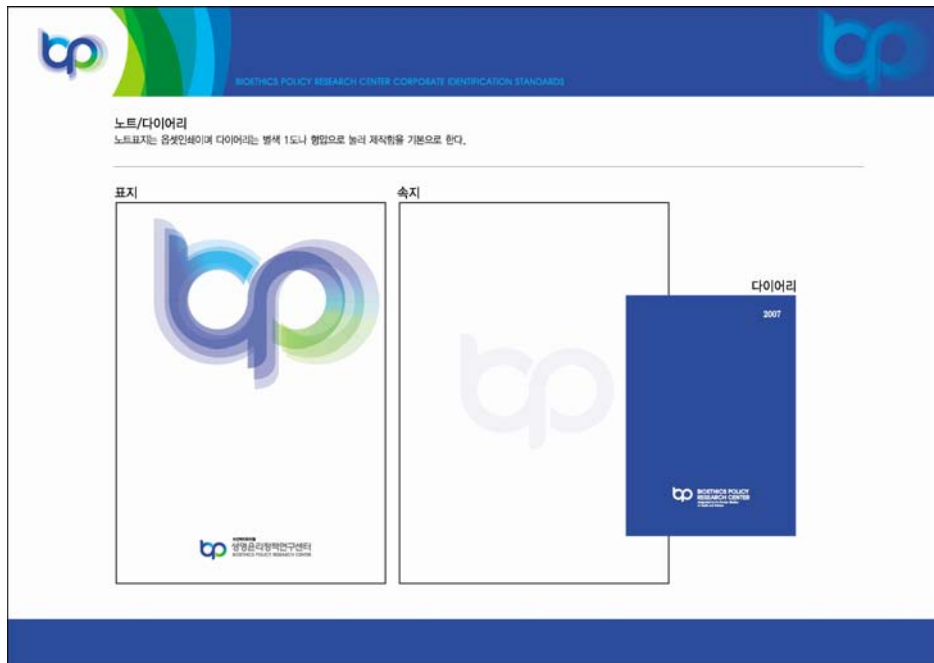
<그림 1-4-51> 센터 팩스용지



<그림 1-4-52> 센터 메모지



<그림 1-4-53> 센터 파일바인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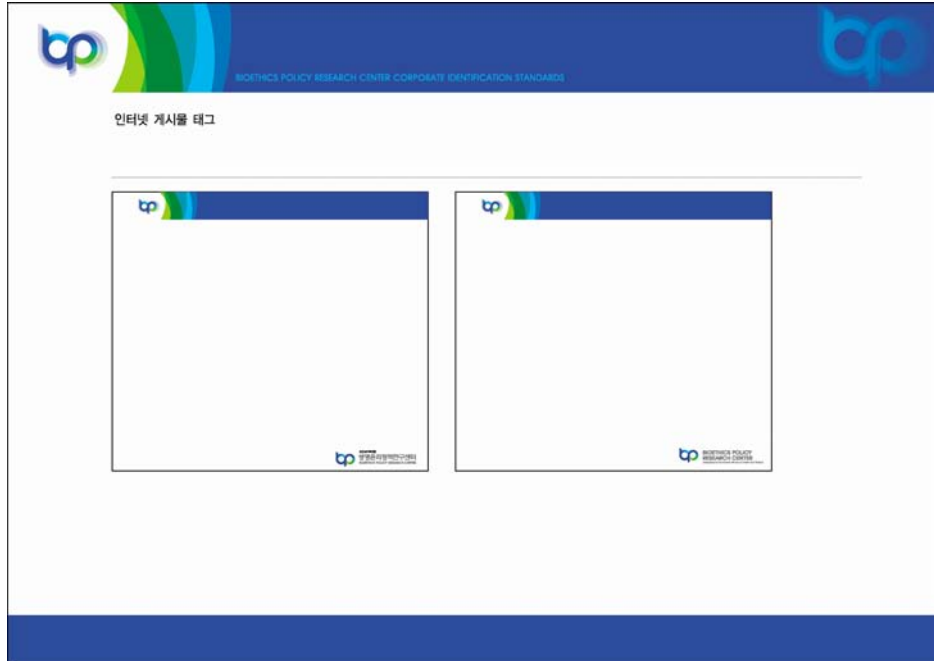
<그림 1-4-54> 노트 및 다이어리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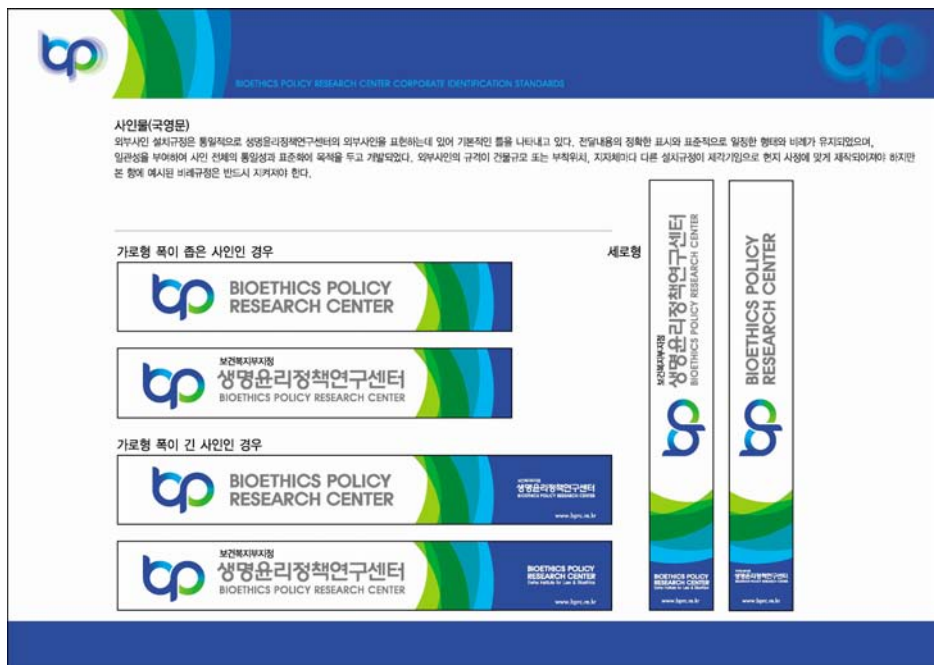
<그림 1-4-55> 센터 명찰 및 휴대폰고리/열쇠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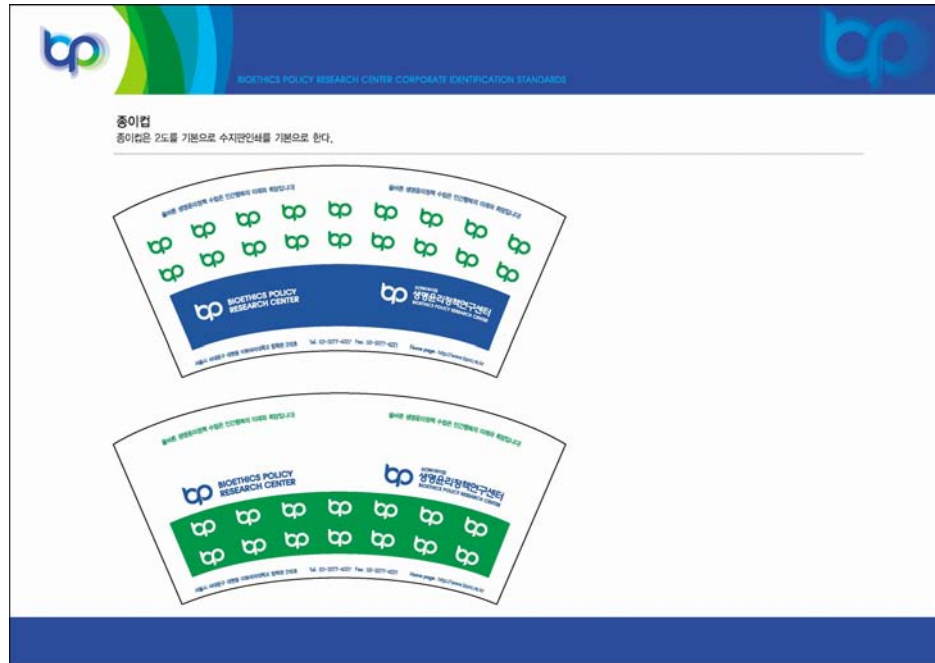
<그림 1-4-56> 센터 현수막



<그림 1-4-57> 센터 인터넷 게시물 태그



<그림 1-4-58> 센터 사인물



<그림 1-4-59> 센터 종이컵



<그림 1-4-60> 센터 차량

4) 센터 공간의 확충 및 설비 구축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처와 공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지정된 6월 14일에 이화여자대학교 측에 연구센터로의 지정여부를 통보하였고 그 결과 센터의 사무실을 이화여자대학교 내 법학관 건물에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인테리어 작업을 2006년 6월 3째 주부터 시작하였으며 센터 개소식이 있었던 2006년 7월 5일 이전에 인테리어를 끝냈다.

가) 센터 공간의 확충

센터의 사무실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내 316~317호에 위치하며 사무실의 크기는 128㎡(38.72평)이다. 정보센터와 센터 홈페이지의 서버를 배치하기 위한 센터 전산실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내 213호 (크기 24㎡(7.26평))의 공간을 배정받았고, 연구원들의 연구실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내 311호 (24㎡(7.26평))를 배정받았다.

센터의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사무실, 전산실, 연구실의 분리된 구역으로 나뉘어 총 176㎡(53.24평) 크기의 사무실이 현재 배치되어있다.

건 물 사 용 확 인 서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연구공간이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건물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내


건 물 명 칭: 법 학 관

(단위: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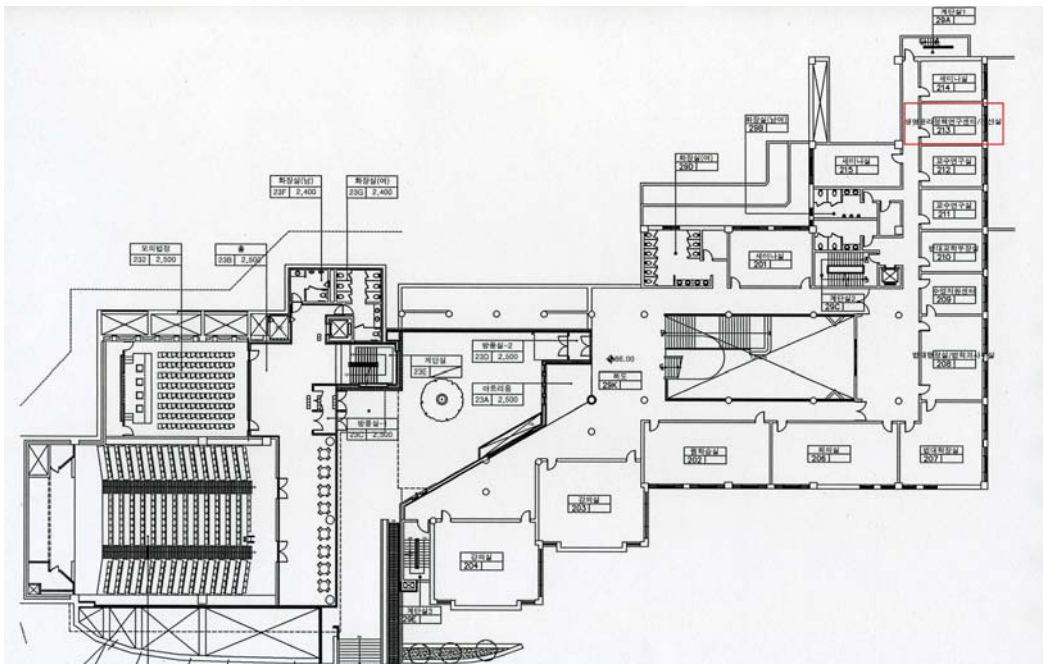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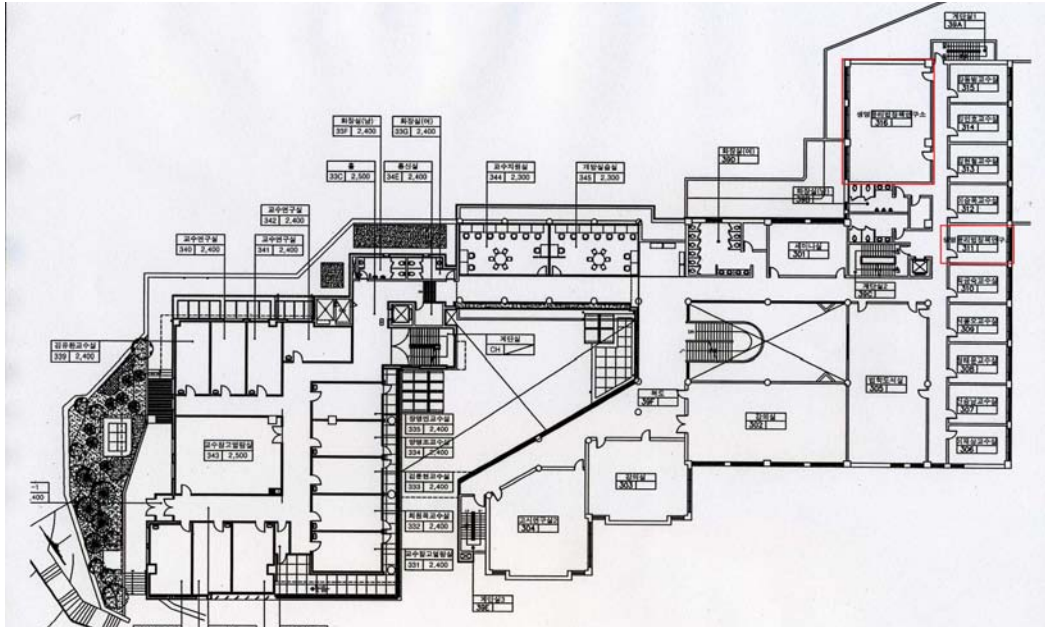
건 물 명	호 실 명	호 실	면 적	용 도
법 학 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연구실	311	24	부속연구소
법 학 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연구실	316	128	부속연구소
법 학 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전산실	213	24	부속연구소
합 계			176	

2007. 6. 5.

이화여자대학교 총무처 관재과

관재과장 김 영 재 

<그림 1-4-61>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건물사용 확인서



<그림 1-4-6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층별 도안(위: 3층, 아래: 2층)



<그림 1-4-63> 센터 사무실(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316호)



<그림 1-4-64> 센터 전산실(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13호)



<그림 1-4-65> 센터 연구실(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311호)

추후 생명윤리관련 도서의 증가에 따른 서고와 도서의 분류작업을 실시할 수서실이 설비될 예정이다.

나) 센터 설비구축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전산실, 연구실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는 내부 인테리어와 함께 기본적인 사무용품의 구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인테리어 작업에서는 구획구분과 함께 쾌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천정형 냉온풍기를 설치하였고, 식음료가 구비되는 탕비실을 구축하면서 냉장고와 정수기를 설치하였고, 연구원의 회의나 외부 방문객과의 면담을 위하여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구비된 회의실을 구축하였다.

센터 내부의 사무실과 회의실, 탕비실을 각각 구획하기 위한 파티션을 장착하였다.



<그림 1-4-66> 센터 사무실 내부1



<그림 1-4-67> 센터 사무실 내부2 : 회의실



<그림 1-4-68> 센터 사무실 내부3 : 탕비실

사무실의 내부 설비는 사무실의 기본적인 장비인 데스크탑 컴퓨터와 휴대용 노트북PC이며, 레이저프린트와 스캐너, 칼라프린터, 책상과 사무용 의자, 보관장(4단 캐비닛), 3단서랍, 책장을 구입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구비된 사무 기자재로는 디지털카메라, 디지털비디오카메라, 보이스녹음기, 레이저포인트, 복합기(팩스/복사용),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이동식스크린, 40G 외장형 하드 10개이며, 복사기는 임차형태로 구비하였다.

센터 전산실은 서버가 24시가 가동되기 때문에 기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이 심하고 기기 자체에서 발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무실이나 연구실과는 다른 구획된 장소에 전산실이 마련되었다. 전산실에는 홈페이지와 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한 서버가 구축되어 있다. 웹서버, DB서버, File서버 등 3종의 서버기기와 모니터, 키보드가 사무용 탁자위에 올려져 있으며, 현재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장치가 배치되어 있다.

차후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USP(무정전전원장치)와 동일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항온항습기, 침습에 대비하기 위한 커버 등이 구비될 예정이다.



<그림 1-4-69> 센터 전산실

센터에 상주하는 연구원들의 연구 분위기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실은 책상과 의자, 회의용 탁자, 그리고 도서들이 진열되어 있는 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4-70> 센터 연구실

마. 센터내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내규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 센터는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의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 및 생명윤리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명윤리정책 DB 구축
2.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연구 및 개발
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4. 국내외 정보네트워크 구축
5. 국내 및 국제 정책 심포지움의 개최
6.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3 조 (센터장·부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센터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조직) ① 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책연구팀, 정보관리팀, 교육홍보팀, 국제협력팀 및 연구지원팀을 둔다.

② 정책연구팀은 생명윤리에 관한 각국의 정책,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정보관리팀은 생명윤리정책 DB 및 도서관 기능의 구축·관리, 기타 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한다.

④교육홍보팀은 연구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출판, 언론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국제협력팀은 해외 연구기관들과의 협정 체결 등을 통한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공유, 국내외 자료의 영역 및 국역, 기타 인적 교류 추진 업무를 담당한다.

⑥연구지원팀은 각종 관련 자료의 검색, 정보 수집, 보고서 작성, 기타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팀장) ①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팀장은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 6 조 (연구위원 등) ①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소속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생명윤리 및 정책 분야에 정통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운영자문위원회) ①센터장의 센터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자문위원은 생명윤리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운영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 8 조 (전문정책자문단) ①센터의 생명윤리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관련하여 상시적으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로서 전문정책자문단을 둔다.

②전문정책자문위원은 생명과학, 생명윤리학, 기타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운영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 9 조 (연구원 등) ①센터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③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센터장이 임면한다.

제 10 조 (직원 등) ①센터에 전담 행정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생명윤리정책 DB 및 도서관 기능의 구축·관리를 위해 전문사서를 둘 수 있다.

③행정직원과 전문사서는 센터장이 임면한다.

제 11 조 (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 각 팀장 및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내규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지문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 (사업 종료 보고) ①센터장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6년 6월 30일 제정)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보센터구축

가. 정보센터 구축의 의의

1) 개발개요

오늘날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산업무의 대용량, 고속화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되었다. 또한, 조직의 안과 밖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정보망 속에서 무한의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멀티미디어 조직의 환경 구축이 정보화 시대의 최우선 목표로 대두 되고 있다.

센터에서 추진하는 DB 시스템의 구축도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철저히 부합하는 최첨단의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수적인 기간(INFRA) 시스템으로 요구된다.

가) 정보화시대의 도래

산업경제활동의 변화는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을 초래하였고, 새로운 인프라환경(정보통신망)을 요구하게 되었다. 정보 보유의 유무와 활용도의 크기가 그 유용성이나 경제력의 중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 정보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웹상의 서비스 제공은 센터의 주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다.

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경쟁력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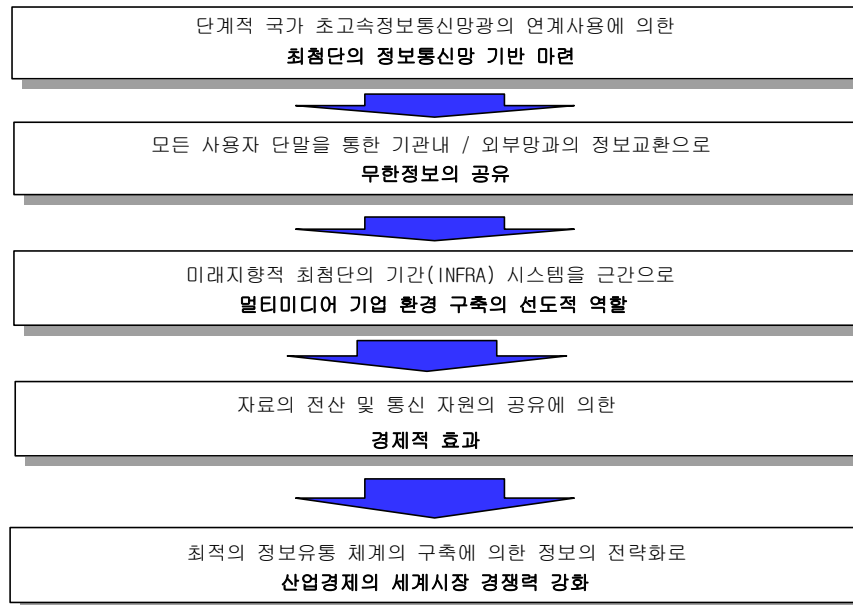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학계와 정부시책 그리고 민간 측면의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상호교환이 가능한 정보시스템의 구축하고, 산재된 정보를 정보화하여 적시에 필요한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경제활동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반으로 삼는다.

다) 기술 및 경제 환경 변화의 수용

멀티미디어 기술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분야-신기술-신시장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의 출현과 이로 인한 새로운 정보의 소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림 2-1-1> 정부센터 구축의 의의



2) 정의

센터에서 제작하는 정보센터의 구축을 위한 도메인은 센터의 영문명인 Bioethics Policy Research Center의 약자에서 유래한 bprc를 사용하였고, 연구기관임을 표시하는 re와 국가명인 kr를 이용하여 www.bprc.re.kr이라는 도메인이 완성되었다.

센터 사이트의 구축 목표는 일반인과 센터의 연구원들이 포함된 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카테고리 분류하여, 일반인에게는 센터에 대한 소개와 생명윤리정책과 관련된 정책 및 업무 진행과정과 생명윤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리고, 관계자들에게는 심도 있는 정보의 제공 및 교환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포털사이트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이트의 참여는 생명윤리와 관계된 모든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학자나 학생, 또는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하면서도 심도 있는 정보의 제공을 목표로 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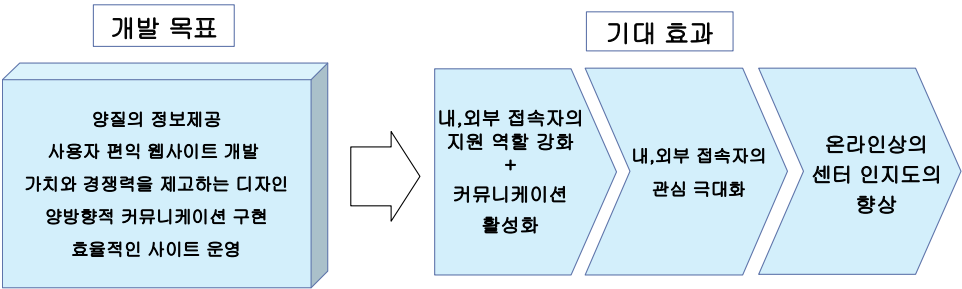
<표 2-1-1>정보센터 구축의 정의

기관명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URL	www.bprc.ac.kr
사이트 목표	외부고객(일반인)과 내부고객(관리자)이 접근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일반인에게는 센터에 대한 소개 및 센터 신뢰감을 부여하면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사이트 목적	국내외 정보 제공, 정책소개, 온라인 커뮤니티 확립
사이트 참여 대상	관련직 종사자, 학자 및 학생, 관련DB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3) 개발목표 및 기대효과

정보센터의 개발목표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윤리정책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쉽게 사용가능한 웹사이트를 개발하면서 사이트의 성격과 목표가 나타나는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구성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구현되는 효율적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다.

사이트 접속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센터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2-1-2> 정부센터 구축의 개발목표 및 기대효과

4) 개발방향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개발 목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방법으로는 SWOT 방법이 사용되었다. SWOT는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의 합성어이다. SWOT 분석이란 SWOT를 이용하여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내부 환경의 분석을 통해 사이트의 상황을 파악하고[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것 즉 외부환경의 분석[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을 활용하여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정보센터의 구축으로 인한 강점은 생명윤리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기존 사이트의 운영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이트의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초기 커뮤니티 및 사이트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에 따른 투자는 필수적이다.

국내의 높은 인터넷 보급률에 힘입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집능력이 급속히 향상되어 가는 추세와 사이트의 트렌드가 단순 홍보에서 정보제공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로 인한 정보의 교환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 유포되어 있는 정보를 집약하고 제공하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관련 정보 및 사용자 게시물을 다루는데서 오는 운영상의 위험요소와 센터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의 부족은 정보센터 구축에 위협적인 존재이다.

위의 SWOT 분석을 기초로 정보센터의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꾸준한 정보 업데이트

나)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인프라 구축

다)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사이트 structure

라) 편리한 동선 기획

마) 일관성 있게 기획된 디자인 스타일가이드 수립

바) 로딩속도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그래픽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기 있는 사이트 디자인의 구현

사) 추후 사이트 확장성을 고려한 DB 및 프로그램 설계

5) 개발전략

정보센터의 구축을 위한 개발 전략은 아래와 같이 세 방향으로 나누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기획 전략

정보센터는 구축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기획을 바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정보센터 구축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사이트의 구조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 사이트의 내용 등이 정보센터 구축의 목표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웹상 정보센터의 구조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가능 한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체계적이며 일관성이 유지되는 체계로 어디에서나 동선의 연결이 쉬워야 한다.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 및 연구센터 직원 등의 메뉴를 분리하여 서비스 차등화를 내재하고 있어야 하며, 정보구축 후 사이트 서비스 및 콘텐츠의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구조 / 레이블링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메뉴 레이블링 시스템 적용•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구조로 어디에서나 동선을 예측 가능하게 함•가능한 한 일반인과 Professional(전문가)의 메뉴를 분리•후후 사이트 서비스 및 콘텐츠의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 설계
네비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용자가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연계성과 유연성을 극대화 시킨 네비게이션 시스템 설계•수명, 수직 이동 버튼을 적절하게 활용한 계층구조 설계•시선의 흐름 및 사이트 내 동선을 최대한 고려한 사용자를 위한 네비게이션 flow 설계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Public(일반인), Professional(전문가), Family(연구센터직원)의 레벨을 두어 서비스 차등화•분야별 풍부한 콘텐츠 제공은 물론 Professional 멤버를 대상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포탈 사이트로 자리매김•텍스트 위주의 콘텐츠가 아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및 실사, 도해 등을 통한 비주얼한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정보 전달하고 사용자의 흥미 유발•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관리자 몰에서 용이하게 하여 사이트 운영을 최대한 용이하게 함•온라인 세미나를 VOD, VR 형태로 제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방문 유도•웹진 서비스 제공•온라인 투고 등을 통해 현재 우편으로 학술회고를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대체

<그림 2-1-3> 기획 전략

접속자가 사이트 내에서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보 제공의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게 하고, 수평 및 수직의 이동 버튼을 적절히 활용한 계층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시선의 흐름 및 동선을 최대한 고려한 flow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분야별로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포털사이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텍스트 위주의 화면 전개가 아닌 다양한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제공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다양한 방식의 정보 제공으로 접속자의 흥미 유발과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관리자 툴을 용이하게 하여 사이트 운영을 최대한 쉽게 할 수 있고 지속적인 정보의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하며, 웹진이나 뉴스레터 제공으로 센터에 대한 꾸준한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

나) 디자인 전략

정보센터의 사이트 구성에는 색상, 폰트, 레이아웃(layout), 애니메이션 등의 적절성이 고려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보전달력을 높이기 위하여 친숙한 느낌의 색상과 글자체, 사이트의 구성 및 구성요소 등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용자층의 접속을 고려하여 친근하고 편안한 색상을 사용하며, 명도와 채도가 유사한 색조 내에서 색상의 변화를 주어 카테고리별로 색상의 차별화를 두면서 부드러움을 유지한다. 사이트의 컨셉과 일치하는 폰트를 사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인해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고 사이트의 운영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으로 제작한다.

시선의 흐름 및 동선을 고려한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시도하고, 메인화면에 배너나 행사 알림과 같은 공지사항의 확장 가능성을 항시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시도한다. 메인화면뿐만 아니라 하부 카테고리별로 세련되고 흥미로운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삽입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용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사용자층을 고려하고 자칫 거리감을 갖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므로 가장 편안하고 친근한 컬러 시스템 적용 • 이미지 공간상 동적이며 부드러운 느낌으로 배색 • 명도와 채도가 유사한 색조 내에서 색상의 변화를 주어 카테고리별 비주얼 아이덴티티 형성
폰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style guide를 수립하여 사이트 컨셉과 일치하는 폰트 시스템으로 일관성 유지 • 많은 양의 정보 전달이 필요한 사이트 이므로 텍스트 가독성을 높이는 폰트 사용
레이아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선의 흐름 및 동선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편리한 네비게이션을 돕는 레이아웃 • 최소 수준의 프레임 사용 또는 include 사용으로 효율적인 공간활용 • 메인화면에 행사광고 혹은 배너 등을 위한 확장성 고려
애니메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은 물론 서브 카테고리별로 세련되고 흥미로운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삽입하여 주의를 환기 •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한 애니메이션 버튼 등을 활용하여 동적인 느낌을 주는 동시에 사용 집중도 향상

<그림 2-1-4> 디자인 전략

다) 기술 전략

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제반 기술로서 홈페이지 제작이나 DB 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정보의 양을 포함하게 되는 정보센터의 특징으로 인해 최적화된 DB설계가 필요하고, 방대한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기능이 강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추후 서비스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정보의 업데이트는 별도의 코딩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리자 툴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이트의 수월한 유지보수 기능을 위한 명명기법 및 폴더 구조가 통일화 되고 문서화 되어 사이트의 운영을 가능한 한 편리하게 기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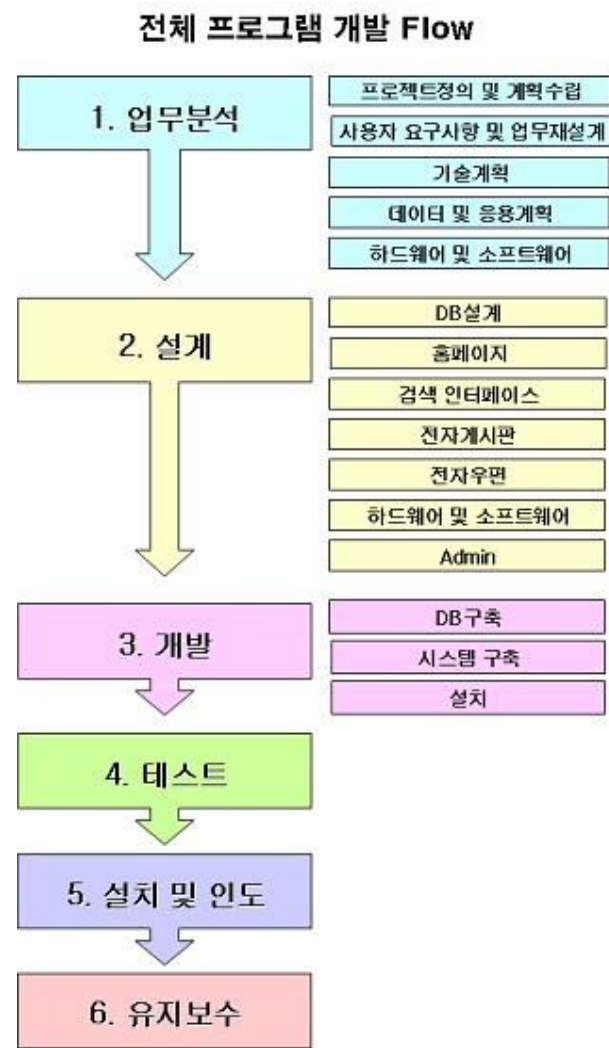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개발 언어로는 C#, XML, ASP, JAVA SCRIPT, HTML, Flash, C++ 등이 사용되며, 운영체제는 Window 2003 Server를 기본으로 제작하도록 한다.

개발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언어: C#, XML, ASP, Java Script, HTML, Flash, C++ •운영체제: Windows 2003 Server •웹서비스: IIS 6.0 •데이터베이스: MS-SQL 2000
프로그램 및 DB 설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양의 DB를 다루는 사이트이므로 최적화된 DB설계 필요 •웹진, 논문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필요 시 검색 테이블을 사용하여 검색 가능하게 함 •후후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DB 및 프로그램 설계 •정보의 업데이트는 별도의 교당을 수정하지 않고 관리자 툴에서 가능하도록 함 •수월한 유지보수를 위한 명명기법 및 폴더구조 통일 및 문서화

<그림 2-1-5> 기술 전략

나. 사업내용

1) 개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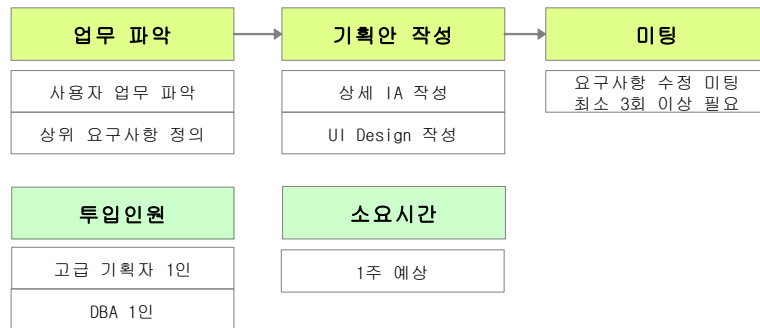


<그림 2-2-1> 프로그램 개발 Flow

가) 업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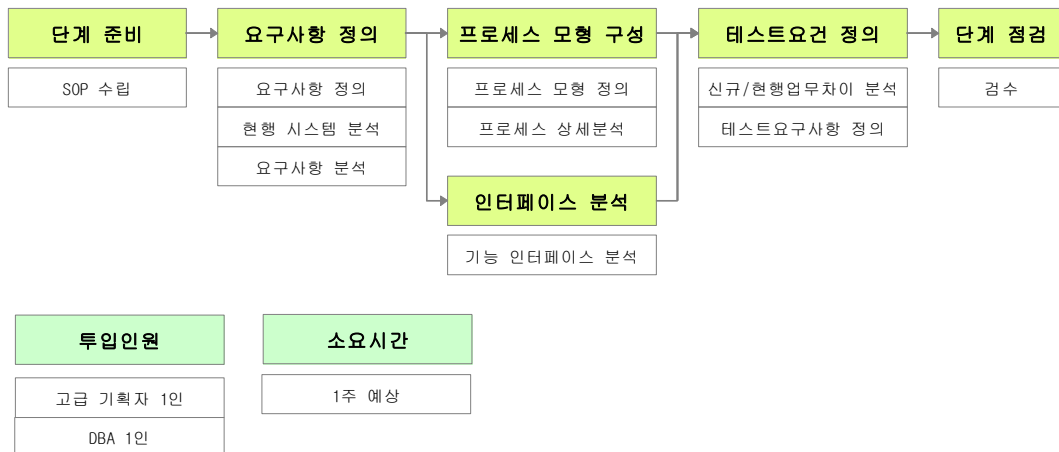
(1)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

개발에 필요한 일정, 자원, 범위, 프로젝트 관리체계,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의하고 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림 2-2-2>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수립

(2) 요구분석 및 업무 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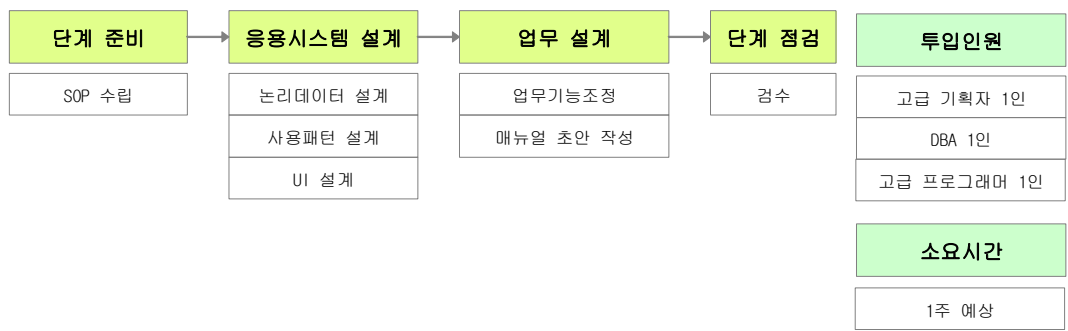


<그림 2-2-3>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수립

특정업무의 영역에 대한 데이터와 활동들을 분석한다. 업무분석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확립한다.

(3) 기술계획

시스템과 사용자간에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여 구축 단계를 준비한다. 시스템화 대상에 대한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설계표준을 수립하고 시스템 단위로 설계 작업을 진행한다. 시스템설계 시 사용자의 업무수행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 업무이벤트를 분석하고 업무 이벤트별 사용자 액션을 기술하는 이벤트 분석기법을 적용한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을 사용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림 2-2-4> 기술계획

(4) 데이터 및 응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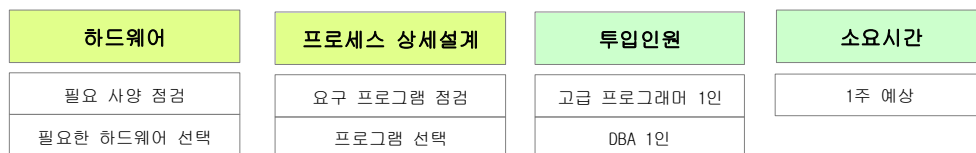
기본설계 단계에서 파악된 논리적인 설계안을 토대로 물리적 설계안을 도출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논리적 데이터 구조를 성능개선을 위한 구조 조정 작업을 거쳐 물리적 구조로 변환한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통합 및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을 갱신한다.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어 운영될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림 2-2-5> 데이터 및 응용계획

(5)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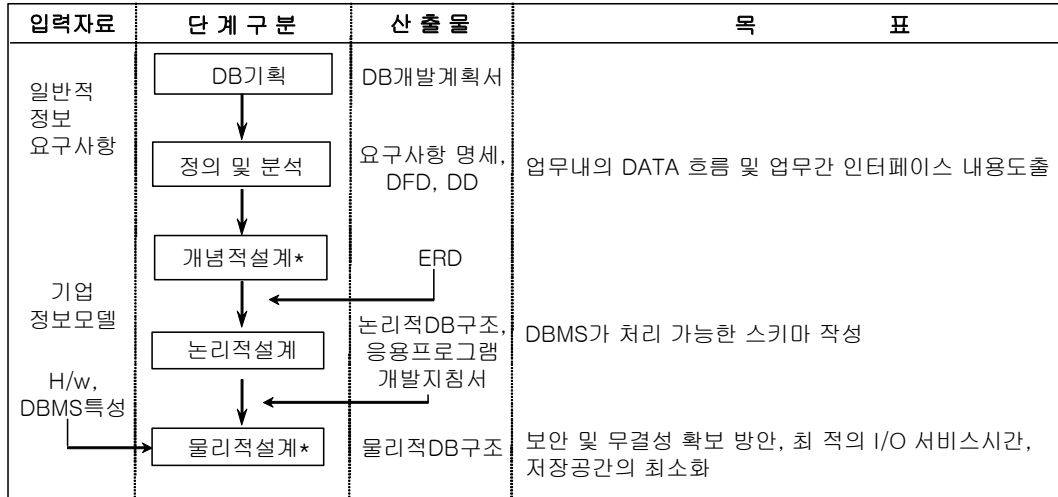
상위 설계도면을 및 업무 파악을 근간으로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하드웨어를 계획한다. 신규 어플리케이션의 정의를 바탕으로 운영될 소프트웨어를 수립한다.



<그림 2-2-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나) 업무분석

(1) DB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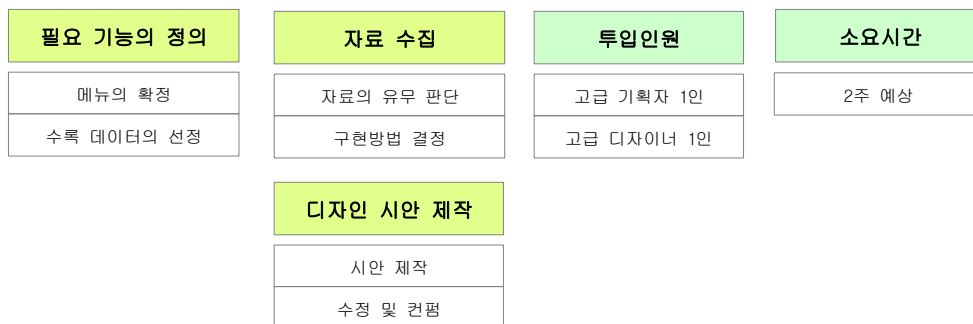


* 설계검토가 필요한 단계

투입인원	소요시간
고급 프로그래머 1인	3주 예상
DBA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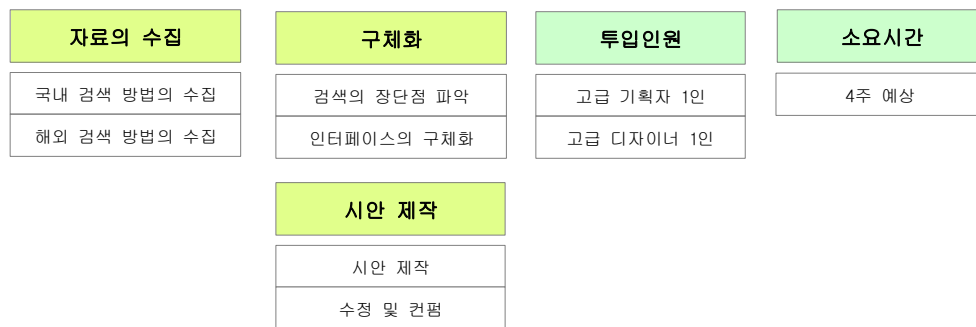
<그림 2-2-7> DB 설계

(2) 홈페이지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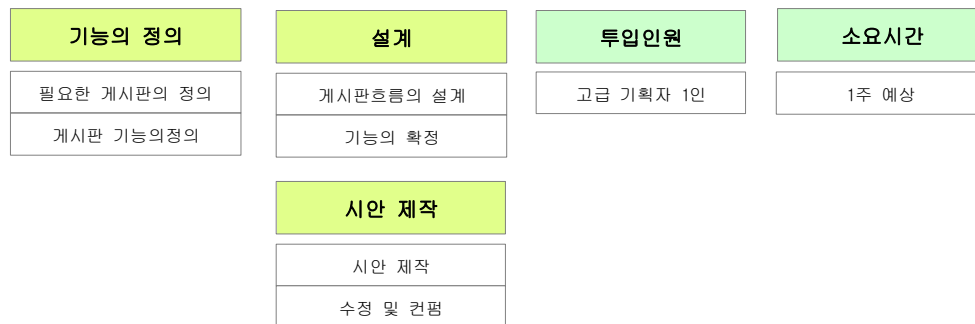


<그림 2-2-8> 홈페이지 설계

국내외의 검색 인터페이스를 총 집결하여 분석하고 기능을 정의하며 검색인터페이스의 구체화 작업을 실시한다.



<그림 2-2-9> 검색 인터페이스 설계



〈그림 2-2-10〉 전자게시판 및 전자우편

(5)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진행된 기획서를 총 분석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기획한다.

설계	결정	투입인원	소요시간
필요 소프트웨어 점검	필요 소프트웨어의 결정	프로그래머 1인	1주 예상
필요 하드웨어 점검	필요 하드웨어의 결정	DBA 1인	

<그림 2-2-1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6) 관리자모드 : Ad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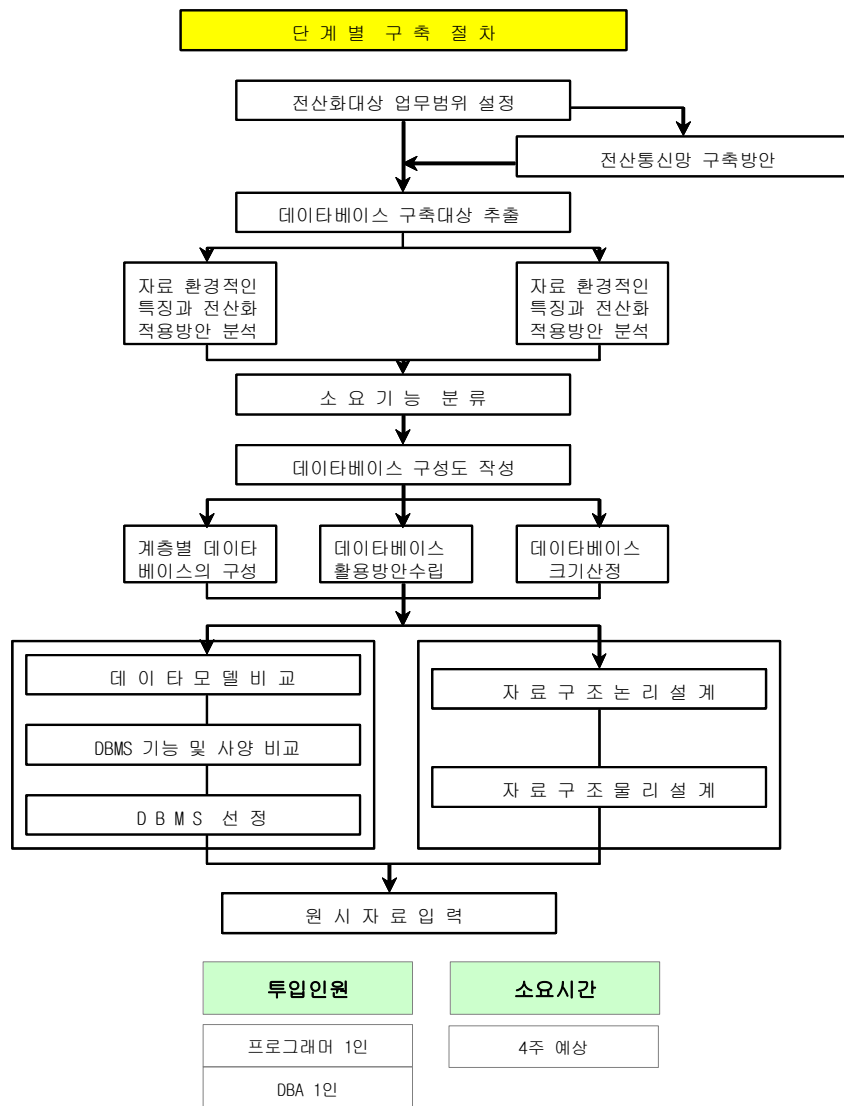
홈페이지 및 DB운영에 필요한 Admin 페이지의 기능 및 인터페이스를 결정한다.

설계	결정	투입인원	소요시간
관리사항 수집	관리사항 결정	프로그래머 1인	1주 예상
인터페이스 설계	인터페이스 결정	디자이너 1인	

<그림 2-2-12> 관리자모드

다)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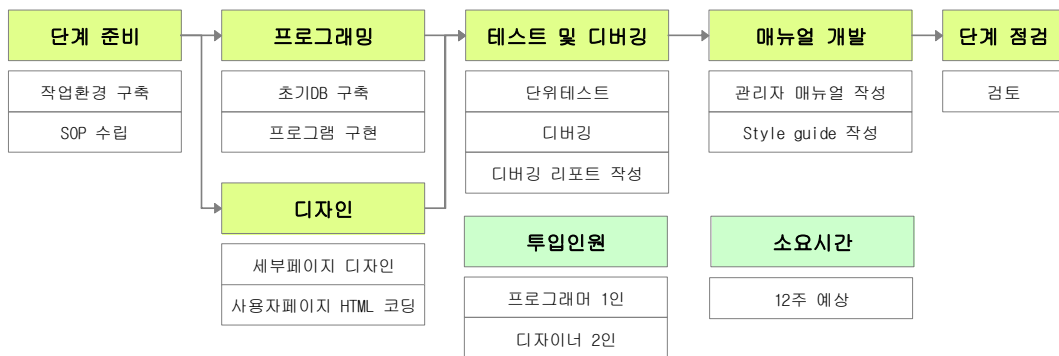
(1) DB 구축



<그림 2-2-13> DB 구축

(2)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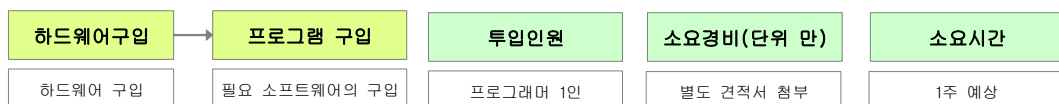
정해진 시간과 예산범위 내에서 기술명세서에 정의된 대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스템은 수용할 품질을 가져야 하고 필요한 모든 운영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 작업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수기준이 충족될 때 완료한다. 기술단계에서 정의한 각 구현영역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절차수립 / 명세화, 코딩, 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 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2-2-14> 시스템 구축

(3) 설치

구축된 프로그램 및 DB을 설치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은 개발기간 중 필요에 의해 구입한다.



<그림 2-2-15> 설치

라)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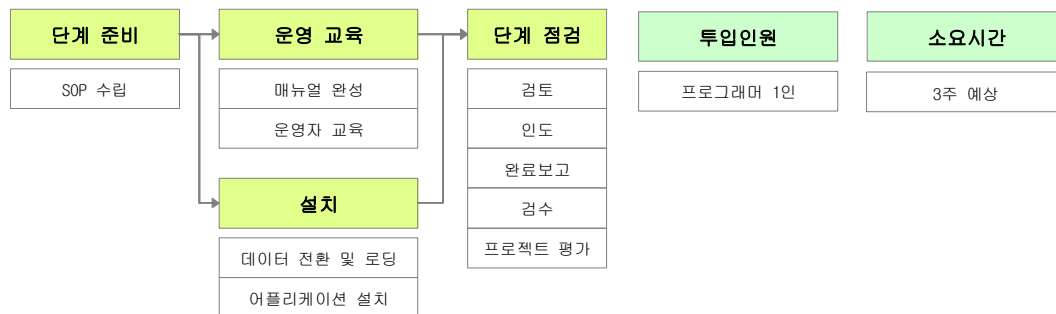
테스트 작업일정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인원에 대한 책임 및 교육 등을 기술하며 테스트할 항목과 그 특성을 추출하여 테스트 작업을 명확하고 원활하게 진행한다.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테스트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이 사용자의 운영환경과 유사하게 갖추어져서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테스트 단계를 수행하는데 테스트팀이 지켜야 할 표준과 테스트 작업관리, 보고, 변경관리 절차를 품질보증서를 기반으로 제시하여 테스트의 일관성 및 일치성을 유지한다.



<그림 2-2-16> 테스트

마) 설치 및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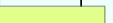









현업의 일상적 업무의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개발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설치 및 인도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한다. 개발된 시스템을 가동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설치 전략, 교육 계획, 설치 절차, 비상대책 등을 상세히 계획한다.



<그림 2-2-17> 설치 및 인도

바) DB 구축 세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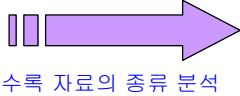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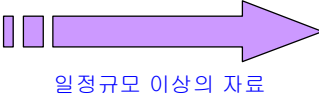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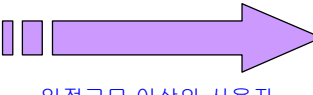
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 분석은 3주 이내에 실시되고, 설계 업무는 6주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개발 업무는 21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4주 이후부터 프로그램의 테스트 및 서버 설치와 프로그램 개선을 중점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3주	6주	9주	12주	15주	18주	21주	24주	26주	이후
프로젝트정의 및 계획수립										
요구사항 및 업무재설계										
기술계획										
데이터응용계획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DB설계										
홈페이지										
검색 인터페이스										
게시판 및 전자우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dmin										
DB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개발										
테스트										
설치 및 인도										
개선방향 및 추가사항 토의										

<그림 2-2-18> DB 구축 세부 일정

2) 연차별 개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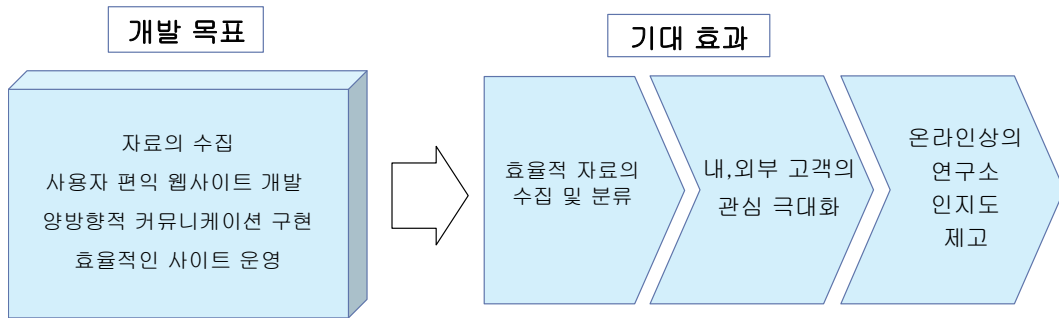
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연차별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다.

단 계	1차년도 DB의 구축	2차년도 DB 및 자료의 E-book화	3차년도 보털사이트의 완성
필요요소	 수록 자료의 종류 분석	 일정규모 이상의 자료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자
전략	DB 수집 인지도증대 파트너쉽	DB확보 혜택제공 가치제공	개인화 유대관계 확립컨텐츠 관리
회원관리	관심유발 -무료회원제 -매력적컨텐츠	가입촉진 -회원컨텐츠 -편집컨텐츠 -인사초청	충성도 구축 -상호작용(회원과 회원) -상호작용(회원과 운영자) -상호작용(맞춤)

<그림 2-2-19> 연차별 개발계획

가) 1차년 개발계획

1차년도 DB의 효율적 구성



<그림 2-2-20> 1차년도 개발계획1 - 개발목표와 기대 효과

자료의 수집	관련 논문 도서 및 뉴스 법령 등의 효과적 수집 및 분류
사용자 편의 사이트 개발	쉬운 동선과 편리한 구성의 홈페이지 제작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구현	단방향 자료제공을 넘어선 참여의 극대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	강력한 관리자 기능의 구현

기본요소

효과적 자료의 입력 툴
정확한 자료의 분류기준
쉬운 검색방법
제공 가능한 콘텐츠의 개발

유의사항

- 좋은 툴을 만들어놓았으니 커뮤니티가 이뤄지겠지
- * 구축 후 운영계획을 반드시 세워놓자
 - 운영인력의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수
 - 커뮤니티가 관심을 가질만한 콘텐츠구성

부가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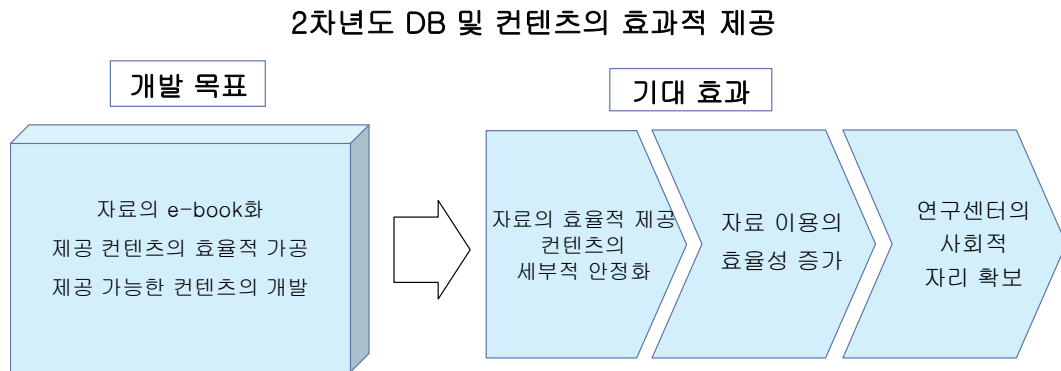
양방향 게시판
시범 모델로의 관리자 커뮤니티

Case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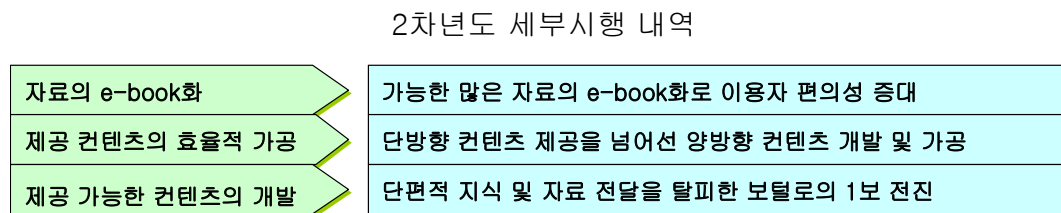
- * 프로모션
- * Profit Share
- * 오프라인과의 연계
- * 지원책 (물질적, 정신적)
- * 법적인 문제 대처방안 (저작권, 초상권, 사칭, 명예훼손 등)

<그림 2-2-21> 1차년도 개발계획2

나) 2차년도 개발계획



<그림 2-2-22> 2차년도 개발계획1 - 개발목표와 기대효과



기본요소

가능한 많은 자료의 e-book화
콘텐츠의 이해도
제공가능 콘텐츠의 개발

유의사항

- 생소한 분야이니 어려운 접근은 삼가 하여야 한다
- 전문적 요소가 많으므로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콘텐츠의 세부 가공이 필요

부가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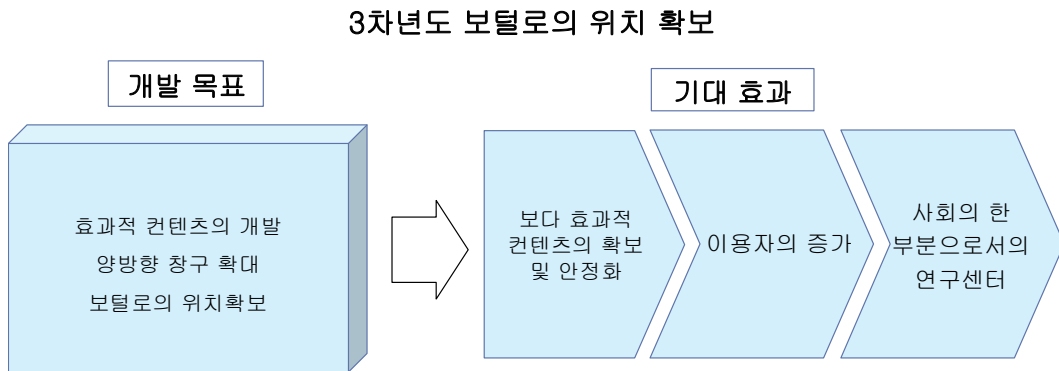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교육적 요소의 콘텐츠

Case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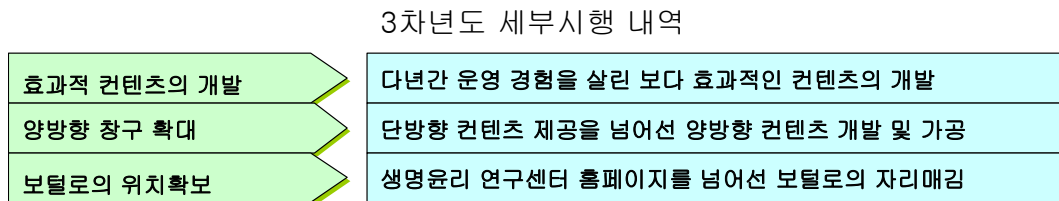
- * 프로모션
- * Profit Share
- * 오프라인과의 연계
- * 지원책 (물질적, 정신적)
- * 법적인 문제 대처방안 (저작권, 초상권, 사칭, 명예훼손 등)

<그림 2-2-23> 2차년도 개발계획2

다) 3차년도 개발계획



<그림 2-2-24> 3차년도 개발계획1 - 개발목표와 기대효과

**기본요소**

일반 참여 이벤트의 개발
생명윤리의 기준점 제시가능
다년간 노하우에 의한 효과적
콘텐츠의 재구성

유의사항

- 자리를 잡았다고 하나 부실한 운영은 금물
- 폐쇄적 느낌이 들 수 있다

부가요소

자료, 교육, 정보 전달로의
창구 확대 및 사회적 위치 확보

Case Study

- * 프로모션
- * Profit Share
- * 오프라인과의 연계
- * 지원책 (물질적, 정신적)
- * 법적인 문제 대처방안 (저작권, 초상권, 사칭, 명예훼손 등)

<그림 2-2-25> 3차년도 개발계획2

다. 2006년 정보센터구축 결과 보고

1) 정보의 분류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나 자료실에서는 정보를 관리하고 이용자 접근의 편의를 돕기 위해 모든 주제분야를 0-9까지 10개의 “類”로 구분하는 십진분류법,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듀이십진분류법(DDC)과 한국십진분류법(KDC)으로 소장 정보를 분류하여 관리한다.

가) 듀이십진분류법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듀이십진분류법은 듀이(Melvil Dewey : 1851~1931)가 1873년에 고안한 분류법으로 도서관에 소장된 각종 정보를 10진법에 따라 나누고 정리하는 분류체계로서 D.D.C라고도 한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모든 자료를 10개의 類로 분류하고 각 類에 100단위의 숫자를 붙인다. 예를 들면 철학은 100대, 사회과학은 300대로 분류하는 식이다. 각 類는 다시 주요한 10단위의 하위집단 즉 綱으로 나뉜다. 이 분류법에 따른 표기는 항상 3자리의 수로 이루어지지만 이론적으로 아주 길어질 수도 있다.

듀이십진분류법은 도서를 숫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분류기호만 보아도 어떤 책이 어떤 분류에 속하며 어디에 꽂혀 있는가를 가늠 할 수 있다. 하나의 類속에서 많은 책을 구별하고 되돌려 놓는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도서관에서는 도서기호를 덧붙여 저자와 장르를 더욱 명확하게 표시한다(도서기호에 대해서는 ‘다)와 라)’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나) 한국십진분류법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한국십진분류법은 한국 도서관 협회의 전문위원회 분류위원회에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왔던 분류표가 구미 중심으로 결점이 많아 한국 실정에 적합하도록 십진분류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1964년에 편찬한 분류표이다. 분류표의 전개는 듀이십진분류법의 주류를 근거로 하였고 세부명칭

은 동양학문의 전개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과학, 순수과학, 응용과학 및 언어, 문학 등의 주제를 같은 곳에 모이도록 한 것이 큰 장점이다.

2) 독자적 정보 분류체계 개발의 필요성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정보분류체계는 본 센터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 그 이유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듀이십진분류법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적용의 부적합성

듀이십진분류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보 분류법이다. 그러나 본 센터에서 이 분류법을 사용할 경우 센터 소장 자료의 대부분이 한 가지의 類에 분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듀이십진분류법의 뒤에 붙는 저자기호만이 유일한 분류의 기준이 되어버릴 확률이 커진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DDC 22판의 경우 ‘생명윤리’ 항목이 신설되어 ‘174.2’라는 분류번호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센터에 소장하게 될 생명윤리에 관한 자료들의 분류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모든 정보들을 듀이십진분류법이 아닌 자체개발한 BPRC 분류표에 의해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생명윤리에 관한 자체분류법 (BPRC 분류표) 사용의 용이성

본 센터에서는 생명윤리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구소를 모색하던 중 자체적으로 생명윤리에 관련된 분류표를 가진 Kennedy Institute of Ethics (이하 케네디 연구소)를 찾아서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케네디 연구소는 미국 워싱턴의 Georgetown University에 위치해 있으며 생명윤리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이 연구소는 생명윤리연구 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약 28,000권이 넘는 단행본과 400종이 넘는 각종 저널 등을 소장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생명윤리분야의 독자적인 분류체계인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을 개발하여 각 정보 자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LC(미국의회도서관 분류법)기호를 청구기호로 부여하고 있다.

이에 본 센터의 연구위원들은 2차례에 걸쳐 직접 케네디 연구소에 방문하여 분류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센터의 사서는 자료검색의 호환성을 위해 이메일을 통해 추가문의의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위원들은 4차례에 걸친 정경희 교수(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의 협의를 통해 센터 자체 분류표인 “이화생명윤리분류표”를 제작하였다.

이 자체분류표는 케네디 연구소의 분류체계, 즉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을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더 세분을 하거나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를 한 것이어서 앞으로 그 활용분야가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을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센터에서는 계속하여 센터 자체 분류표인 “이화생명윤리분류표”를 적용하여 정보를 분류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1> BPRC 분류표

Bioethics Policy Research Center 분류표

영문	국문
1 Ethics	1 윤리학
1.1 Philosophical Ethics	1.1 철학적 윤리
1.2 Religious Ethics	1.2 종교적 윤리
1.3 Applied and Professional Ethics	1.3 응용윤리와 직업적 윤리
2 Bioethics	2 생명윤리학
2.1 General	2.1 일반(개요)
2.2 History of Health Ethics/Bioethics	2.2 의료윤리/생명윤리의 역사
2.3 Education/Programs	2.3 교육/교과과정
3 Law and Policy	3 법과 정책
3.1 General	3.1 일반(개요)
3.2 International Declarations	3.2 국제선언과 국제협약
3.3 International Guideline	3.3 국제기구의 선언과 지침
3.4 Patient-Professional Relationship	3.4 환자-의사관계의 법령과 판례
3.5 ART/Embryo Study/Cloning	3.5 보조생식술/배아연구/인간복제의 법령과 판례
3.6 Artificial Abortion	3.6 인공임신중절의 법령과 판례
3.7 Genetic Test and Screening	3.7 유전검사의 법령과 판례
3.8 Gene Therapy	3.8 유전자치료의 법령과 판례

3.9 Clinical Trials	3.9 임상시험의 법령과 판례
3.10 Human Experiments	3.10 인간 대상연구의 법령과 판례
3.11 Organ and Tissue Transplantation	3.11 장기 및 조직이식의 법령과 판례
3.12 Euthanasia	3.12 안락사의 법령과 판례
3.13 Stem cell Research	3.13 줄기세포연구 관련 법령과 판례
3.14 Animal Experiments	3.14 동물실험 관련 법령과 판례
3.15 Bio Patent	3.15 생물특허 관련 법령과 판례
3.16 Anonymization of Genetic Information	3.16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
3.17 Biobank(Genebank)	3.17 바이오뱅크(유전자은행) 관련법령과 판례
3.18 Others	3.18 기타 법령과 판례
4 Philosophy of Medicine and Health	4 보건의료의 철학
5 Science/Technology and Society	5 과학/기술과 사회
5.1 General	5.1 일반(개요)
5.2 Technology Assessment	5.2 기술평가
5.3 Social Control of Science/Technology	5.3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
6 Codes of/Position Statements of Professional Ethics	6 전문직윤리/윤리강령
7 Sociology of Health Care	7. 의료사회학
7.1 General	7.1 일반(개요)
7.2 Education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7.2 의료전문직 교육
7.3 Professional-Professional Relationship	7.3 의료전문직간 상호관계

7.4 Professional Misconduct	7.4 의료전문직의 부정행위
8 Patient Relationships	8 환자-의사 관계
8.1 General	8.1 일반(개요)
8.2 Truth-Telling	8.2 진위를 말하기
8.3 Informed Consent	8.3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8.3.1 General	8.3.1 일반(개요)
8.3.2 Parental consent/minors	8.3.2 부모 동의/미성년자
8.3.3 Third party consent/incompetents	8.3.3 제3자 동의/무능력자
8.3.4 Right to refuse treatment	8.3.4 치료거부 권리
8.3.5 Bills, laws and cases	8.3.5 법률안, 법령과 판례
8.4 Confidentiality	8.4 비밀보장
8.5 Malpractice	8.5 의료과오
9 Health Care	9 보건의료
9.1 General	9.1 일반(개요)
9.2 Right to Health care	9.2 의료권
9.3 Health Care Economics	9.3 보건의료경제학
9.4 Alloca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9.4 의료자원 배분
9.5 Health Care of Specific Diseases/Groups	9.5 특수질환/환자군의 의료
9.5.1 General	9.5.1 일반(개요)
9.5.2 Aged	9.5.2 연령
9.5.3 Mentally disabled persons	9.5.3 정신지체자
9.5.4 Minorities	9.5.4 소수민족
9.5.5 Women	9.5.5 여성

9.5.6 HIV infection and AIDS	9.5.6 HIV의 감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9.5.7 Newborns and minors	9.5.7 신생아와 미성년자
9.6 Ethics Committees/Consultation	9.6 윤리위원회/심의회
9.7 Drugs and Drugs Industry	9.7 의약품과 의약산업
10 Sexuality/Gender	10 성별/성
11 Contraception	11 피임
11.1 General	11.1 일반(개요)
11.2 Availability of Contraception to Minors	11.2 미성년자의 피임
11.3 Sterilization	11.3 불임시술
11.4 Failure of Contraception/Wrongful birth	11.4 피임 실패/원하지 않은 출산
12 Abortion	12 유산(낙태)
12.1 General	12.1 일반(개요)
12.2 Position Statement	12.2 입장 진술
12.3 Moral and Religious Aspects	12.3 윤리적 종교적 측면
12.4 Legal Aspect	12.4 법률적 측면
12.5 Social Aspect	12.5 사회적 측면
12.5.1 General	12.5.1 일반(개요)
12.5.2 Demographic surveys/attitudes	12.5.2 인구통계학적 조사/견해
12.5.3 Abortion counseling	12.5.3 유산(낙태) 상담
13 Population	13 인구

14 Reproduction/Embryo Study	14 생식/배아연구
14.1 General	14.1 일반(개요)
14.2 Artificial Insemination and Surrogacy	14.2 인공수정과 대리모, 또는 보조생식술
14.3 Sex Predetermination/Selection	14.3 성의 결정/선택
14.4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14.4 시험관수정과 배아이식
14.5 Cloning	14.5 클로닝(복제)
14.6 Cryobanking of Sperm, Ova, or Embryos	14.6 정자와 난자은행, 또는 배아은행
14.7 Embryo Study and Stem Cell	14.7 배아연구와 줄기세포
15 Genetics, Molecular Biology and Microbiology	15 유전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15.1 General	15.1 일반(개요)
15.2 Genetic Counseling/Prenatal Diagnostic	15.2 유전상담/산전진단
15.3 Genetic screening/Testing	15.3 유전자선별검사/유전검사
15.4 Gene Therapy/Transfer	15.4 유전자치료/유전자전달
15.5 Eugenics	15.5 우생학
15.6 Behavioral Genetics	15.6 행동유전학
15.7 Biohazards of Genetic Research	15.7 유전자검사의 생물학적 위해
15.8 Genetic Patents	15.8 유전자특허
15.9 Sociobiology	15.9 사회생물학
15.10 Genome Mapping	15.10 유전자지도
15.11 Genetic and Human Ancestry	15.11 유전자와 인간의 기원
15.12 Gene Bank	15.12 유전자은행
15.13 <u>Protection of Genetic Information and Anonymization</u>	15.13 유전정보의 보호와 익명화

15.14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15.14 유전자변형식품
16 Environmental Quality	16 환경
17 The Neurosciences and Mental Health Therapies	17 신경과학과 정신건강
17.1 General	17.1 일반(개요)
17.2 Psychotherapy	17.2 정신요법
17.3 Behavior Modification	17.3 행동수정
17.4 Psychopharmacology	17.4 정신약리학
17.5 Electrical Stimulation of the brain	17.5 뇌의 전기자극
17.6 Psychosurgery	17.6 정신외과
17.7 Involuntary Civil Commitment	17.7 강제입원
18 Human Experimentation	18 인체실험
18.1 General	18.1 일반(개요)
18.2 Policy Guidelines/Inst. Review Boards	18.2 정책 지침/기관심의위원회
18.3 Informed Consent	18.3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18.4 Behavioral Research	18.4 행동 연구
18.5 Research on Special Population	18.5 특이집단의 연구
18.5.1 General	18.5.1 일반(개요)
18.5.2 Newborn and minor	18.5.2 신생아와 미성년자
18.5.3 Women	18.5.3 여성
18.5.4 Embryos and fetuses	18.5.4 배아 및 태아
18.5.5 Prisoners	18.5.5 수감자
18.5.6 Mentally disabled persons	18.5.7 정신이상자
18.5.7 Elderly and terminally person	18.5.7 노인과 불치병환자

18.5.8 Military and government personnel	18.5.8 군인과 정부요원
18.5.9 Foreign nationals	18.5.9 외국인
18.6 Social Control of Human Experimentation	18.6 인체실험의 사회적 통제
18.7 Clinical Laboratory Tests	18.7 임상시험
19 Artificial and Transplanted Organs/Tissues	19 인공장기/장기 및 조직이식/이종이식
19.1 General	19.1 일반(개요)
19.2 Hearts	19.2 심장
19.3 Kidneys	19.2 신장
19.4 Blood	19.4 혈액
19.5 Donation/Procurement of Organs/Tissues	19.5 장기/조직의 기증/획득
19.6 Allocation of Organs/Tissues	19.6 장기/조직의 배분
19.7 Organ Bank/Tissue Bank	19.7 장기은행 및 이식용 조직은행
19.8 Xenotransplantation	19.8 이종이식
20 Death and Dying	20 죽음과 임종
20.1 General	20.1 일반(개요)
20.2 Definition/Determination of Death	20.2 죽음의 정의/결정
20.3 Attitudes Toward Death	20.3 죽음에 대한 태도
20.4 Care of the Dying Patient	20.4 임종환자의 돌보기
20.5 Prolongation of Life and Euthanasia	20.5 삶의 연장과 안락사
20.5.1 General	20.5.1 일반(개요)
20.5.2 Allowing minors to die	20.5.2 미성년자를 죽게 내버려둠
20.5.3 Living wills/advance directives	20.5.3 생전유언/사전지시
20.6 Capital Punishment	20.6 사형

20.7 Suicide/Assisted Suicide	20.7 자살/조력자살
21 International/Political Dimensions of Biology and Medicine	21 생물학과 의학의 국제적/정치적 중요성
22 Animal Welfare	22 동물복지
22.1 General	22.1 일반(개요)
22.2 Animal Experimentation	22.2 동물실험
22.3 Animal Production	22.3 동물생산
23 Research Ethics	23 연구윤리
	23.1 일반(개요)
	23.2 연구부정행위
	23.3 연구실인권
	23.4 저자권
	23.5 연구결과물 관리
24 기타	24 기타
	24.1 나노기술
	24.2 싸이보그
	24.3 키메라

다) 기본 분류 (BPRC 분류표)에 관한 설명

센터의 모든 자료는 1차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BPRC 분류표에 의해 분류한다.

분류된 자료들은 실제 서가에서의 위치를 결정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을 연결해 주기위한 일련의 문자나 숫자를 조합한 기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도서기호”라고 한다. 한국의 도서관이나 자료실에서는 일반적으로 “리재철 도서기호법”이나 “카터 샌본(열거식저자기호표) 도서기호법”을 사용한다. 정보분류체계의 경우 주제를 표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분류체계를 본 센터에서 개발해야 했으나, 도서기호법의 경우는 주제표현이 아니라 서가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본 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의 두 도서기호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국내단행본의 경우는 “리재철 도서기호법”을 사용하고 해외단행본의 경우는 “카터 샌본 도서기호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라) 리재철 도서기호법의 사용

(1) 리재철 도서기호법 사용의 편리성

센터에서는 자체분류표에 의한 번호부가와 더불어 국내단행본의 경우 “리재철 도서기호법”을 이용해 저자기호를 부여한다. 우리나라에는 박봉석, 고재창, 이춘희, 리재철, 장일세, 정필모가 지은 총 6종의 저자기호표가 있는데 그 중 리재철의 저자기호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채용되고 있다.

리재철 도서기호법은 동양, 서양 저자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여 분류하는 저자기호법이다. 센터에서 이 도서기호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여 각각에 1부터 9까지의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숫자를 배열하는 부여방식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윤리학 분야의 여러 정보들을 2차적으로 분류하는데 가장 간단한 분류방법이다. 같은 세부주제로 분류된 자료들의 경우 저자기호에 의해 구분이 되고 각각의 청구기호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도서기호법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2> 리재철 동서저자기호 제6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ㄱ ㄷ ㅌ 에 붙을경우 는 제외	ㄱ ㄷ 에 붙는모음기호	ㅌ 에 붙는모음기 호
ㄱ 1	ㅌ 2	ㅌ 2	ㅌ 2
ㄴ 18	ㅌ 3	ㅌ 3	ㅌ 3
ㄴ 19	ㅌ 4	ㅌ 4	ㅌ 4
ㄷ 2	ㅌ 5	ㅌ 5	ㅌ 5
ㄷ 28	ㅌ 6	ㅌ 6	ㅌ 6
ㄷ 29	ㅌ 7	ㅌ 7	
ㅌ 3	ㅌ 8		
ㅌ 4			
ㅌ 49			
ㅌ 5			
ㅌ 59			
ㅌ 6			
ㅌ 7			
ㅌ 79			
ㅌ 8			
ㅌ 87			
ㅌ 88			
ㅌ 89			
ㅌ 9			

(2) 리재철 도서기호법의 구체적인 사용

리재철 도서기호법 중 동서저자기호 제6표를 사용한다. 표의 내용은 ‘<표 2-4-2-2> 리재철 동서저자기호 제6표’를 참조한다.

리재철 저자기호법에 대한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기호의 조직

도서기호는 넓은 의미에서 기본기호와 부차적기호로 이루어진다. 기본기호는 표에 의해서 매겨진 기호를 가리키고, 부차적기호는 기본기호만으로는 각 저자간의 개별화가 안 될 경우, 또는 그 개별화에 대비해서 기본기호 다음에 부차적으로 서명, 판차, 권호, 복본의 순차 등에 의하여 좀 더 세분해 주는 일체의 문자 또는 숫자 등의 기호를 말한다.

(나) 기본기호의 구성

A. 기본기호 매김의 대상어 선정

- ① 도서기호의 기본기호는 일반적으로 목록의 기본기입어를 대상어로 삼아 매긴다.
-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저작의 대상이 된 주제(Subject)에 의해서 매긴다.
 - a. 개인전기는 피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긴다.
 - b.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 또는 저작에 관한 비평, 주역, 해설, 해제, 사전, 색인, 서목 등의 저작은 그의 대상이 된 인물이나 단체 즉 비평서, 피색인자나 피서목자(bibliographee) 또는 원저작의 기본기입에 의해서 도서기호를 매긴다.
 - c. 번역서의 경우는 원저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긴다.

B. 기본기호의 조직과 표의 사용법

- ① 기본기호는 문자기호와 숫자기호로 구성된다. 문자기호는 대상어의 첫 자를 그대로 따고, 숫자 기호는 그 대상어의 둘째 자(음절)를 자음(초성)과 모음(중성)으로 나누어 각 표에 의해 기호화한 다음, 이를 합성하여 기본기호로 삼는다. 받침(종성자음)은 기호화하지 않는다.

예) 김도희 김 25 (제6표)

- ② 자음기호가 표상 두자의 숫자로 이루어진 것은 우선 자음만을 기호화하고 모음의 기호화는, 원칙적으로 일단 보류한다.

예) 정필모 정 89 (제6표)

- ③ 대상어의 기입요소(main entry)가 외자(한 음절)로 이루어진 것은 문자기호 다음에 콤마를 친 다음 부차적 요소(Secondary element)의 기호화한 것을 합성한다.

예) 맨, 헨리 맨, 9

- ④ 같은 분류항목 내에서 다른 대상어로 동일한 기본기호를 갖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표에 의해 매긴 기호 다음에 임의의 숫자(일차적으로 5)를 하나 또는 그 이상 덧붙여 이를 전개한다.

예) 김도희(첫 번째 입수 문헌)	김 25 (제6표)
김동리(두 번째 입수 문헌)	김 255 (제6표)

C. 부차적 기호의 구성

① 동일저자의 다른 저작

동일 분류항목 내에서 같은 저자의 다른 저작이 두 개 이상 모여 그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기호 다음에 서명의 첫 자를 부기하여 이를 구별한다. 이때에는 우선 초성자음에 기본모음만 결합한 기본음절을 따온다.

예) 유주현 바람 유 76 바

② 발행 연도

발행 연도는 분류기호 다음에 기재한다.

예) 유 75 바 2006

③ 권차

권차는 숫자로 기본기호의 다음에 기재한다.

예) 한글학회 큰 사전, 제 3권 한 17 크 3

④ 복본

복본은 2부터의 숫자 앞에 “c.”를 매긴 후 숫자로 표시한다.

예) 한 17 크 3 c.2

마) 카터 샌본(열거식저자기호표) 도서기호법의 사용

(1) 카터 샌본 도서기호법 사용의 편리성

센터에는 국내 단행본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카터 샌본표를 이용해 저자기호를 부여한다. 그 이유는 센터 자료의 속성상 동서보다는 양서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해볼 때 양서까지 리재철 저자기호를 부여할 경우 동서와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고 자료의 양이 늘수록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터 샌본표는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저자기호법으로 DDC분류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센터 자체분류표에도 마찬가지로 그 적용이 용이하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향후 양서에 대해서는 자체 분류표와 카터 샌본표를 활용해 자료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3> 카터 샘플표(열거식저자기호표)

A	B	C
111 Aa	111 Ba	111 Ca
112 Aal	112 Bab	112 Cab
113 Aar	113 Babe	113 Cabas
114 Aars	114 Babi	114 Cabe
115 Aas	115 Babr	115 Cabi
116 Aba	116 Bac	116 Cabo
117 Abal	117 Bacci	117 Cabr
118 Abar	118 Bach	118 Cac
119 Abat	119 Bache	119 Cach
121 Abau	121 Bachell	121 Cad
122 Abb	122 Bachet	122 Cade
123 Abbat	123 Bachi	123 Cadet
124 Abbe	124 Bachm	124 Cadi
125 Abbo	125 Baci	125 Cado
126 Abbot	126 Back	126 Cadr
127 Abbot ,	127 Bacm	127 Cae
J.	128 Baco	128 Caes
128 Abbot, M	129 Bacon , M.	129 Caf
129 Abbot,	131 Bacr	131 Cag

(2) 카터 샌본 도서기호법의 구체적인 사용

카터 샌본표에 대한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해당 도서의 기본표목(주로 개인저자명)을 찾는데 그것이 개인저자명인 경우 그 저자姓의 두문자 한자와 그 저자의 姓에 해당하는 숫자기호를 결합하여 기본기호(저자기호)를 구성한다. 이때 기본표목이 서명이나 단체저자명인 경우 첫 중요어(key word, 다만 관사는 무시)를 저자의 姓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부여한다.

예) 저자姓	카터 샌본기호
Bach	B118
Garden	G218
Holmes	H749

(나) 저자姓에 일치하는 문자가 표 중에 없는 경우는 알파벳순으로 바로 위(앞에)에 있는 문자의 숫자기호를 취하여 저자기호로 한다. 이 때 A566은 Andrews, E 에 해당되는 기호이다.

예) 저자姓	카터 샌본기호
Andrews, Helen	A566

(다) 저자기호 매김의 대상이 다르면서 동일저자기호를 가질 때 즉 동성이명이거나 서명이나 단체명의 첫 중요어(key word)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단어의 첫 글자에 따라서 다음의 보조표(미의회도서관 고안)를 사용하거나 또는 중간 숫자인 5를 부가한다.

예) a - b 1, c - e 2, f - h 3, i - l 3, m - o 5, p - r 6, s - t 7, u - w 8,
x - z 9.

*Zero(0)은 O와 혼동하기 쉬워 사용을 피한다.

(라) 저자기호의 숫자는 십진법으로 생각하며 도서의 서가상 배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된다.
(배열기준)

예) H2, H21, H211, H22, H23, H233, H24, H3 등

예를 들면 211은 22보다 수치로서는 많지만 22의 앞에 배열한다.

(마) (서명기호) 동일저자 등 저자기호 매김의 대상이 같을 때 이의 구별을 위하여 서명기호(표제기호, 저작기호 : work marks)로서 서명 중 첫 중요어의 첫 글자 또는 필요시 둘째 글자까지 취하여 소형의 대문자로 저자기호의 다음에 첨가한다. 서명기호도 엄격하게 말하면 부차적 기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무 시에는 기본기호로 간주하여 서명기호까지 미리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예) 저자명	서명	저자기호
Maugham	A writer's Note book	M449w
	of Human Bondage	M449o

(바) 동일저작의 복본이나 다른 판차는 서명기호 다음에 2, 3, 4 등의 숫자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예) Dickens. Dembey and son, 2판 - D544 DO2

Cutter는 서명기호 다음에 복본도 첨가할 것을 말했지만 복본표시는 제 3 선에 이판 표시와 구별하여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 (번역어 기호) 번역을 표시하는 기호로서 번역 언어의 두문자를 취하여 서명기호 다음에 대문자로 표시하며 번역서가 2종 이상 있는 경우는 번역어 기호 다음에 번역자 성명의 두문자 한 글자를 취하여 소문자를 첨가한다.

예) 저자 서명 역어 역자 저자기호
 Goethe Faust Korean 김수용 G554f한ㄱ

(아) (피전자기호) 개인전기는 피전자성(주제명)으로 저자기호를 취하고 전기전자의 성(기본표
 목)의 두문자를 그 다음에 첨가한다.

예) 저자 피저자 카터표
 Chadwick Defoe D362c

(자) 이판에 있어서 판수가 9판을 넘거나 넘을 것 같으면 각 판은 2, 3 또는 4의 숫자대신으로
 출판년을 첨가한다.

예) Paradise lost 1667 .M642P .1667
 1667 재판 .M642P .1667.2
 1732 .M642P .1732

(차) 한 저작에 대한 주석, 비평 등 서지적으로 연관이 있는 저작들을 원저작 바로 다음에 집결시
 키고 싶은 경우는 저작기호 다음에 대문자 Y를 추가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주석자 당의
 두문자를 Y자 다음에 첨가한다. 사전 및 색인은 Z자를 추가한 다음에 다시 편자의 두문자
 를 첨가한다.

3) 포함 정보 내용 소개

가) 형태에 따른 정보 내용

(1) 선언

국제기구, 국제위원회 등에서 제정한 주요 선언과 규약, 헌장, 선서, 계명 등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입력한다. 수정, 개정되는 선언의 경우, 수시로 확인하여 개정분을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주요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다.

선언자료 입력

다국어/기호입력 한자 입력

분류 코드검색

국가

언어

선언년도 년

발행처 (h)m

발행주체 (h)m

제목 (h)m

검색어 (h)m

내용

편집 | 미리보기 | HTML 소스편집 |

글꼴 12 **B** U *I*

청구기호

일반주기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허용

<그림 2-3-1> 선언 입력 화면

- (가) 분류 : BPRC 분류표에 따라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로 분류한다.
- (나) 국가 : 선언문을 제정한 기관의 소속 국가를 입력하고, 국제기구가 제정주체인 경우 기타로 분류한다.
- (다) 언어 : 선언문의 언어에 따라 언어구분을 한다. 번역본일 경우 번역된 나라의 언어를 입력한다.
- (라) 선언년도: 선언문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년도를 입력한다.
- (마) 발행주체 : 선언을 제정, 발표한 단체를 입력한다.
- (바) 제목 : 선언의 공식 명칭을 입력한다.
- (사) 검색어 : 선언의 주제나 주요키워드를 입력하여 이용자의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 (아) 내용 : 선언의 원문이나 번역본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목차를 입력한다.
- (자) 일반주기 : 선언이 채택되거나 발표된 회의의 회차나 장소 등을 입력한다.
- (차) 첨부파일 : 각 선언 및 문헌이 PDF 등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을 때 첨부파일로 그 원문을 제공한다.

(2) 국내외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각국의 생명윤리에 관련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BPRC 분류표에 따라 입력한다. 헌장(charter), 지침(directive), 규칙(regulation), 이사회결정(council decision), 협약(convention)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의견 (opinion), 권고(recommendation), 결의(resolution) 등은 지침에 분류한다.

주요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3-2> 법령 입력 화면

<그림 2-3-2> 법령 입력 화면

- (가) 분류 : BPRC 분류표에 따라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로 분류한다.
- (나) 국가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한 각 국가를 입력한다.
- (다) 언어 : 언어에 따라 언어구분을 한다.
- (라) 제정년도 : 각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년도를 입력한다.
- (마) 제목 : 각 법령의 공식적인 명칭을 입력한다.
- (바) 원본과 번역본의 구분 : 원본과 번역본은 언어로 구분한다.
- (사) 페이지수 : 웹 문서 형태의 경우 생략한다.
- (아) 일반주기 :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입력한다.
- (자) 검색어 : 법령의 주제나 주요키워드를 입력하여 이용자의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 (차) 내용 : 법령의 원문을 입력한다.

(3) 관련 연구 지침 및 행동 지침

각 국의 정부부서별, 학회별, 협회별 연구 지침과 윤리강령들을 수집하여 입력한다.
주요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가) 분류 : BPRC 분류표에 따라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로 분류한다.
- (나) 국가 : 각 지침이 제정된 국가를 입력한다. 국제기구의 경우 생략한다.
- (다) 언어 : 각 지침의 언어에 따라 입력한다.
- (라) 발행년 : 지침이 제정된 년도를 입력한다.
- (마) 발행처 : 각 지침을 제정한 정부부서, 학회, 협회 등을 입력한다.
- (바) 제목 : 각 지침의 공식적인 명칭을 입력한다.
- (사) 검색어 : 지침의 주제나 주요키워드를 입력하여 이용자의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 (아) 내용 : 지침의 원문이나 대등서명 등을 입력한다.

〈그림 2-3-3〉 지침 입력 화면

<그림 2-3-3> 지침 입력 화면

(4) 언론보도자료

각종 언론매체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한다. 보도 자료에는 뉴스기사, 일반잡지기사 등이 포함된다.

주요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가) 분류 : BPRC 분류표에 따라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로 분류한다.
- (나) 국가 : 각 자료가 보도된 언론기관의 소속국가를 입력한다.
- (다) 언어 : 각 언론보도자료의 언어를 입력한다. 번역기사의 경우 번역어를 입력한다.
- (라) 발행처 : 보도 기관을 입력한다.
- (마) 제목 : 각 언론보도자료의 제목을 입력한다.
- (바) 검색어 : 언론보도자료의 주제나 주요키워드를 입력하여 이용자의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 (사) 내용 : 언론보도자료를 리뷰한 내용을 입력한다. 뉴스기사의 경우 저작권 문제에 걸릴 수 있으므로 출처를 밝히고 링크를 걸어둔다.
- (아) 발행년 : 자료가 보도된 년도를 입력한다.

(5) 각종 관련 논문, 학위논문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에서 산출된 논문을 포함하여 생명윤리 전반에 관련된 국내외 논문을 수집하여 입력한다.

주요 입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분류 : BPRC 분류표에 따라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로 분류한다.

(나) 청구기호 : 청구기호는 BPRC 분류표로 분류하고 그 뒤에 동서인 경우 리재철 동서저자기호 제 6표를, 양서인 경우 카터 샌본표에 의한 저자기호와 발행 연도를 부여한다.

(다) 논문명 : 논문의 부제가 있는 경우 ‘:’를 이용하여 제목에 함께 입력한다.

(라) 저자명 :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 ‘;’를 사용해 입력한다.

(마) 본문언어 : 논문의 언어를 입력한다. 번역본일 경우 번역된 언어를 입력한다.

(바) 게재지명 : 논문이 실린 학술지나 학회지 등의 명칭을 입력한다.

(사) 게재지 권호 : 학술지나 학회지 등의 권과 호를 입력한다.

(아) 내용 : 논문의 목차나 초록, 요약 등을 입력한다.

(자) 검색어 : 논문의 주제어나 주요키워드를 입력하여 이용자의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각종논문 입력	
다국어/기호입력 한자 입력	
분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코드검색
청구기호	<input type="text"/>
대학원명	<input type="text"/> 다국어 한자가능 전공 <input type="text"/> 다국어 한자가능
학위	<input type="radio"/> 학사 <input type="radio"/> 석사 <input type="radio"/> 박사 기타 <input type="text"/>
학위년도	<input type="text"/> 년도 <input type="button" value="전기"/> (예 : 2006)
지도교수	<input type="text"/> (지도교수가 여러명인 경우 ","를 사용해 한줄에 연속하여 입력하세요.)
논문공개 동의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공개 <input type="radio"/> 비공개
논문명(주)	<input type="text"/> 다국어 한자가능>
논문명(부)	<input type="text"/> 다국어 한자가능
저자명(주)	<input type="text"/> (저자가 여러명인 경우 ","를 사용해 한줄에 연속하여 입력하세요.)
저자명(부)	<input type="text"/> (저자가 여러명인 경우 ","를 사용해 한줄에 연속하여 입력하세요.)
발행년	<input type="text"/> 본문언어 <input type="button" value="국어"/>
발행처	<input type="text"/> 다국어 한자가능
게재지명	<input type="text"/> 다국어 한자가능
게재지 권호	<input type="text"/>
페이지수	p. <input type="text"/>
시작페이지	p. <input type="text"/>
끝페이지	p. <input type="text"/>
내용	<div><input type="text"/></div>
검색어	<input type="text"/>
첨부파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von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그림 2-3-5> 논문 입력 화면

(6) 연구보고서

생명윤리정책에 관련된 각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입력한다.

주요입력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분류 : BPRC 분류표에 따라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로 분류한다.

(나) 청구기호 : 청구기호는 BPRC 분류표로 분류하고 그 뒤에 동서인 경우 리재철 동서저자기호 제 6표를, 양서인 경우 카터 샌본표에 의한 저자기호와 발행 연도를 부여한다.

(다) 언어 : 연구보고서의 언어를 입력한다. 번역본일 경우 번역된 언어를 입력한다.

(라) 발행년 : 연구보고서가 발행된 년도를 입력한다.

(마) 발행처 : 연구보고서를 발행한 기관, 학회 등의 명칭을 입력한다.

(바) 발표장 : 공식적인 발표회가 아닌 경우 입력하지 않는다.

(사) 제목 : 연구보고서의 부제는 ‘:’로 표시하여 함께 입력한다.

(아) 검색어 : 연구보고서의 주제어나 주요키워드를 입력하여 이용자의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자) 내용 : 연구보고서의 목차나 초록, 요약문 등을 입력한다.

(차) 페이지 수 : 연구보고서의 페이지수를 입력한다.

(카) 삽도표시 : 삽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표시한다.

다국어/기호입력 한자 입력

내용

글꼴 12
B
U
I

페이지수

• 세로길이

<그림 2-3-6> 연구보고서 입력 화면

(7) 각종 양식

생명윤리와 관련된 각종 동의서나 제출 서류의 양식을 입력한다.

(가) 분류 : BPRC 분류표에 따라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로 분류한다.

(나) 청구기호 : 청구기호는 BPRC 분류표로 분류하고 그 뒤에 동서 인 경우 “리재철 동서저자 기호 제6표”를, 양서인 경우 카터 샌본표에 의한 저자기호와 발행 연도를 부여한다.

(다) 국가 : 각 양식을 만든 기관의 소속국가를 입력한다.

(라) 언어 : 각 양식의 언어를 입력한다.

(마) 발행처 : 양식을 만든 기관의 명칭을 입력한다.

(바) 제목 : 양식의 정식 명칭을 입력한다.

(사) 검색어: 각 양식의 주제어나 주요키워드를 입력하여 이용자의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아) 발행년 : 양식이 만들어진 년도를 입력한다.

각종양식 입력

다국어/기호입력 한자 입력

분류 코드검색

청구기호

국가

언어

발행처

제목

검색어

내용

편집 미리보기 HTML 소스편집

글꼴 **B** U *I*

발행년

첨부파일1

허용

<그림 2-3-7> 각종 양식 입력 화면

(8) 단행본 및 저서

생명윤리에 관한 각종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등을 수집하여 입력한다.

주요 입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분류 : BPRC 분류표에 따라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로 분류한다.

(나) 도서종류 : 각 단행본의 성격에 따라 해외학술지, 해외단행본, 해외연간물, 국내단행본, 국내학술지, 국내연간물, 센터간행물로 구분한다. 연간물과 학술지는 ISSN의무에 따라 구분하여 ISSN이 있는 경우 학술지로, ISSN이 없는 경우 연간물로 등록한다.

(다) 도서명 : 원제와 부제, 대등서명 등 다양한 서명 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사항을 각각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제의 경우 ‘:’를 사용하여 입력한다. 학술대회자료나 워크숍자료 집 등은 ‘[]’를 사용해 주체기관과 행사내용을 간단히 표시하여 준다. 학술지와 연속간행물의 경우 ‘.’를 이용해 서명과 각 호, 권, 년도를 제목에 다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총서사항 : 단행본의 총서사항이 있을 경우 ‘;’를 사용하여 입력한다.

(마) 저자명 : 원저자와 편저자, 공저자 등 다양한 저자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사항을 각각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청구기호 : 청구기호는 BPRC 분류표로 분류하고 그 뒤에 동서인 경우 리제철 동서저자기호 제 6표를, 양서인 경우 카터 샌본표에 의한 저자기호와 발행년도를 부여한다.

(사) 출판사 : 단행본이 최초로 출간된 출판사명을 입력한다.

(아) 일반주기 : 단행본에 대한 참고사항을 입력한다.

(자) 관련링크 : 단행본의 주제와 관련 있는 링크를 입력한다.

(차) 복본 : 복본이 있을 경우 개수를 세서 입력한다.

(카) 내용 : 단행본의 목차나 초록, 요약 등을 입력한다.

(마) 딸림자료 : 딸림자료가 있을 경우 딸림자료표시를 하고 따로 등록한다.

(바) 검색어 : 각 양식의 주제어나 주요키워드를 입력하여 이용자의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사) 소장정보 : 생명윤리법연구소자료와 생명윤리정책센터의 자료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단행본 및 저널 자료 입력	
(현재 206번째 자료 입력)	
다국어/기호입력 한자 입력	
분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코드검색
도서종류	국내학술지 ▼
도서명	<input type="text"/> (h)(m)
원서명	<input type="text"/> (h)(m)
부제	<input type="text"/> (h)(m)
대등서명	<input type="text"/> (h)(m)
총서사항	<input type="text"/> (h)(m)
저자명	<input type="text"/> (h)(m)
원저자명	<input type="text"/> (h)(m)
공저	<input type="text"/> (h)(m)
편저	<input type="text"/> (h)(m)
역자	<input type="text"/> (h)(m)
청구기호	<input type="text"/> 청구기호입력 카터센본입력
출판사	<input type="text"/> (h)(m)
ISBN	<input type="text"/>
ISSN	<input type="text"/>
보관위치	<input type="text"/>
발행년	<input type="text"/>
가격	<input type="text"/> ₩ ▼
발행지	ulk:서울 ▼
페이지수	p. <input type="text"/>
세로길이	<input type="text"/> Cm ▼
삽도표시	없음 ▼
판차	직접입력 ▼ <input type="text"/>
일반주기	<input type="text"/>
별치기호	<input type="text"/>
달림자료	직접입력 ▼ <input type="text"/>
검색어	<input type="text"/>
관련링크	http:// <input type="text"/>
복본	<input type="text"/>

권책
시리즈수

내용

편집 | 미리보기 | HTML 소스편집

글꼴 12 **B** U *I* T T T T T T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허용

소장기관

개수

<그림 2-3-8> 단행본 입력 화면

(9) 기타자료

위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모든 기타자료(사진, 그림, 동영상 및 음성자료 등)를 수집하여 입력한다. 주요 입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titled '기타자료' (Other Materials). At the top right, there are tabs for '다국어/기호입력' (Multilingual/Character Input) and '한자입력' (Hanja Input). The form fields are as follows:

- 분류** (Classification): A series of small input boxes followed by a '코드검색' (Code Search) button.
- 국가** (Country): A text input field.
- 언어** (Language): A dropdown menu with '국어' (Korean) selected.
- 년도** (Year): A text input field followed by the character '년' (Year).
- 발행처** (Issuing Agency): A text input field.
- 종류** (Type): A text input field.
- 제목** (Title): A text input field.
- 검색어** (Search Term): A text input field.
- 내용** (Content): A large text area with a vertical scrollbar.
- 첨부파일** (Attachment): A text input field with a '찾아보기...' (Find...) button.
- VOD**: A text input field with a '찾아보기...' (Find...) button.
- E-Book**: A text input field with a '찾아보기...' (Find...) button.
- 허용** (Rating): A dropdown menu with '1등급' (1st Grade) selected.

At the bottom of the form, there are two buttons: '입력' (Input) and '취소' (Cancel).

<그림 2-3-9> 기타자료 입력 화면

- (가) 분류 : BPRC 분류표에 따라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로 분류한다.
- (나) 국가 : 기타자료가 발행된 국가명을 입력한다.
- (다) 언어 : 기타자료의 언어를 입력한다.
- (라) 년도 : 기타자료가 발행된 년도를 입력한다.
- (마) 발행처 : 기타자료를 발행한 기관명을 입력한다.
- (바) 종류 : 기타자료의 형태를 입력한다.
- (사) 제목 : 자료의 공식적인 명칭을 입력한다.
- (아) 검색어 : 각 양식의 주제어나 주요키워드를 입력하여 이용자의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 (자) 내용 : 기타자료의 목차나 내용, 요약 등을 입력한다.

4) 정보 search 방법

가) 기본 검색

<그림 2-3-10> 기본 검색 화면

(1) 검색버튼

검색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첫 페이지 (<http://bprc.re.kr>)에 있는 검색창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이다.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한 후 엔터를 치거나 마우스로 검색창 옆에 있는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통합검색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2-3-11> 검색어 입력 화면

(2) 검색어의 확장

다양한 조합방법을 사용해 검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조합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 1) “줄기세포”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줄기” 라는 하나의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한다.

예 2) “줄기,세포,줄기세포”

조금 더 확장시킨 의미의 검색방법으로 줄기,세포,줄기세포의 3가지의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한다. 다양한 검색어의 검색결과를 원하는 경우에 합당한 방법이다.

예 3) “줄기 세포”

위의 두 경우보다 손쉬운 확장 검색어 입력방법이다. “줄기”, “세포”, “줄기 세포”의 3가지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한다. 문장을 포함한 폭넓은 자료의 검색 시 용이하다.

(3) 검색 결과 페이지

각 파트별로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가 5개씩 나온다.

▶ 국제선언

제목	국가/언어	선언년도	자료유형
지울것	대한민국/국어	2006	
한국생명윤리학회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윤리 특별위원회 성명서	대한민국/국어	2004	
FIAMC 성명서	기타/국어	2004	

국제선언의 [줄기세포](#) 검색결과 3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 국내외 법령

제목	국가/언어	제정년도	자료유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대한민국/국어	2005	
Human Cloning Ban and Stem Cel...	미국/영어	2005	
Stem Cell Replenishment Act(20...	미국/영어	2005	
The stem cell research enhance...	미국/영어	2005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관한윤리지침	중국/국어	2004	

국내외법령의 [줄기세포](#) 검색결과 11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결과 더보기](#)

▶ 연구 및 행동지침

제목	국가/언어	발행처	발행년도	자료유형
Stem cell statement	미국/영어	Amer...	2007	
세포융연구사업단 줄기세포 연구윤리지침(안)	대한민국/국어	세포융용...	2006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대한민국/국어	과학기술...	2006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지침서	미국/국어	Natl...	2005	
Guidelines for Human Embry...	미국/영어	대한 미...	2005	

연구 및 행동지침의 [줄기세포](#) 검색결과 22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결과 더보기](#)

▶ 언론보도자료

제목	국가/언어	발행처	발행년도	자료유형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제정·선포-'사회적책임'...	대한민국/국어	일간보사	2007	
'산모양수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 대신 못한다	미국/국어	뉴시스	200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대한민국/국어	BRIC Bio...	2007	
[과기부보도자료]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해 생...	대한민국/국어	과학기술부보 도자...	2007	
[사설] 머정정한 절충안이 되고 만 체세포 연구...	대한민국/국어	경향신문	2007	

언론보도자료의 [줄기세포](#) 검색결과 137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결과 더보기](#)

<그림 2-3-12> 검색 결과 페이지 화면

(4) 결과 더 보기

검색결과물이 5개 이상의 경우 결과 더 보기가 나타나며 이를 클릭하면 각 분야의 더 많은 검색결과를 볼 수 있다.

SEARCH | 전체 검색

이동 탭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기타 자료

국대외 법령 현재 검색어 => 줄기세포

번호	제목	국가/언어	제정년도	자료유형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대한민국/국어	2005	
2	Human Cloning Ban and Stem Cel...	미국/영어	2005	
3	Stem Cell Replenishment Act(20...	미국/영어	2005	
4	The stem cell research enhance...	미국/영어	2005	
5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관한윤리지침	중국/국어	2004	
6	줄기세포연구지원법	스위스/영어	2004	
7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	독일/국어	2002	
8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	독일/독일어	2002	
9	인간복제기술등의규제에대한법률	일본/국어	2000	
10	Prohibition on Federal Funding...	미국/영어	0000	
11	Use of Federal Funds for Resea...	미국/영어	0000	

[이전 10개] 1 [다음 10개]

<그림 2-3-13> 결과 더 보기 화면

(5) 이동 탭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기타 자료
▶ 연구 및 행동지침								현재 검색어 => 줄기세포
번호	제목			국가/언어	발행처	발행년	자료유형	
1	Stem cell statement			미국/영어	Americ..	2007		
2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줄기세포 연구윤리지침(안)			대한민국/국어	세포응용연구..	2006		
3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대한민국/국어	과학기술부 ..	2006		
4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지침서			미국/국어	Nation..	2005		
5	Guidelines for Human Emb..			미국/영어	대한 미국국..	2005		
6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 줄기세포 연구지..			대한민국/국어	세포응용연구..	2003		
7	인간전분화능줄기세포(Human Pluripo..			미국/국어	NIH (국..	2002		
8	인간전분화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국..			미국/국어	국립보건원	2002		
9	Ethical aspects of paten..			유럽연합/영어	The Eu..	2002		
10	The important of human e..			독일/영어		2002		
11	인간배아줄기세포 수립 및 사용에 대한 지침			일본/국어		2001		
12	인간배아줄기세포 수립 및 사용에 대한 지침			일본/국어		2001		
13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치료목적의 핵치환복제기..			유럽연합/영어	유럽과학재단..	2001		
14	일본 인간배아줄기세포 수립 및 사용에 대한 ..			일본/국어	일본	2001		
15	특정배의 취급에 관한 지침			일본/국어		2001		
16	The Swedish Research Cou..			기타/영어	The Sw..	2001		
17	Ethical aspects of human..			유럽연합/영어	The Eu..	2000		
18	Guidelines for research ..			미국/영어	NIH (국..	2000		
19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중심으로한 인간배아연구에 ..			일본/일본어				
20	인간배태줄기세포연구 윤리지도원칙			중국/국어				

[이전10개] 1 [2] [다음10개]

<그림 2-3-14> 이동탭 화면

검색어에 대한 다른 분야의 자료를 더 보기를 원할 경우 이동탭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검색어에 대한 다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위의 결과는 “줄기세포에 대한”연구지침으로 이동한 경우이다.

(6) 다른 검색어로 재검색

SEARCH | 전체 검색

이동 탭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기타 자료

국대외 법령 현재 검색어 => 줄기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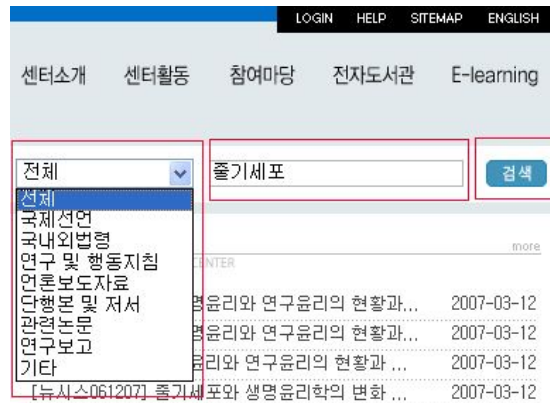
번호	제목	국가/언어	제정년도	자료유형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대한민국/국어	2005	
2	Human Cloning Ban and Stem Cel...	미국/영어	2005	
3	Stem Cell Replenishment Act(20...	미국/영어	2005	
4	The stem cell research enhance...	미국/영어	2005	
5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관한윤리지침	중국/국어	2004	
6	줄기세포연구지원법	스위스/영어	2004	
7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	독일/국어	2002	
8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	독일/독일어	2002	
9	인간복제기술등의규제에대한법률	일본/국어	2000	
10	Prohibition on Federal Funding...	미국/영어	0000	
11	Use of Federal Funds for Resea...	미국/영어	0000	

[이전 10개] 1 [다음 10개]

<그림 2-3-15> 재검색 화면

다른 검색어로의 재검색을 원하실 경우 재검색을 이용하시어 기본 검색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 하시면 다른 검색어로의 검색이 가능 합니다.

(8) 콤보박스



<그림 2-3-17> 콤보박스 화면

통합검색결과 대신 각각의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만 검색하려면 검색창 앞에 있는 검색 콤보박스에서 원하는 검색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콤보박스에서 ‘국제선언’을 선택한 후 검색창에 ‘줄기세포’를 입력하면 바로 상세검색에서 ‘줄기세포’를 검색한 결과가 나온다.



[이전10개] 1 [다음10개]

<그림 2-3-18> 콤보 박스 내 검색 화면

(9) 다른 카테고리의 검색결과도 이동탭을 이용하여 결과를 열람 할 수 있다.

SEARCH | 전체 [v] [검색]

이동 탭

선언 및 문헌 | 법령 | 연구 지침 | 언론보도자료 | 각종 관련 논문 | 연구보고서 | 각종 양식 | 단행본 및 저서 | 기타 자료

국대외 법령 현재 검색대 => 줄기세포

번호	제목	국가/언어	제정년도	자료유형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대한민국/국어	2005	법령
2	Human Cloning Ban and Stem Cel...	미국/영어	2005	법령
3	Stem Cell Replenishment Act(20...	미국/영어	2005	법령
4	The stem cell research enhance...	미국/영어	2005	법령
5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관한윤리지침	중국/국어	2004	연구지침
6	줄기세포연구지원법	스위스/영어	2004	법령
7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	독일/국어	2002	법령
8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	독일/독일어	2002	법령
9	인간복제기술등의규제에대한법률	일본/국어	2000	법령
10	Prohibition on Federal Funding...	미국/영어	0000	법령
11	Use of Federal Funds for Resea...	미국/영어	0000	법령

[이전 10개] 1 [다음 10개]

<그림 2-3-19> 이동탭을 이용한 검색 화면

(10) 다른 위치에서의 기본검색

LOGIN HELP SITEMAP ENGLISH

센터소개 센터활동 참여마당 전자도서관 E-learning

기본검색 | 확장검색 | 분야별검색

<그림 2-3-20> 홈페이지에서의 기본검색 화면

어느 위치에서나 상단 메뉴의 “전자도서관”->“기본검색”를 이용하면 기본 검색 화면으로 이동해서 기본적인 자료검색을 할 수 있다.

SEARCH | 전체

기본검색은 각 카테고리내에서 해당단어가 들어있는 제목, 내용을 검색합니다.
 전체검색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와 접속자에 따라 검색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 단어는 띄어쓰기와 쉼표로 검색범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예.

논문

생명공학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 편리.

논문

생명공학 윤리 도덕

자료가 많은 경우 편리.

확장검색 바로가기
분야별 확장 검색으로 이동 탭

국제선언
국내외법령
연구 및 행동지침
언론보도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 및 저서
기타

<그림 2-3-21> 전자도서관 기본검색 화면

나) 확장검색

자료에 대한 상세 내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경우 이용하는 검색방법이다.

<그림 2-3-22> 확장검색 화면

각 검색 옵션 연결은 AND검색을 이용하며 키워드는 OR의 조합을 이용한다.

(1) 이동탭

검색을 원하는 자료를 결정하는 곳이다. 원하는 자료의 종류를 클릭함으로써 각 분야의 확장검색 페이지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BPRC 분류표에 의해 분류된 자료의 검색 폭을 결정할 때 이용한다.

(3) 쪽 당 출력 수

검색결과물의 페이지 당 출력 건수를 결정한다. DEFAULT는 10개로 정한다.

(4) 타이틀

제목에 의한 검색을 할 경우 이용한다. 옵션으로 전방일치 후방일치 완전일치를 선택 할 수 있다.

예 1) 완전일치



<그림 2-3-23> 완전일치 검색 화면

제목이 줄기세포일 경우 검색방법이다.

예 2) 후방일치



<그림 2-3-24> 후방일치 검색 화면

뒤의 문장에 줄기세포가 있는 경우 검색방법이다.

예 3) 전방일치



<그림 2-3-25> 전방일치 검색 화면

맨 앞의 문장이 줄기세포일 경우 검색방법이다.

(5) 발행처

발행기관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키워드

센터에서는 자료 등록 시 자료와 관련된 키워드를 미리 입력하여 검색의 범위 및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 부여한 자료에 대한 키워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키워드검색을 한다. 상단의 옵션과는 OR로 검색을 한다. 이 경우, 더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온다.

(7) 년도

각 자료의 발행년도를 알고 있을 경우 이용한다. 옵션으로 년도의 사이, 이전, 이후 의 구분이 가능하다.

(8) 국가

발행한 국가를 선택하여 검색 자료의 정확성을 높인다.

(9) 언어

검색시 언어를 지정하면 번역 자료와 원문 자료를 선택하여 볼 수 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발간한 자료라도 본문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를 원할 경우,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지정한 후 언어를 영어로 선택하면 된다.

(10) 검색결과

▶ 국제선언

번호	제목	국가/언어	선언년도	자료유형
1	생명과학 연구자 윤리헌장	대한민국/국어	2005	

[이전 10개] 1 [다음 10개]

<그림 2-3-26> 검색결과 화면

예) 타이틀에 ‘생명과학’과 전방일치 국제선언을 검색한 결과이다.

(11) 저자

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의 경우 저자를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한 옵션이 있다.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기타 자료

대분류

코드 1단계 선택 ▼

중분류

코드 2단계 선택 ▼

소분류

코드 3단계 선택 ▼

쪽당출력수

10 ▼

타이틀

완전일치 ▼

저자

키워드

년도

년 부터 년 까지

년 이전 년 이후

국가

ulk:서울 ▼

검색

<그림 2-3-27> 저자 검색 화면

(12) 상세보기

검색결과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결과물의 상세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국제선언

분류	14.7.0 생식/배아연구
국가	기타
언어	국어
선언년도	2004 년
발행주체	세계가톨릭의사협회 (FIAMC)
제목	FIAMC 성명서

내용

[내용]

FIAMC 성명서

2004. 2. 19.

인간배아복제 연구 관련, 세계가톨릭의사협회(FIAMC) 논평

Chair, Luigi, MD

세계가톨릭의사협회 회장

(출처 : www.koreabioethics.net)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목록으로

<그림 2-3-28> 상세보기 화면

(가) 검색의 예

1) 타이틀을 ‘생명과학’으로 한 후 전방일치 검색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기타 자료
<div> <div> <div>대분류</div> <div>코드 1단계 선택 ▼</div> </div> <div> <div>중분류</div> <div>코드 2단계 선택 ▼</div> </div> <div> <div>소분류</div> <div>코드 3단계 선택 ▼</div> </div> <div> <div>쪽당출력수</div> <div>10 ▼</div> </div> </div> <div> <div>타이틀</div> <div>생명과학</div> <div>전방일치 ▼</div> </div> <div> <div>발행처</div> <div></div> </div> <div> <div>키워드</div> <div></div> </div> <div> <div>년 도</div> <div></div> <div>년 부터</div> <div></div> <div>년 까지</div> </div> <div> <div></div> <div>년 이전</div> <div></div> <div>년 이후</div> </div> <div> <div>국 가</div> <div>대한민국 ▼</div> </div> <div> <div>언 어</div> <div>국어 ▼</div> </div> <div> <div>검색</div> </div>								

<그림 2-3-29> 타이틀 전방일치 검색

2) 발행처를 ‘한국생명윤리학회’로 한 경우

<그림 2-3-30> 발행처 검색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기타 자료
<div> <div> <div>대분류</div> <div>코드 1단계 선택 ▼</div> </div> <div> <div>중분류</div> <div>코드 2단계 선택 ▼</div> </div> <div> <div>소분류</div> <div>코드 3단계 선택 ▼</div> </div> <div> <div>쪽당출력수</div> <div>10 ▼</div> </div> </div> <div> <div>타이틀</div> <div>완전일치 ▼</div> </div> <div> <div>발행처</div> <div>한국생명윤리학회</div> </div> <div> <div>키워드</div> <div></div> </div> <div> <div>년 도</div> <div>년 부터</div> <div>년 까지</div> <div>년 이전</div> <div>년 이후</div> </div> <div> <div>국 가</div> <div>대한민국 ▼</div> </div> <div> <div>언 어</div> <div>국어 ▼</div> </div> <div> <div>검색</div> </div>								

3) 타이틀을 ‘생명과학’으로 지정한 후 전방일치 시키고 발행처를 ‘한국생명윤리학회’로 한 경우

The screenshot shows a search interface with a top navigation bar containing tabs: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and '기타 자료'. The main search area is divided into two columns. The left column contains dropdown menus for '대분류' (Major Category) with '코드 1단계 선택', '중분류' (Sub-category) with '코드 2단계 선택', '소분류' (Sub-sub-category) with '코드 3단계 선택', and '쪽당출력수' (Items per page) set to '10'. The right column contains search criteria: '타이틀' (Title) set to '생명과학', '전방일치' (Exact Match) selected from a dropdown, '발행처' (Publisher) set to '한국생명윤리학회', '키워드' (Keywords) as an empty field, '년도' (Year) with fields for '년부터' (From) and '년까지' (To), '년이전' (Previous year) and '년이후' (After year), '국가' (Country) set to '대한민국' (South Korea), and '언어' (Language) set to '국어' (Korean). A '검색' (Search) button is located at the bottom center.

<그림 2-3-31> 타이틀과 발행처를 이용한 검색

4) 타이틀을 ‘생명과학’으로 한 후 전방일치 시키고 발행처를 ‘한국생명윤리학회’로 한 후 검색어를 ‘생명’으로 한 경우

타이틀과 발행처는 ‘AND’로, 검색어와는 ‘OR’조합으로 검색을 한다.

= (타이틀 AND 발행처) OR 키워드

The image shows a search interfac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Top Tabs:**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기타 자료
- Left Column (Classification):**
 - 대분류: 코드 1단계 선택
 - 중분류: 코드 2단계 선택
 - 소분류: 코드 3단계 선택
 - 쪽당출력수: 10
- Right Column (Search Criteria):**
 - 타이틀: 생명과학
 - 발행처: 한국생명윤리학회
 - 키워드: 생명
 - 년 도: [] 년 부터 [] 년 까지, [] 년 이전, [] 년 이후
 - 국 가: 대한민국
 - 언 어: 국어
- Bottom:** A blue button labeled '검색' (Search).

<그림 2-3-32> 타이틀과 발행처 검색어를 이용한 검색

5) 발행일에 기간을 두고 검색을 할 경우

예) 기간의 사이 데이터를 검색할 경우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기타 자료
<div> <div> <div>대분류</div> <div>코드 1단계 선택</div> </div> <div> <div>중분류</div> <div>코드 2단계 선택</div> </div> <div> <div>소분류</div> <div>코드 3단계 선택</div> </div> <div> <div>쪽당출력수</div> <div>10</div> </div> </div> <div> <div>타이틀</div> <div>생명과학</div> <div>전방일치</div> </div> <div> <div>발행처</div> <div>한국생명윤리학회</div> </div> <div> <div>키워드</div> <div>생명</div> </div> <div> <div>년 도</div> <div>2005</div> <div>년 부터</div> <div>2006</div> <div>년 까지</div> </div> <div> <div></div> <div>년 이전</div> <div></div> <div>년 이후</div> </div> <div> <div>국 가</div> <div>대한민국</div> </div> <div> <div>언 어</div> <div>국어</div> </div> <div> <div>검색</div> </div>								

<그림 2-3-33> 기간사이의 자료 검색

예) 이전의 기간을 두고 검색할 경우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기타 자료
<div> <div> 대분류 코드 1단계 선택 ▼ </div> <div> 중분류 코드 2단계 선택 ▼ </div> <div> 소분류 코드 3단계 선택 ▼ </div> <div> 쪽당출력수 10 ▼ </div> </div> <div> <div> 타이틀 생명과학 <div>전방일치 ▼</div> </div> <div> 발행처 한국생명윤리학회 </div> <div> 키워드 생명 </div> <div> 년 도 <div> <div>2005</div> <div>년 이전</div> </div> <div> <div></div> <div>년 이후</div> </div> </div> <div> 국 가 대한민국 ▼ </div> <div> 언 어 국어 ▼ </div> </div> <div> <div>검색</div> </div>								

<그림 2-3-34> 특정 기간 이전의 자료 검색

예) 이후의 기간을 두고 검색할 경우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기타 자료
<div> <div> <div>대분류</div> <div>코드 1단계 선택</div> </div> <div> <div>중분류</div> <div>코드 2단계 선택</div> </div> <div> <div>소분류</div> <div>코드 3단계 선택</div> </div> <div> <div>쪽당출력수</div> <div>10</div> </div> </div> <div> <div>타이틀</div> <div>생명과학</div> <div>전방일치</div> </div> <div> <div>발행처</div> <div>한국생명윤리학회</div> </div> <div> <div>키워드</div> <div>생명</div> </div> <div> <div>년 도</div> <div> <div>년 부터</div> <div>년 까지</div> </div> <div> <div>년 이전</div> <div>2003</div> <div>년 이후</div> </div> </div> <div> <div>국 가</div> <div>대한민국</div> </div> <div> <div>언 어</div> <div>국어</div> </div> <div> <div>검색</div> </div>								

<그림 2-3-35> 특정 기간 이후의 자료검색

다) 분야별 검색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기타 자료

NRCBL

대분류
코드 1단계 선택
▼

중분류
코드 2단계 선택
▼

소분류
코드 3단계 선택
▼

🔍 연구 및 행동지침

번호	제목	국가/언어	발행처	발행년	자료유형
1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대한민국/국어	과학기술부 ..	2006	
2	IRB Guidline VII : Biosafety Guideline..	미국/영어	펜실바니아주..	2003	
3	Concept Paper on the development of ..	영국 /영어	Europe..	2005	
4	Guidelines on Preimplantation Geneti..	뉴질랜드/영어	Nation..	2005	
5	Polar body diagnosis : Opinion of th..	독일/영어	German..	2005	
6	Advisory Committee On Genetic Testin..	영국/영어	Health..	1997	
7	HFEA Code of Practice : Guidance???	영국/영어	The Hu..		
8	Genetic counseling and screening of ..	미국/국어	Nation..	2006	
9	Reflections Concerning an Extension ..	프랑스/영어	프랑스윤리위..	2002	
10	Screening for Hereditary Hemochromat..	미국/영어	Annals..	2005	
11	Patient's Fact Sheet : Genetic Scree..	미국/영어	Americ..	2005	
12	의사윤리지침	대한민국/국어	대한의사협회	2001	
13	한국의사윤리강령	대한민국/국어	대한의사협회	1997	
14	Guideline for obtaining informed con..	스위스/영어	World ..		
15	Guidelines for Preimplantation Genet..	뉴질랜드/영어	Law Fo..	2004	
16	Obstetric Guideline 17 : Antenatal S..	캐나다 /영어	Britis..	2003	
17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PG..	영국/영어	Depart..	2002	
18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PG..	오스트리아/영어	The Bi..	2004	
19	Adopting a specific research and tec..	유럽연합/영어	Offici..	1990	

<그림 2-3-36> 분야별검색 화면

각 분야별 자료를 전체적으로 열람하면서 센터의 BPRC 분류표로 자료의 영역을 좁혀 나가는 광의적인 검색방법이다. 코드를 좁혀감으로서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갈 수 있다.


라) 결과물의 출력

기본검색의 결과화면 상세결과화면 상세보기에 프린트 버튼을 이용하시면 결과화면을 출력할 수 있다.

기본검색

홈 > 센터개요 > 기본검색

SEARCH | 전체



 [프린트 하기](#)

국제선언

제목	국가/언어	선언년도	자료유형
한국생명윤리학회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윤리 특별위원회 성명서	대한민국/국어	2004	
FIAMC 성명서	기타/국어	2004	

국제선언의 [줄기세포](#) 검색결과 2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국내외 법령

제목	국가/언어	제정년도	자료유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대한민국/국어	2005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독일/국어	2002	
인간복제기술등의규제에대한법률	일본/국어	2000	

<그림 2-3-37> 기본검색 결과의 출력

기본검색

홈 > 센터개요 > 기본검색

SEARCH | 전체 검색

[프린트 하기](#)

[선언 및 문헌](#)
[법령](#)
[연구 지침](#)
[언론보도자료](#)
[각종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양식](#)
[단행본 및 저서](#)
[기타 자료](#)

➤ **국내외 법령** 현재 검색어 => **줄기세포**

번호	제목	국가/언어	제정년도	자료유형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대한민국/국어	2005	
2	Human Cloning Ban and Stem Cell Research Protection Act o...	미국/영어	2005	
3	Stem Cell Replenishment Act(2005)	미국/영어	2005	
4	The stem cell research enhancement act(2005, H.R.810)	미국/영어	2005	
5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관한윤리지침	중국/국어	2004	
6	줄기세포 연구지원법	스위스/영어	2004	
7	인간배아 줄기세포 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	독일/국어	2002	
8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	독일/독일어	2002	
9	인간복제기술등의규제에대한법률	일본/국어	2000	
10	Prohibition on Federal Funding for research on the Cloning of ...	미국/영어	0000	
11	Use of Federal Funds for Research on Human Embryonic Ste...	미국/영어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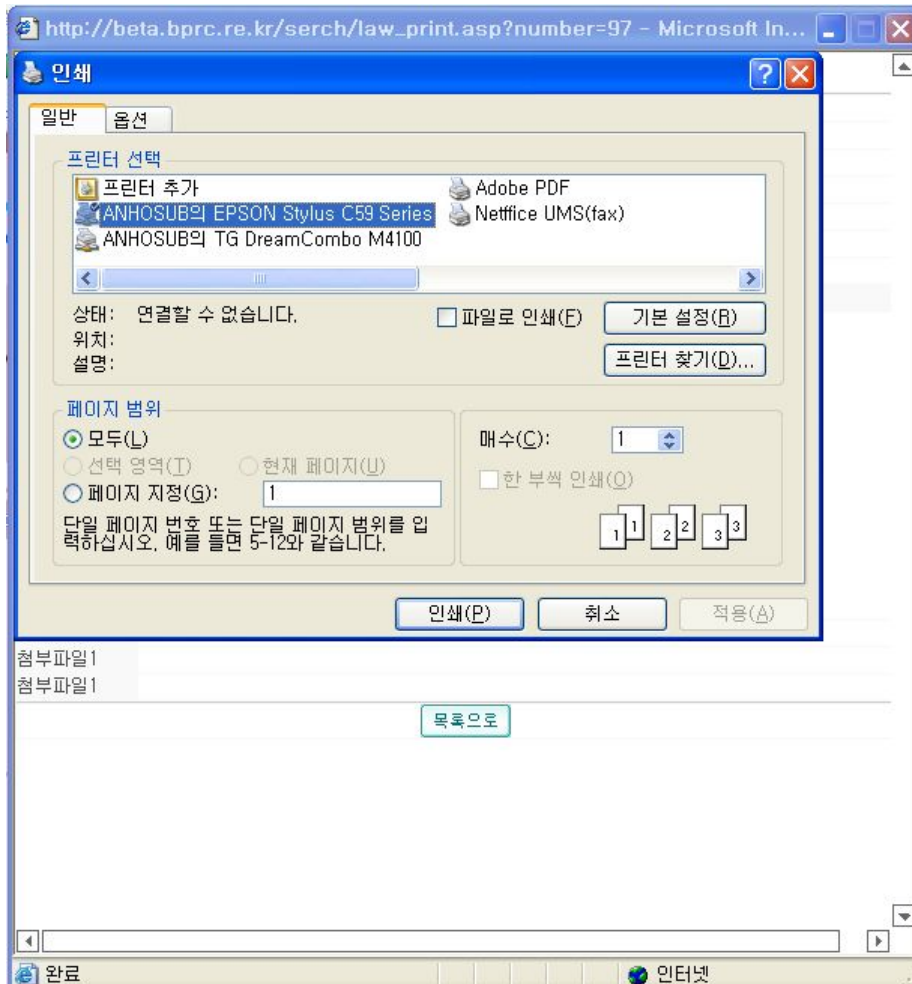
[이전10개] 1 [다음10개]

<그림 2-3-38> 결과 내역의 출력

▶ 홈 > 센터개요 > 검색

국내외 법령		프린트 하기
분류	3,13,0 법과정책	
LAW 분류	1. 일반	
국가	미국	
언어	영어	
제정년도	2005 년	
제목	Human Cloning Ban and Stem Cell Research Protection Act of 2005	
페이지수	p.	
	내용	
[내용설명]	<p>This bill was proposed in a previous session of Congress, Sessions of Congress last two years, and at the end of each session all proposed bills and resolutions that haven't passed are cleared from the books, This bill never became law,</p>	
[일반주기]		
출기세포 연구		
(원문보기 :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s109-876)		
첨부파일1		
첨부파일1		
첨부파일1		
목록으로		

<그림 2-3-39> 상세보기 내역의 출력



<그림 2-3-40> 검색결과와 출력 확인페이지

5) 전자도서관 자료 입력 현황 및 향후 사업

가) 자료 입력 현황

입력개시일인 200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디지털 도서관에는 약 1708건의 생명윤리 관련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 선언, 논문, 연구보고서, 각종양식, 단행본 자료의 경우 평균 자료 입력 시간은 하루 단위로 약 25건이다. 법령, 연구지침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자료인 것을 감안할 때 하루 단위로 약 15건이다. 자료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4> 자료입력 현황 (2007년 현재)

자료 분류	자료 입력 현황	총 입력 진행률
선언	70건	90%
법령	373건	60%
연구지침	332건	40%
언론보도자료	324건	70%
논문	318건	30%
연구보고서	67건	30%
각종양식	0건	0%
단행본	222건	20%
기타자료	2건	10%
합계	1708건	

선언의 경우 절대적인 수가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약 90%이상의 자료들이 입력되었다. 법령은 국내 법령의 경우 80% 이상은 입력이 된 반면, 해외 주요 국가의 법령은 현재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약 60%의 자료를 입력하였다고 파악된다.

연구지침과 논문, 연구보고서는 국내 자료의 경우에는 80% 이상 자료입력이 되었지만 해외 자료의 경우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계속 수집하여 등록해야 한다.

언론보도자료는 매일 새로운 기사가 나올 때마다 입력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사실관계가 달라진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하고 있다.

2차년도 사업 수행 시, 현재의 입력 현황을 고려하여 볼 때 2008년 6월까지 약 8000여건의 디지털 문서와 각종 이미지, 동영상 자료 등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향후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앞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전자도서관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생명윤리 전문도서관으로서 국내의 다른 도서관을 선도해가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용자 정보 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 계획을 구상하였다.

(1) 일반 사업

(가) 정보의 최신성 유지

전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정보는 전자도서관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가치 있는 장서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지하는 관리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가장 본질적인 업무이다.

전자도서관의 초반 자료입력 작업이 완성되면 내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장서의 최신성을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나) 타 기관과의 연계

타 기관과의 협력은 국내연구자 및 일반 이용자들이 생명윤리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에 관해서 보다 쉽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센터는 생명윤리관련 국내 연구소, 해외연구소들과 협약을 맺어 이용자들이 많은 양의 정보를 좀 더 빠르게 공유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자료검색 시스템을 연동하여야 한다.

실제로 케네디 연구소와 본 센터 간에 일정한 신호를 정해 자료의 서지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협약을 진행 중이다. 2차 사업 연도에는 국내 대학도서관이나 관련 연구소, 학회, 센터간의 연계를 통하여 서지정보와 장서공유를 통하여 자료의 중복을 줄이고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에 있다.

(다) DB이용교육 및 참고서비스

정보 접근의 환경이 웹기반 환경으로 변모됨에 따라 일반 이용자들도 전문적인 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탐색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전문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좋은 예이다.

웹 검색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더라도 DB에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탐색하기 위해서는 DB에 대한 이용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센터 내부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DB이용 교육을 실시하여 센터의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자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이용자가 요구했을 때, 이에 대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더 확충해가야 한다.

(2) 특별 사업

센터의 전자도서관은 일반 사업 외에 특별사업을 추진하여 도서관의 활성화와 전문화, 특성화에 주력한다. 현재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 자료 개발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구축

생명윤리가 일반인에게도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생명윤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의 황우석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센터의 전자도서관에서는 청소년에서부터 일반인, 연구원등을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있다. 앞으로 고등학생들의 윤리교과에서부터 대학과 대학원의 교재, 연구소의 지침서 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센터의 전자도서관에서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연구교수와 협력하여 이와 관련된 학습재료를 개발하고 소장하도록 한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멀티미디어자료(방송자료, 다큐멘터리, 영화 등)를 구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명윤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생명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궁극적으로 교육의 역할까지 맡는 전자도서관을 목표로 한다.

(나) 관련 판례 수집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가 본격적으로 학문으로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따라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사례나 판례연구는 필수적이다. 전자도서관에서는 국내외 판례를 수집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구축 초기 단계에는 이미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사례부터 수집을 시작하여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나라의 사례, 판례자료를 구축하여 생명윤리와 관련된 판례의 통합적인 검색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재 원문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그리고 내년에 완공이 예정인 국가전자도서관이다. 원문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금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본 센터의 전자도서관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원문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과금기가 설치되어 원문제공이 원활해진다면 현재 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장서들의 저작권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전자도서관과의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며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

(3)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 본 도서관의 과제

해외 전자도서관 조직도 및 업무흐름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역할의 강화와 디지털정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 해외 디지털도서관 사례 분석 결과

A. 미국 : 생명윤리문헌국가자료센터(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Bioethis Literature)

1973년 민간 기금으로 설립된 조지타운대학의 케네디연구소(Kennedy Institute of Ethics)가 1985년부터 미국립보건원(NIH)내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지원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생명의료윤리 전문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도서관이다. 생명윤리문헌 국가자료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생명의료윤리관련 각종 문헌의 수집과 정리, 제공
- b.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
- c. Task 별로 Director, Manager, bibliographer, project researcher, reference librarian, acquisitions librarian, cataloging assistant, assistant systems librarian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함.
- d. 업무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세부조직을 구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함.
- e. 케네디연구소 자체 기능으로서,
 - 저널 발간(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 생명의료윤리 관련 주제들에 대한 연구 기능

※ 미국은 국립보건원 내 생명의료윤리주제를 분야별로 다루는 10여개의 전문 부서와 프로그램이 있으며, 대통령생명윤리자문위원회(The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등 대단히 많은 정부기구·위원회 및 민간단체가 생명윤리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B. 독일 : 독일생명과학윤리자료센터 (Deutsches Referenzzentrum für Ethik in den Biowissenschaft, DRZE)

본 대학에 설치되었으며, 독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다. 독일생명과학윤리자료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전문 도서관 및 문헌정보 수집 기능
- b. 데이터베이스 구축기능 : 문헌데이터베이스, 연구기관과 프로젝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각종 생명과학연구기관 링크
- c. 생명윤리 축약 및 정보제공기능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각종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요약, 분석 및 제공
- d. 각종 세미나 개최를 통한 교육 및 연구기능
- e. 출판물을 통한 교육 및 홍보 기능

C. 프랑스 : 국립의학연구소 과학및생명윤리문헌센터 (Le Centre de documentation en éthique des sciences de la vie et de la santé)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각종 서적, 문헌, 저널, 법령 등의 수집과 제공하며 유럽 내에서 생명의료윤리 관련 정보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ETHINSERM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다.

D. 일본 : Eubios Institute

Darryl Macer교수가 1990년에 창설한 일본 츠쿠바 대학의 연구소로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국제적인 생명의료윤리 문제들에 관한 연구 및 출판아시아권 생명의료윤리학자들이 참여하는 츠쿠바 라운드테이블(TRT)의 개최 등을 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분석결과 시사점

1) 전자도서관의 중요성 부각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과거의 경우 공간이나 장서가 도서관을 판단하는 큰 기준 이었다면 웹기반 환경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은 직접적인 자료의 이용과 소장보다. 웹을 통한 접근과 이용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요구를 잘 파악하여 전자도서관 장서를 개발, 보유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원문데이터구축 사업과 관련이 있다.

2) 디지털정보기술에 대한 기술력 확보

디지털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인터페이스에 따라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편의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 편의성과 전문적인 정보의 표현의 적절한 수준에서 이를 수용하는 인터페이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홈페이지가 오픈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전자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소감, 후기 조사를 통해 이를 반영하고 인터페이스의 꾸준한 관리를 한다.

3) 업무 프로세스에 기반한 기능 중심의 조직안 도출

현재에는 1인의 사서가 모든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으나, 일반사업에 해당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특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각 업무에 따른 전문 인력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3. 활동 보고서

가. 센터 주최 및 주관 행사

1) 행사 개최 현황

본 센터에서는 생명윤리정책 및 올바른 생명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국내외심포지엄과 생명 포럼, 연구원 월례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3-2-1 > 행사 개최 현황

분 류	주 제	일 시	내 용
국 제 심 포 지 엄	유네스코 아태지역 생명윤리 교육 회의	2006. 7. 26 ~ 28	생명윤리 교육현황과 경험 교류 및 생명윤리 교육 진흥을 위한 방안 논의
	2006 바이오코리아 ‘생명윤리’ 분과	2006. 9. 7	생명윤리의 법적 기준과 인체장기 및 조직 사용의 윤리적 문제 검토
국 내 심 포 지 엄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재평가 토론회	2006. 7. 20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의의와 윤리적 문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표준지침서 설명회	2006. 11. 7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및 토론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2006. 12. 7	각계의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활동 점검 및 전망 모색
포 럼	기계와 생명: 기계적 세계관과 현대의 생명의 세계관	2006. 11. 8	기계적 세계관과 생명의 세계관 비교, 분석 및 토론
	생명의 이해와 생명윤리	2006. 12. 1	온생명 중심의 세계관 설명 및 질의응답
연구원 월 려 세 미 나	나노기술의 윤리적 함의	2006. 9. 28	나노기술의 연구현황과 전망 소개 및 윤리적 문제 검토
	줄기세포연구의 실제와 전망	2006. 11. 3	줄기세포연구의 현황 소개와 발전 방향 모색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특성과 과학윤리: 현황의 분석과 제안	2006. 12. 20	올바른 과학연구윤리 정립을 위한 교과 개선안 제안

2) 국제심포지엄

가) 유네스코 아태지역 생명윤리 교육 회의

<표 3-2-2> 유네스코 아태지역 생명윤리 교육회의 현황

주 제	유네스코 아태지역 생명윤리 교육 회의
일 시	2006년 7월 26일(수)~28일(금)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31호 등
참가인원	110여명
주 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화여대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후 원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2006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본 센터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주최로 “유네스코 아태지역 생명윤리 교육 회의”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 Darryle Macer(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의 지역 고문)은 본 회의에서 아태지역 여러 나라의 생명윤리 교육의 경험을 교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생명윤리 교육의 네트워크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생명윤리 교육의 목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생명윤리 교육’과 생명윤리 교육의 국제적 사례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다음날은 오전에 생명윤리 교육에 관한 4주제의 그룹 워크숍이 있었다. 학교에서의 생명윤리 교육, 시민과 언론인을 위한 생명윤리 교육, 과학자를 위한 생명윤리 교육, 의료인을 위한 생명윤리 교육을 주제로 각 그룹의 참가자들은 생명윤리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보건 교육에서의 생명윤리 교육’에 대한 발표를 포함하여 각국의 생명의료 윤리 교육 현황에 대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오후에는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다 나은 생명윤리 교육을 위한 생명윤리 교육에서의 지역 네트워킹 활동의 공동 계획 채택”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생명윤리 교육의 원리, 사회적 요구, 목표, 수행의 난제, 교과과정 개발, 교육 자료, 교육 방법, 평가, 사고력 함양, 연대 및 정부와 유네스코에 대한 권고를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교육 방법과 교육 자료를 소개하고, 교육 평가 방법과 경험을 나누었다. 특히 방법론의 개발, 교재와 자료의 개선, 성과의 평가 방법, 교육 자료 정리, 협력 등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의 견해를 나누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후에는 오전의 그룹 워크숍의 결과 보고 및 논의가 있었다. 오후 4시부터는 ‘여러 문화 간 생명윤리 교육’에 관한



나) 2006 바이오코리아 ‘생명윤리’ 분과

<표 3-2-2> 2006 바이오코리아 ‘생명윤리’ 분과 현황

주 제	2006 biokorea. 03. bioethics -Legal Regulation on the Ground of Bioethics in Korea (장영민) -Role of Biolaw and Bioethics in Advancing Biotechnology (권복규)
일 시	2006년 9월 7일 오전 10시~11시반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21호
참가인원	20여명
주 최	한국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청북도
주 관	한국바이오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보건산업벤처협회, 한국다국적의약품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화장품협회,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코엑스
후 원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2006년 바이오코리아에서 본 센터의 센터장인 장영민 교수와 부소장인 권복규 교수가 각각 ‘Legal Regulation on the Ground of Bioethics in Korea’와 ‘Role of Biolaw and Bioethics in Advancing Biotechnology’라는 주제로 생명윤리 분과의 발표를 맡았다.

장영민 교수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중요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권복규 교수는 인체 물의 추출과 사용 현황을 설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3) 국내 심포지엄

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재평가 토론회

<표 3-2-3>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재평가 토론회 현황

주 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재평가 토론회
일 시	2006년 7월 20일 (목) 2~5시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신세계관 101호
참가인원	80여명
주 최	보건복지부
주 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난 2006년 7월 20일(오후2-5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신세계관 101호)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재평가」 토론회가 있었다.

맹광호 교수(유네스코 IBC위원)의 사회로 1부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의의’(중문의대 정형민 교수)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윤리성’(강릉대 전방욱 교수)이라는 제목으로 지정발제가 있었다. 이어 2부에서는 인제대 강신익 교수, 메이저병원의 권혁찬 부원장, 연세대 김동욱 교수, 한국일보 김희원 기자, KAIST 한용만 교수, 이화여대 허라금 교수를 중심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 설명회

<표 3-2-3>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 설명회 현황

주 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 설명회
일 시	2006년 11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6시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SK텔레콤관 컨벤션홀
참가인원	100여명
주 최	보건복지부
주 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6년 11월 7일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설명회에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배아 관련 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과 유전자 관련 기관(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이 기관위원회를 표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지침서와 관련한 다양한 발표와 지침서 설명 및 복지부의 정책 방향 보고가 있었으며,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지침서에 최종 반영되어 생명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함께 편집된 삼단 법령집과 함께 11월 중순 이후 배포되었다.

다)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표 3-2-3>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주 제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일 시	2006년 12월 7일 (목) 오후 2시-5시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참가인원	90여명
주 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6년 12월 7일 오후 2시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주최로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에서 줄기세포논문조작 사건 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정립을 위해 과학계, 윤리계, 교육계, 시민사회에서 펼친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계, 윤리계, 시민계의 여러 인사들과 시민들이 자리한 가운데 심포지엄은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특히 발표 후 종합토론 시간에는 청중들과 발표자들 간의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이 있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4) 포럼

가) 제1회 생명포럼: 기계와 생명: 기계적 세계관과 현대의 생명의 세계관

<표 3-2-4> 제1회 생명포럼 현황

주 제	기계와 생명: 기계적 세계관과 현대의 생명의 세계관 (김지하)
일 시	2006년 11월 8일 수요일 오후 5시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
참가인원	80여명
주 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본 센터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따른 윤리적 문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 전문적인 연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논의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생명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과학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명’을 화두로 한 대중적 포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6년 11월 8일에 제1회 이화생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기계와 생명: 기계적 세계관과 현대의 생명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현재 영남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지하 시인의 강연이 있었다.



김지하 시인은 현대 사회를 기계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계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의 기계적 세계관 대신 ‘생명의 세계관’을 제안하였다. 2시간이 넘는 열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이번 강연은 참석자들에게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기르고, ‘생명의 세계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나) 제2회 생명포럼: 생명의 이해와 생명윤리

<표 3-2-4> 제2회 생명포럼 현황

주 제	생명의 이해와 생명윤리 (장회익)
일 시	2006년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31호
참가인원	120여명
주 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6년 12월 1일에 본 센터는 제2회 이화생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명의 이해와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장회익 교수(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장회익 교수는 현재 포유류의 급속한 멸종 현상의 원인을 인간의 개입으로 설명하면서, 이 현상은 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인간종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극단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규제할 인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생명윤리’이다. 이를 위해 장회익 교수는 ‘생명’ 개념을 ‘온생명’으로 파악하면서, ‘낱생명 중심의 세계관’ 대신 ‘온생명 중심의 세계관’을 제안하였다.

12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5)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가) 제1회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나노기술의 윤리적 함의

<표 3-2-5> 제1회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현황

주 제	나노기술의 윤리적 함의 (권복규)
일 시	2006년 9월 28일(목) 오후 5시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교수회의실
참가인원	9명
주 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6년 9월 28일에 제1회 연구위원 월례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나노기술의 윤리적 함의”라는 주제로 권복규 교수(이화여대 의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권교수는 첨단과학기술인 나노기술의 연구현황 및 전망을 소개하고, 이 기술에 대한 여러 각도의 윤리적 문제와 함의를 설명하였다.



나) 제2회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줄기세포연구의 실제와 전망

<표 3-2-5> 제2회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현황

주 제	줄기세포연구의 실제와 전망 (김계성)
일 시	2006년 11월 3일(금) 오후 5시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01호
참가인원	10명
주 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6년 11월 3일에 제2회 연구위원 월례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줄기세포연구의 실제와 전망”라는 주제로 김계성 교수(한양대 의대)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교수는 줄기세포연구의 최근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망과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다) 제3회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특성과
과학윤리: 현황의 분석과 제안 (현행 7차 교육과정 중심)

<표 3-2-5> 제3회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현황

주 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특성과 과학윤리: 현황의 분석과 제안 (현행 7차 교육과정 중심) (고인석)
일 시	2006년 12월 20일(수) 오후 5시 30분
장 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클럽
참가인원	5명
주 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06년 12월 20일에 제3회 연구위원 월례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특성과 과학윤리: 현황의 분석과 제안 (현행 7차 교육과정 중심)”라는 주제로 고인석 교수(이화여대)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고인석 교수는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의 과학교과와 윤리교과에서 나타나는 과학윤리의 특성을 살펴보고, 두 교과가 제공하는 과학 이미지의 뚜렷한 간극이 존재하고 합리적 설명이 부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과학연구윤리의 정립을 위한 교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나. 생명윤리정책 네트워크 구축

1) 사업 목표

생명윤리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견들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해야한다. 이런 취지에서 본 센터는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여 한국의 생명윤리 담론에 있어서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따라서 시민사회, 생명윤리계, 생명과학자, 언론계 등과 생명윤리 정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의 ‘생명윤리정책 네트워크 구축’이란 사업을 추진했다.

2) 사업 우선순위 변경

본 센터는 위와 같은 사업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행사 또는 활동을 기획하였다.

생명윤리학회가 기획하고 센터가 지원하는 학술행사를 1회 개최하고, 한 차례 더 행사를 개최하고자 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여성민우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하고, 발표자 및 논평자로 참여하였다. 생명과학자와는 센터 전문정책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각종 학회 및 학술활동에 참여하며 공식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준비하였다. 언론인과는 센터 업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보다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주제로 모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12월 복지부의 개정 생명윤리법 언론인 공청회 행사와 관련하여 모임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6년 11월 27일, 12월 14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과 센터의 실무회의에서 생명윤리팀의 생명윤리 기본법제 마련 및 정책 연구 강화의 요구에 따라 센터의 업무의 우선순위 변경이 필요하였다. 센터의 주요 사업 중 기 수행중인 정책 연구 활동을 증대하고, 정보센터 기능은 유지하되,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센터로서의 기능은 필요 부분만 유지하는 것으로 업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정책 연구활동에 주력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다.

이로써 센터는 생명윤리 관련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정책연구들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명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건전한 정책논쟁으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센터가 향후 보다 역량 있는 커뮤니케이션 센터,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된 해외 정책 및 법령 연구, 정책 변화 연구 및 장기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연구 등 정책연구 활동이 기존 사업 계획보다 보다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3) 활동 행사 개최 현황

본 센터에서는 생명윤리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동심포지움,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센터가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센터로서의 역할과 국내 생명윤리 분야에서 센터가 수행할 역할에 대해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3-2-1 > 행사 개최 현황

분 류	주 제	일 시	내 용
생 명 윤 리 학 공 심 지	현행생명윤리법과 2000년도 법안의 비교(가천의대, 남명진 교수)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초안과 현행 법률과의 비교(한림대, 이인영 교수)	2006. 8. 26	현행 생명윤리법과 2000년도 법안 및 과학기술부 자문위원회 제안 법률 초안의 비교를 통한 법률 분석 공동 심포지엄을 센터가 주최, 생명윤리학회 주관함
시 민 단 체 집담회	난자채취 및 제공에 있어서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서울선언 기초회의	2006. 8. 18	김현철 교수, 김은애 연구보조원 참석
	한국여성민우회,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2006. 9. 20 - 9. 21	생명과학기술에 대응하는 각국 여성운동의 실천사례에 대해 논의. 난자문제를 중심으로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생 명 과 학 자 네 트 워 크	전문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생명과학자 연구자 위촉	2006. 7-8 월	줄기세포연구, 유전자연구, 동물실험과 이종이식의 생명과학 전문분야의 과학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언론인 대상 간담회	언론인 대상 센터 업무 소개 및 홍보	2006. 10. 9	센터 주요 사업 소개. 언론인들을 위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가 절실한 수요임을 확인
	언론인 대상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006. 12. 7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발표회에 앞서 언론인 대상으로 생명윤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4) 활동 내용

가) 한국생명윤리학회 공동심포지엄 개최

<표 3-2-2> 한국생명윤리학회 공동심포지엄

주 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검토를 위한 세미나
일 시	2006년 8월 26일(토)
장 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308호
참가인원	20 여명
주 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주 관	한국생명윤리학회

2006년 8월 26일 오후 1시 한국생명윤리학회와 본 센터가 공동으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검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발표자로는 가천의대의 남명진 교수가 “현행생명윤리법과 2000년도 법안의 비교(가천의대, 남명진 교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 한림대의 이인영 교수가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초안과 현행 법률과의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 후 논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건복지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것도 논의하였으나 의견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상기 발표문을 『생명윤리』 제7권제2호(2006년 12월)에 “자료”란 항목으로 게재하였다.

나) 한국여성민우회 주관 국제포럼 후원

<표 3-2-2>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주 제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INTERNATIONAL FORUM Envisioning the Human Rights of Woman in the Age of Biotechnology and Science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 21일(목)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국제회의장
참가인원	100여명
주 최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플라자
주 관	한국여성민우회
후 원	Global Fund for Woman, 이화여대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2006년 9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당시 시민단체가 센터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못한 때라 형식적으로는 이화여대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의 이름으로 후원하였으나, 이를 통해 본 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 연구센터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정보센터 및 커뮤니케이션 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았다.

9월 20일에 열린 “생명과학기술에 대응하는 각 국 여성운동의 실천사례 워크숍”에서는 생명과학기술에 대응하는 각국 여성운동의 실천사례에 대해 논의하였고, 난자문제를 중심으로 여성인권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국제포럼에서 본 센터 연구위원인 이화여대 여성학과 허라금 교수가 8월 20일 워크숍의 사회를 맡았고, 본 센터 연구위원인 최경석 교수가 “난자제공에 대한 법률 규제 및 윤리심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다) 생명과학자 자문 네트워크 구축

2006년 7월 센터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전문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전문정책자문단은 줄기세포연구, 유전자연구, 동물실험 및 이종이식 분야의 생명과학자와 IRB 및 연구윤리, 생명윤리일반, 생명윤리 법정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본 센터는 줄기세포분야에 김동욱(연세대 의대), 정형민(중문의대), 오일환(가톨릭대 의대), 한용만(카이스트)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유전자연구 분야에는 김선영(서울대 의대), 김장한(울산대 의대), 성제경(서울대 수의대), 임시근(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명진(가천의대), 김종묵(바이로메드), 김한겸(고려대 의대), 김수진(켄터키대 의대), 동물실험 및 이종이식 분야에는 박정규(서울대 의대), 강병철(서울대 의대) 교수를 위촉하였다.

생명과학자와의 자문 네트워크 구축은 자문위원만을 위한 공식적 형태의 간담회나 학술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발표자로 초청하거나 사안별로 개별적인 자문을 구했다.

김동욱, 정형민, 한용만 교수는 센터가 주최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재평가」 토론회”(2006.7.20)에 발표자로 참석하였다. 김장한 교수는 센터로 선정되기 이전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가 수행하였던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개최하였던 “유전자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공청회”(2006.7.18)에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2006.9)검토 작업에 함께 참여하였고, 센터와 주관하였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 설명회”(2006.11.7)에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임시근 박사는 익명화 방안 표준지침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여, 자문을 구하였다.(2006.9-2007.2) 남명진 교수는 한국생명윤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검토를 위한 세미나”(2006.8.26)에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김종묵 소장은 “유전자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공청회”(2006.7.18)에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유전자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김한겸 교수는 바이오뱅크 업무 및 익명화 방안 표준지침 연구와 관련하여 수 차례 도움을 주었다. 김한겸 교수가 수행하는 유전자은행 관련 연구과제에 익명화 방안 표준지침을 발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리를 두 차례 마련해 주었다(2007.4.12과2006.4.26). 뿐만 아니라 김한겸 교수와 김수진 교수는 싱가포르의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교수이자 ISBER(International Society for Biological and Environme

ntal Repositories),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Robert E. Hewitt과 연구원 Eng Chon Boon과 함께 센터에 방문하여 바이오뱅크의 운영과 IRB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2006.11.10). 김수진 교수는 익명화 방안 표준지침 연구를 위해 수 차례 자료를 발송해 주었다.

또한 센터 연구위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세포응용사업단 (단장 김동욱) 주최 “2006 Seoul Symposium on Stem Cell Research”(2006.10.20)에 참석하였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2006한국줄기세포학회 학술대회”에도 참석하였다. 이어 2006년 12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줄기세포 연구토론회”에는 본 센터 연구위원인 이화여대 의과대학 권복규 교수가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 필요성 및 제언”이란 발표를 하였고, 2007년 1월 19일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심포지움 “이종이식연구와 생명윤리”에 본 센터 연구위원인 최경석 교수가 “이종이식연구의 윤리와 규제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2007년 2월 13일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서 개최한 “2007 연구윤리 워크숍”에서 본 센터 연구위원인 이화여대 법학과 김현철 교수가 “배아연구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절차와 ISSCR 가이드라인 소개”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라) 언론인 대상 간담회

2006년 10월 9일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센터 설립 후 처음 같은 모임이라 센터의 역할과 사업 목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지정 센터라는 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없애고 센터가 시민사회계, 윤리학계, 과학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견들이 상호 소통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을 강조하였다. 이런 역할은 올바른 생명윤리정책 수립을 위해 연구 동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별히 언론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의견은 생명윤리가 문제가 되는 첨단 과학분야의 연구 동향 및 해외정책 변화 등에 대한 보도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접할 수 있었다.

언론인과의 두 번째 간담회는 2006년 12월 7일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이란 학술 행사가 열리는 날 개최되었다. 이날 모임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전부개정안 법률안에

대한 설명회였다. 센터는 이번 모임을 위해 장소 및 연락 등을 협조하고 복지부는 내용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간담회에 관심을 보인 언론인이 소수였던 것이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 국제협력을 위한 기초 네트워크 구축

1) 사업 목표

본 센터는 국내 생명윤리의 문제에 대한 정책이 국제적 수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책 동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센터의 활동은 세계 주요 국가의 관련 분야 연구소와 유지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나아가 공동 연구 및 인적 교류를 준비하고 한다. 이를 위해 본 센터는 정보 교류 및 인적 교류 등의 협약을 시도하였고, 공식적인 협약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본 센터의 2006-2007 사업에서는 정보센터 구축이 핵심적인 사업 과제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일차적인 사업 목표로 삼았다.

2) 네트워크 구축 현황

위와 같은 사업 목표 아래 2006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수행한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표 3-3-1 > 기관 교류 활동 현황

기관	일 시	내 용
Poynter Center,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2006. 8. 30	협약 체결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Bloomington	2006. 9. 18	협약 체결
Kennedy Institute of Ethics (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Bioethics Literature)	2006. 10. 18 2006. 11. 16 수시	DB 분류체계 획득 및 DB 자료 공유 결정 시소러스 획득 케네디센터의 문헌센터 운영 자문
The Hastings Center	2006. 10. 19 2006. 11. 17	<i>Hastings Report</i> 회원가입 공동연구 프로젝트 논의 Visiting Scholar Program 참 여 제의 연구소 운영 자문
Center for Society and Genetics	2006. 8. 9	연구소 운영 및 관심 분야 문의
Western IRB	2006. 11. 12-14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의 운영현황 파악
OHRP	2006. 11. 20	생명윤리 규율 로드맵 논의
ORI	2006. 11. 20	업무 활동 파악 및 논의
Eubios Ethics Institute	2006. 7. 28	협약 체결
Nuffield Foundation	2006. 8. 6-8. 수시	번역 등 협력 관계 구축
Center for Bioethics,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2006. 8. 6-8	중국 개회 제8회 세계생명윤 리학회 참석 법령 매트릭스작업 협조의뢰

3) 활동 내용

상기에 요약한 활동 내용을 기관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Poynter Center,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1) 소개

Poynter Center는 미국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에 소재하고 있다. 이 센터는 연구윤리교육 강좌(Teaching Research Ethics Workshop)를 개설하고 있다. 이 강좌는 각 대학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좌이다. Poynter Center는 이 교육 강좌에 사용되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웹사이트로도 제공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센터이다. (<http://poynter.indiana.edu/tre/resources.shtml> 참조) 최근 국내에서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높은 만큼 Poynter Center의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2) 활동

본 센터와는 2006년 8월 30일 학문적, 문화적, 인적 교류 및 상호 이해를 향상을 목적으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체결을 위해 당시 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본 센터의 연구위원인 강원대 박수현 교수가 많은 노력을 해 주었다.

나)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로스쿨과도 2006년 9월 18일 학문적 정보 및 자료 교환, 학생 및 교수진 교류, 공동 연구 활동 및 학술행사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체결을 위해서도 박수현 교수

가 노력해 주었다.

다) Kennedy Institute of Ethics

(1) 소개

Kennedy Institute of Ethics는 미국 Georgetown 대학에 소재한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70년대 “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Bioethics Literature”로서 선정되어 생명윤리에 대한 문헌 및 정보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활동

본 센터의 2006-2007 사업에서는 정보센터 구축이 핵심적인 사업 과제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정보센터 구축에 경험이 풍부한 미국의 Kennedy Institute of Ethics의 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Bioethics Literature와의 협력과 자문이 필요하였다.

(가) 1차 방문

본 센터 연구위원인 김현철, 박수현 교수는 2006년 10월 18일 Kennedy Institute of Ethics에 방문하여 Doris M. Goldstein(Director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을 면담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다.

-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 획득 :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은 National Reference Center가 사용하는 있는 DB 분류체계이다. 생명윤리 분야에서의 주요 주제 및 세부 항목을 상세히 분류해 놓고 있어 생명윤리 분야 전문 도서관이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센터를 이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 자료 분류체계 공유 결정 : 향후 본 센터가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상호 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

- Alphabetical List of All *BIOETHICS THESAURUS* Keywords with Corresponding Mesh Terms 획득 : 생명윤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광의어, 협의어, 관련어, 참조용어 및 의미

에 대한 리스트이다. 본 센터를 이 시소리스를 근간으로 하여 한국어 시소리스 제작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만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은 한국에서의 다양한 용어 번역의 장단점 그리고 한국적 상황이 고려된 의미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어 이후 사업연도에 수행할 계획이다.

- DB 자료 공유에 대한 양해 획득 : 본 센터의 DB가 구축되면 상호 자료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는 양해를 획득하였다.
-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Reports 1997-2001 획득 : 미국 국가생명윤리 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발간 자료를 CD로 제공받았다.

(나) 2차 방문

본 센터의 최경석 교수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PRIM&R(Public Responsibility In Medicine and Research) 학회에 참석하고, WIRB 등과의 교육프로그램 협의를 위해 생명윤리팀의 이수연 사무관과 함께 미국에 방문하였고, 2006년 11월 16일 Kennedy Institute of Ethics에도 함께 방문하여 Doris M. Goldstein과 면담하였다. 본 방문을 통해 수행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Bibliography 발송 의사 확인 : National Reference Center가 발간한 Bibliography를 외교 행랑으로 발송해 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 정보센터 운영 및 인력 현황에 대해 문의 : 그 동안 National Reference Center가 어떤 지원을 받았으며,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문헌 및 정보 자료를 관리하는 사서의 인력 현황에 대해 문의하였다. 본 센터가 운영하고자 하는 정보센터에서도 전문 사서를 고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기타

그밖에도 본 센터 연구위원인 박수현 교수는 Kennedy Institute of Ethics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관련 국제기관 목록에 본 센터가 등록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따라서 생명윤리 정책연구센터의 영문명 “Bioethics Policy Research Center”가 관련 국제 기관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라) Hastings Center

(1) 소개

Hastings Center는 생명의료윤리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우수한 민간 연구소이다. *The Hastings Center Report*라는 저널을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RB : Ethics & Human Research*라는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우수한 생명윤리학자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Hastings Center는 출판과 관련된 전문 인력과 상근 연구진들로 운영되고 있다.

(2) 활동

본 센터는 Hastings Center의 운영을 참고하여 센터의 발전 방향과 사업 계획 수립에 참고하고, 공동연구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방문하였고, 다음과 같은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가) 1차 방문

본 센터의 김현철, 박수현 교수가 2006년 10월 19일 방문하여 센터 소장이자 미국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Thomas Murray와 면담하였다. 면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 : 현재 Hastings Center는 연구 프로젝트에 상당한 관심을 지니고 있기에 생명윤리의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바탕으로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Visiting Scholar Program : Hastings Center가 운영하는 Visiting Scholar Program에 센터의 연구위원들이 참여할 것을 제안 받았다.
- Hastings Report 회원 가입 결정 : Hastings Center가 발행하는 저널을 본 센터가 구독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2차 방문

PRIM&R 회의 참석 및 WIRB 교육 프로그램 협의로 미국을 방문한 센터의 최경석 교수와

생명윤리팀의 이수연 사무관은 2006년 11월 17일 Hastings Center를 방문하여 Josephine Johnston (Director of Research Operation)을 면담하였다. 면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 연구소 운영에 대한 문의 : 연구소 연구인력, 출판 담당 인력, 주요 활동 등에 대해 문의하였고, 재정 확보 등 연구소 운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였다.
-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문의 :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아울러 상기한 저널이외에도 단독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행된 출판물들에 대해 소개를 받았다.

마) Center for Society and Genetics

(1) 소개

Center for Society and Genetics는 UCLA에 소속된 연구소며, 유전자 문제가 지닌 사회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Genetic Crossroads*라는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다.

(2) 활동

본 센터의 연구위원인 권복규, 최경석 교수가 중국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생명윤리학회에 참석하였고, 상기 센터의 한국계 연구원인 Sandra Soo-Jin Lee 박사와 면담하였다. 면담에서 Center for Society and Genetics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유전자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사회학적 연구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센터 사업 과제 중 상기 센터가 주력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바) Western IRB

(1) 소개

Western IRB는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업적 IRB이다. 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WIRB는 10여개 이상의 심의위원회 팀을 운영하고 있다. WIRB는 IRB 위원들을 대상으로 2개월, 6개월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도 서울대의 김옥주 교수, 울산의대의 구영모 교수가 교육을 이수하였다.

(2) 활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에서는 국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탁 교육기관으로는 WIRB가 선정되었다. 이에 생명윤리팀 이수연 사무관은 실무 협의를 위해 WIRB에 방문하였고 본 센터의 최경석 교수와 서울대의 김옥주 교수도 함께 방문하여 Angela Bowen(President), James Riddle(Vice President) 등과 면담하였고, 해당 실무진과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제공될 교육 프로그램, 교육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 OHRP

(1) 소개

미국 M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산하의 OHRP(Office of Human Research Protection)는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2) 활동

본 센터의 박수현, 최경석 교수와 생명윤리팀의 이수연 사무관, 서울대 김옥주 교수는 2006년 11월 20일 OHRP의 Melody Lin (Deputy Director)와 면담하였다. 현재 한국에서의 생명윤리 확립을 위해 미국의 제도적 운영 방식을 참여할 필요가 있었다. Melody Lin은 OHRP가 현재의 역할을 수행하기까지의 역사와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고, OHRP의 운영 인력 및 현황에 대해

서도 설명을 들었다. Melody Lin은 한국의 생명윤리 확립을 위해 선 교육 후 규제를 강조하였다.

아) ORI

(1) 소개

미국 MHHS 산하에 있는 ORI (Office of Research Integrity)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연구윤리 교육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ORI는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과제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2) 활동

본 센터의 박수현, 최경석 교수와 생명윤리팀의 이수연 사무관, 서울대 김옥주 교수는 2006년 11월 20일 ORI 사무실에 방문하여, Chris Pascal(Director)와 Lawrence Rhoades(Director, Division of Education and Integrity) 등과 면담하였다. 면담에서 ORI의 운영 방식 및 현황을 문의하였다. 아울러 ORI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대학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내부고발자의 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자) Eubios Ethics Institute

(1) 소개

Eubios Ethics Institute는 일본, 태국, 뉴질랜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소장인 Darryl Macer는 2006년 *A Cross-Cultural Introduction to Bioethics*를 출판하기도 했다.

(2) 활동

아시아생명윤리학회를 통해 이미 센터가 설립되기 이전 이화여대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는 Eubios Ethics Institute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었다. 이에 본 센터가 2006년 7월 26일-28일 한국 유네스코와 공동 주최한 “UNESCO 아태지역 생명윤리 교육 회의”에 Eubios Ethics Institute의 소장인 Darryl Macer가 참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6년 7월 28일 Eubios Ethics Institute와 생명윤리 정보 및 지식 교류, 인적 교류, 연구 및 자문 등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차)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Nuffield Foundation)

(1) 소개

1991년 Nuffield Foundation에 의해 설립된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영국의 생명윤리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각종 교육 자료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활동

본 센터의 권복규, 최경석 교수는 제8회 세계생명윤리학회에서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의 Harald Schmidt(Assistant Director)를 만나 본 센터의 설립을 알리고,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논의하였다.

본 센터가 설립되기 전부터 이화여대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는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는데, 위원회에서 발간한 교육 자료인 “Animal-to-Human Transplants”를 권복규 교수가 번역하였다. 이에 위원회와는 번역 허가 문제 등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향후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가 발간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시 센터의 사업 활동으로서 번역 작업을 수행하거나 영국에서의 정책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카) Center for Bioethics,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중국의학과학원 산하에 있는 생명윤리학연구중심(Center for Bioethics)은 중국 내에서 활발히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의 집행 주임직을 수행하고 있는 Xiao-Mei Zhai 교수는 제8회 세계생명윤리학회 개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센터의 권복규, 최경석 교수는 세계생명윤리학회에 참석하여 아시아에서의 생명윤리 논의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논의하였다. 본 센터가 작성하는 법령 매트릭스 작성과 관련하여 2007년 4월 Xiao-Mei Zhai 교수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라. 수시 정책자문

센터는 개별 연구과제의 수행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팀의 수시적 요청에 따라 당면 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입안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센터가 수행하는 수시 정책자문은 현안 분야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작성, 법안의 검토, 해외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해석·번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4-1> 수시 정책자문 일지

일 시	자 문 사 항
2007. 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관련 줄기세포주 등록에 관한 쟁점 검토
2007. 3. - 2007. 4.	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초안에 관한 기술적 검토
2007. 3.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에 관한 관계 부처 의견 검토
2007. 2. - 2007. 3.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NAS 가이드라인과 ISSCR 가이드라인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과의 쟁점별 비교
2007. 2.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ISSCR 가이드라인의 해석 자문
2007.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관련 단성생식배아안과 특수 배아안에 관한 검토
2007. 2.	변재일 의원 발의 생명자원관리법안 검토
2006. 12. - 2007. 4.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ioethics.go.kr) 제작 및 관리 이관
2006. 1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 및 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초안의 벌칙규정 검토
2006. 1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상의 신고·지정·등록·허가 등에 관한 검토
2006. 1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 설명자료 검토
2006. 10.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에 관한 기술적 검토
2006. 8. - 2006. 9.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 작성
2006. 8.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영장류 또는 인간 배반포 도입 문제 검토

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제작

1) 홈페이지 제작

가) 홈페이지명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나) 홈페이지 제작의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팀

다) 홈페이지 제작기간

2006년 12월 ~ 2007년 3월

라) 홈페이지 확인 및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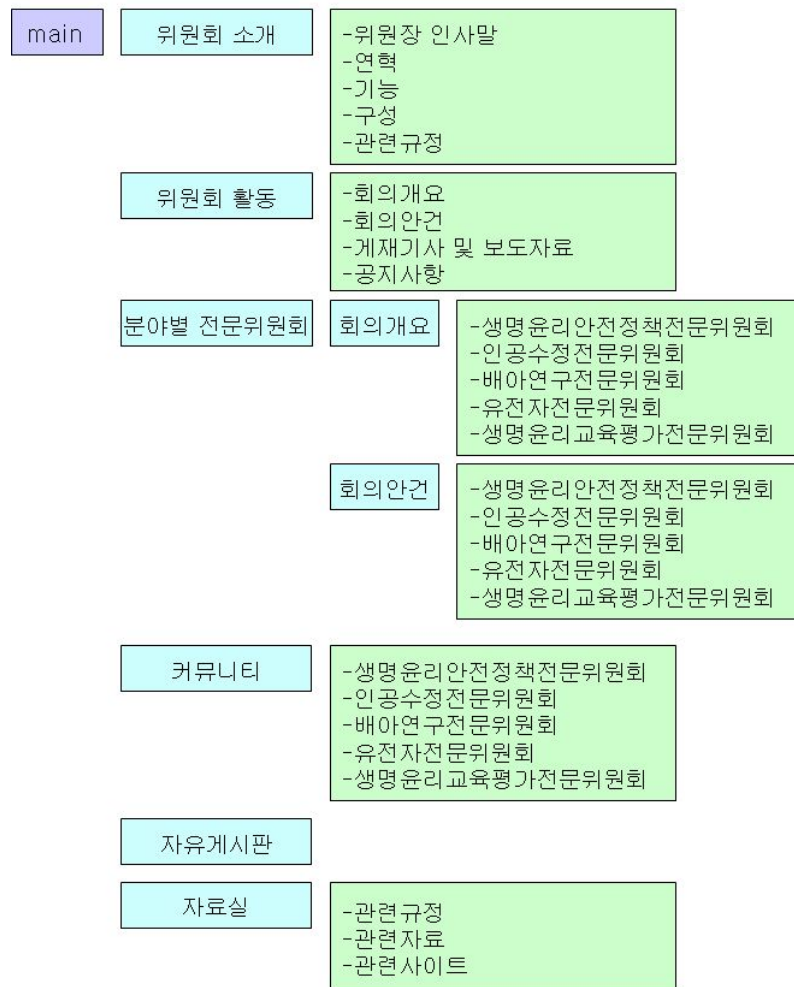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정보관리팀

마) 홈페이지 의뢰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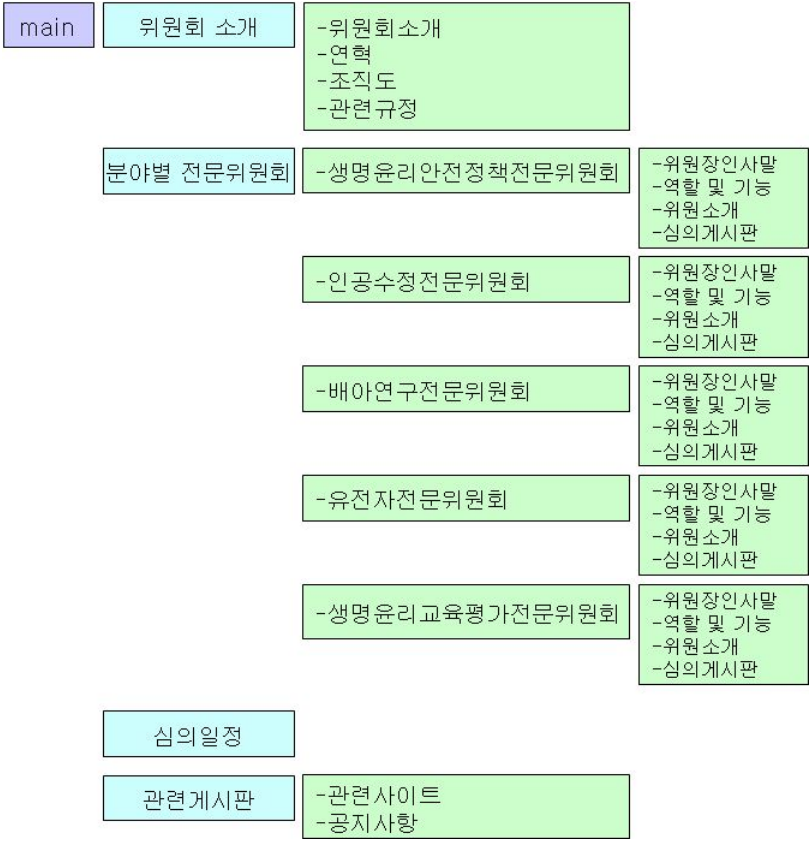
홈페이지 제작업체 은아소프트(주)

바) 홈페이지 제작안

(1) 보건복지부 제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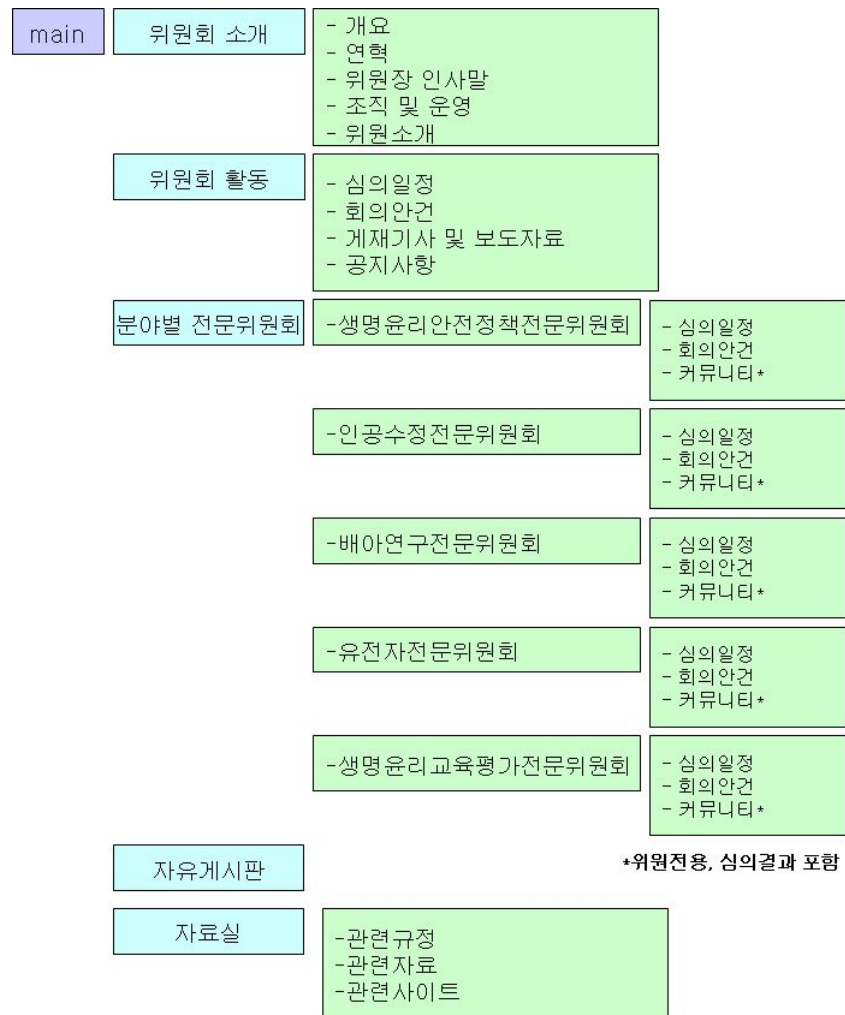


<그림 3-5-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제작안1 - 보건복지부 제안



<그림 3-5-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제작안2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제안

사) 홈페이지 최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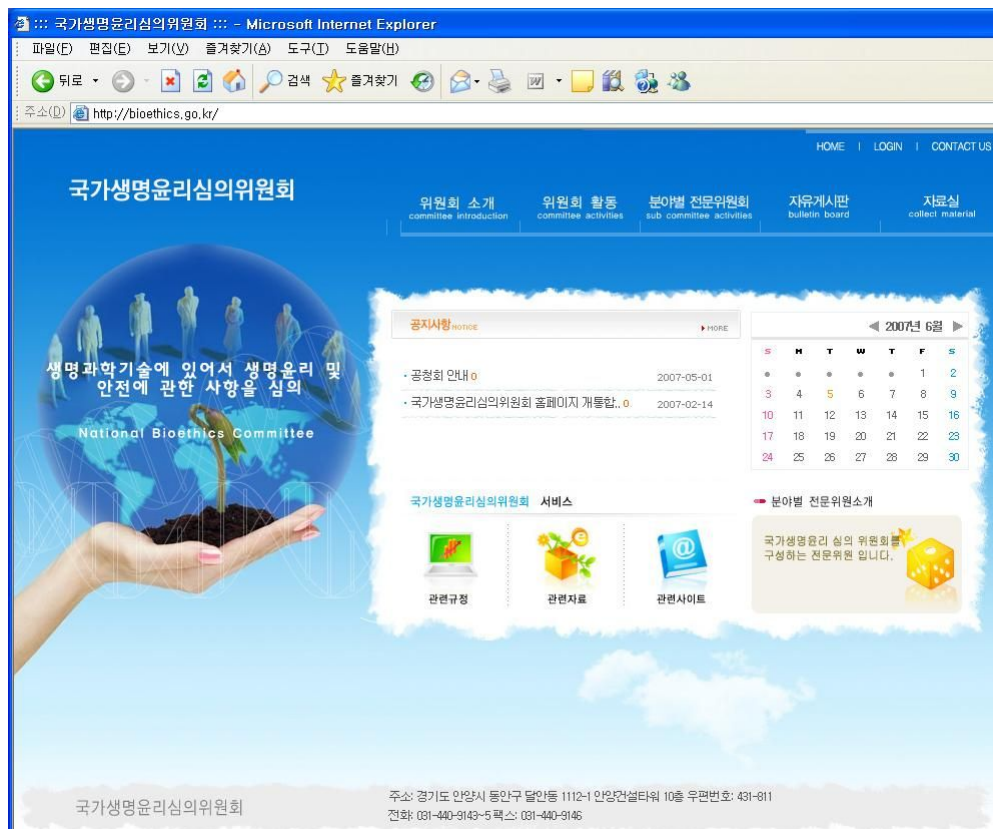


<그림 3-5-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제작안3 - 최종 선정안

2) 홈페이지 제작 결과

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URL : <http://www.bioethic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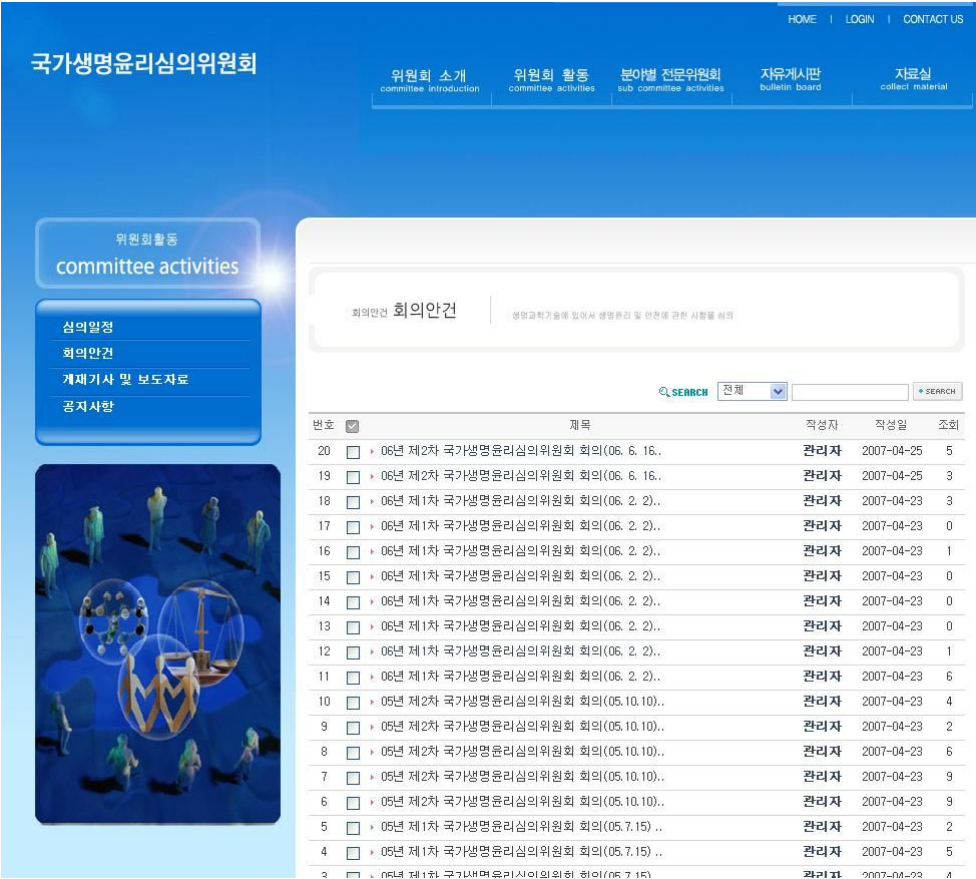
나) 홈페이지 제작 결과



<그림 3-5-4>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1 -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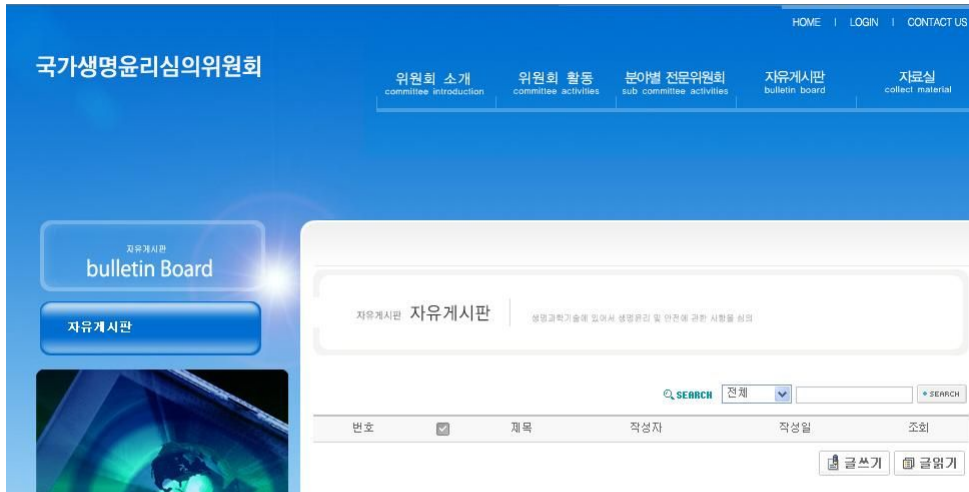
<그림 3-5-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2 - '위원회 소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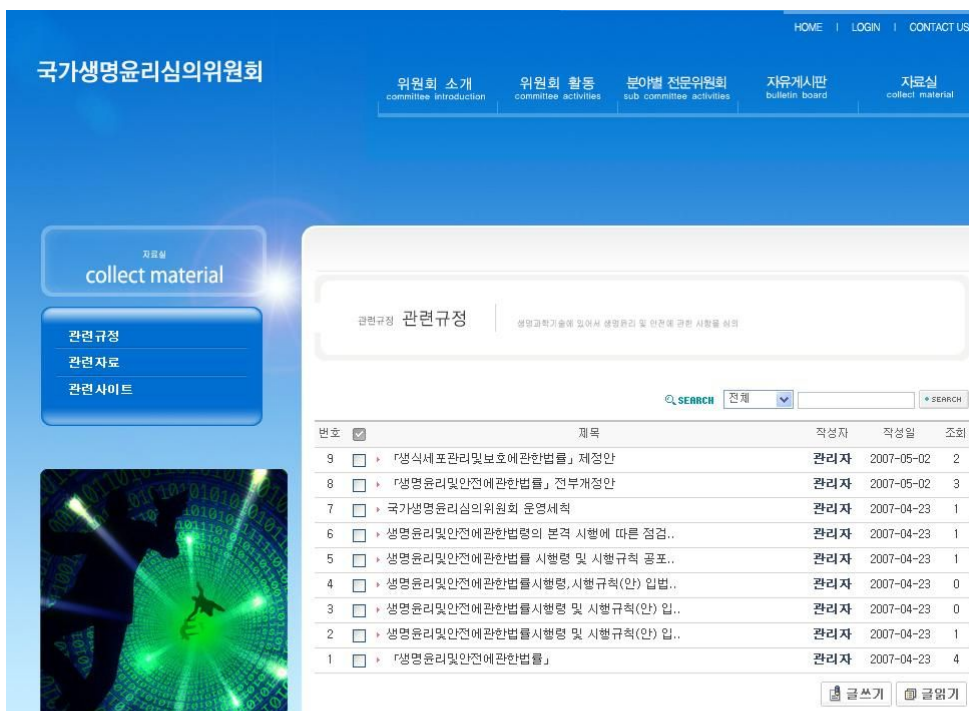
<그림 3-5-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3 - ‘위원회 활동’ 화면



<그림 3-5-7>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4 - ‘분야별 전문위원회’ 화면



<그림 3-5-8>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5 - ‘자유게시판’ 화면



<그림 3-5-9>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6 - ‘자료실’ 화면

4. 개별연구보고서

가. 법령 번역집

1) 법령 번역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입법을 위한 기초 자료

주지하듯이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적 사회와 문화가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도출 및 합의 내용의 제도화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치의 충돌과 합의의 부재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생명과학기술 분야는 다양한 신념과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제반 활동 영역들 중에서도 구성원간의 이해 대립과 가치관의 충돌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며, 그 발전의 전망 내지 사회·경제적 파급력만큼이나 공동체의 윤리 질서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분야이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입법’이다. 즉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가치의 다원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의 안전과 공적 기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입법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여 ‘공식적 유권 기관에 의한 형식적 법률의 제정행위’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널리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가 수렴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효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면 실질적인 입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연구윤리 기준의 세계화

또한 오늘날에는 경제·사회·정치·문화 등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의 연구 역시 거센 세계화의 흐름을 거스르기 힘든 실정이다. 굳이 황우석 사태의 경험을 반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세계 각국이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할 윤리 규범의 도출 및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실정법 체계의 정비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그러한 윤리 규범 및 실정법규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연구 활동만을 인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의 생명법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비·보완하여 왔는가? 그리고 연구자들이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실정법규와 『헬싱키 선언』 등의 국제적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해답은 우리의 상황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봄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국의 경우 생명법 체계의 정비 수준은 어떠한가, 외국의 연구자들은 국제적 연구윤리 규범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 하는 각도에서 접근할 때 우리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 제대로 된 번역집의 부재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려면 외국의 현행 법령 및 국제적 연구윤리 규범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령 번역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과거에도 몇몇 주요한 외국 법령 및 국제 윤리 규범에 대한 번역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주요 국가의 생명법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얻기에는 기본적으로 번역의 양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번역의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어서 심각한 오역이나 누락, 번역 용어의 비통일성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번역상의 오류는 연구자, 규제 당국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의견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번역 자료가 우리 생명법 체계의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라) 법령 번역 인프라 조성

결국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제대로 된 법령 번역집을 발간하는 것일 수밖에

에 없다. 이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생명윤리 관련 법령 번역집 발간 사업’(이하 ‘법령 번역 사업’)을 센터의 개별 사업 목표 중의 하나로 정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로 필요한 법령 및 윤리 규범에 대한 양질의 번역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2) 사업의 내용

가) 사업 체계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 번역 사업의 수행 체계는 다음과 같은 4단계 피드백 시스템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표 4-1-1> 법령 번역 사업 수행 체계

추진 단계	중점 추진 내용
1단계	번역 대상 법령 등의 선정
2단계	번역자 일차 번역
3단계	관련 전문가 감수
4단계	번역자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

이상의 각 단계별 사업 수행 체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 번역 사업이 기존에 산발적으로 수행되었던 번역 작업들과 차별되는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번역 대상 선정 회의

법학·의학·윤리학 등 생명윤리정책 관련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야 할 외국 법령 중 그 내용적 중요성이나 소개의 시급성, 번역의 난이도, 기존 국역본의 오류 정도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번역 우선순위(신규 및 수정 번역 포함)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2) 번역자 일차 번역

생명윤리정책 관련 분야의 법령에 대한 번역 경험이 있는 검증된 번역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번역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번역자의 리서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차 번역 단계에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

(3) 관련 전문가 감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법령의 원문과 일차 번역 결과물을 축조식으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였다.

(4) 번역자 리포트와 피드백

번역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난해어, 애매어 등에 대해 번역자는 리포트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번역어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뒤, 그 결과를 다시 센터의 시소러스 사전에 업데이트하여 번역자들에게 제공하는 피드백 과정을 갖추어 용어 사용에 일관성을 기하도록 했다.

나)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법령 번역 사업은 단순히 외국의 법령 및 국제 윤리 규범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센터의 다른 프로젝트 사업들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번역 대상 법령의 선정 및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작성의 기초 자료로서 외국 법령들에 대한 일차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법령 번역 사업은 센터의 DB 구축 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법령 정보 즉 주요국의 법령 및 가이드라인과 국제 선언 및 조약 등은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센터 구축 사업의 핵심 콘텐츠 중의 하나이다. 센터는 ‘BPRC 분류표’를 작성함에 있어 법령 정보의 분류 코드 개발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으며 그 결과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라는 법령 정보 색인집을 별도로 작성하게 되었다(별첨 참조).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는 일차적으로 센터 연구지원팀 소속 연구원들이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EU, 일본, 중국 등 주요 7개국을 대상으로
- 매트릭스 상의 16개 항목 분야에 걸쳐
- 각각의 분야를 규율하는 규범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선언 및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의 초안에 대해 센터는 해당 국가의 생명법 기타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 초안의 오류에 대한 검토 및 수정
- 초안의 조사 내용의 미비점 보완 등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의 완성도를 높였다.

<표4-1-2>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자문위원

담당 국가	성 명	전공 및 전문분야	소속 및 직위
미국 / 영국	김미경	의학, 의료법	Stanford 대학 post-doctoral researcher
독일 / EU	고봉진	형법, 생명법	Frankfurt 대학 박사
프랑스 / EU	한동훈	프랑스 헌법	Paris 2대학 chercheur invité
일본	임상혁	민법, 일본법	숭실대 교수
중국	Xiao-Mei Zhai	생명 · 의료윤리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교수

<표 4-1-3>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N.	Subject	Legislation	Regulation	Declaration/ Guideline
1	General			
2	Patient-Professional Relationship			
3	ART/ Embryo Study/ Cloning			
4	Artificial Abortion			
5	Gene Test and Screening			
6	Gene Therapy			
7	Clinical Trials			
8	Human Experiments			
9	Organ and Tissue Transplantation			
10	Euthanasia			
11	Stem Cell Research			
12	Animal Experiments			
13	Bio Patent (Genetic Patent)			
14	Privacy/ Data Protection			
15	Bio Bank (Gene Bank)			
16	Others			

3) 경과

가) 우선 번역 대상 선정

(1) 분야별 우선 순위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의 16개 항목 분야 중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그 내용적 시사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항목 분야를 선정한 결과

- 생명윤리 일반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1번 항목)
- 연구피험자 보호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8번 항목)
- 인간 복제 및 배아 연구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3번 항목)
- 줄기세포 연구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11번 항목)
- 유전 정보 등 개인 정보의 보호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14번 항목)
-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인체유래물(human derived materials)의 관리와 취급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15번 항목) 등의 분야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우선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구체적 선정 기준

6개 항목의 우선 번역 분야에 속하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중 내용의 중요성, 대표성 및 선구적 입법성과 소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거친 결과, 주요 7개국 중 EU와 중국을 제외한 5개국과 최근 생명윤리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꾀하는 입법으로 세계의 주목을 얻고 있는 호주의 법령 및 가이드라인 총 15건을 우선 번역 및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7건은 아직 국문으로 번역된 적이 없는 것이며, 나머지 8건은 기존 번역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 미국 4건(법률 1,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2, 가이드라인 1)
- 영국 3건(법률 2,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1)
- 독일 2건(법률 2)
- 프랑스 2건(법률 2)
- 일본 1건(법률 1)

- 호주 3건(법률 3)

(3) 로드 맵

2006-2007년 사업에서는 우선 번역 및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총 15건의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으며, 분량이 많은 초역 법령 3건과 기존 번역의 재검토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된 법령 3건에 한하여 번역 및 검토 작업을 완료하였다.

- 2006-2007년 사업 : 총 6건(초역 3건, 검토 3건)
- 2007-2008년 사업 : 총 9건(초역 4건, 검토 5건) + a

<표 4-1-4> 우선 번역 대상 선정 목록

항목	법령 및 가이드라인	국가	비고	우선 순위
#1	Loi relative à la bioéthique	프랑스		2
	Loi relative au respect du corps humain	프랑스		2
#8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Subjects	미국		2
#3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영국		2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1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1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Act	호주	초역	2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Act	호주	초역	2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for Reproduction and the Regulation of Human Embryo Research Amendment Act	호주	초역	2
#11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1
	Code of Practice for the Use of Human Stem Cell Lines	영국	초역	2
	NAS Guidelines for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미국		2
#14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미국	초역	1

	Act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미국	초역	1
#15	The Human Tissue Act	영국	초역	1

나) 신규 번역

(1)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 HIPAA)

HIPAA(P. L. 104-191)는 원래 미국 내의 한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다른 주(state)에 위치한 기업으로 전직을 할 경우에 이전의 기업에서 가입한 보험을 새로운 직장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보험의 이전은 곧 가입자인 근로자(환자)의 의료정보의 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HIPAA는 단순한 보험 기술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라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HIPAA가 제정되기까지 미국의 의료시스템 하에서는 각 주간의 의료보험의 이전이 자유롭지 못했으며, 더불어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의 문제는 각 주의 정책에 따라 차등적으로 다루어졌었다. 한편 각 주간의 의료보험의 이전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곧 보험 가입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표준적 처리 및 보호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따라서 HIPAA는 특정 의료정보의 전자전송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의 수립을 통해 의료정보체계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미국의 의료시스템 전체의 양상을 바꿔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총 5개의 Title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분량의 HIPAA 규율 사항 중에서 현재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미국의 보험 체계 전반이 아니라, 생명윤리정책의 수립 및 시행 방향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임과 동시에 의료계, 윤리계 및 시민 사회의 심각한 견해 대립이 예상되는 지점인 ‘개인 식별 의료정보의 규제를 통한 환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는 HIPAA Title II, Subtitle F에서 본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번역 또한 이 범위에 한하여 추진되었다.

HIPAA Title II, Subtitle F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Sec. 261. 목적
- Sec. 262. 사무의 간소화
- Sec. 263. 생명보건통계 국가위원회(NCVHS) 위원자격과 의무의 변경
- Sec. 264. 특정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고 사항

(2)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개인 식별 건강정보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준, Privacy Rule)

Privacy Rule은 HIPAA가 정하고 있는 의료정보 표준화 및 간소화, 개인 식별 의료정보와 관련한 환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연방 행정명령(Regulation)이다(45 CFR Parts 160 and 164). Part 160(사무 요건 일반), Subpart B(주법의 배제)는 HIPAA의 제정에 따라 요구되는 미국 내의 모든 주(state)에 걸친 의료시스템의 표준화를 실현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화된 의료시스템 하에서 수집, 처리, 이전되는 개인 식별 의료정보의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Part 164(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Subpart E(개인 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의료정보에 관한 접근권을 가지며, 잘못된 의료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 및 보호받는 의료정보의 공개에 관한 설명보고를 받을 권리 등을 가지게 된다. 이는 미국 헌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오던 Privacy권을 특히 의료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5 CFR Part 164, Subpart E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164.500 적용대상
- 164.501 정의
- 164.502 보호받는 의료정보의 사용과 공개: 일반 규칙
- 164.504 사용과 공개: 조직 요건
- 164.506 진료, 지불, 보건의료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동의

- 164.508 허가서가 요구되는 사용과 공개
- 164.510 개인의 동의 또는 거부 절차를 요구하는 사용과 공개
- 164.512 동의, 허가, 동의나 거부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사용과 공개
- 164.514 보호받는 의료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관한 기타 요건
- 164.520 보호받는 의료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업무 통지
- 164.522 보호받는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 요청 권리
- 164.524 보호받는 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
- 164.526 보호받는 의료정보의 정정
- 164.528 보호받는 의료정보의 공개에 관한 설명보고
- 164.530 사무 요건
- 164.532 이전 요건
- 164.534 프라이버시기준 최초 시행에 대한 준수일

Privacy Rule은 이밖에도 프라이버시 업무 담당자의 임명이나 환자의 의료정보를 다룸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지침 등에 관한 훈련의 필요성 등과 같은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도 규정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환자의 인격 존중 및 환자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The Human Tissue Act(인체조직법)

인체조직법은 특정한 건강 관련 목적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전시의 목적 하에 살아 있는 사람 및 사체로부터 유래한 장기 및 조직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사체로부터 그러한 장기 및 조직을 적출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 법은 인간의 신체 일부, 장기 그리고 조직을 위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해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널리 인체유래물(human derived materials)의 관리, 저장, 사용 등에 관한 생명윤리정책에 관하여 제공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성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조직은행이나 검체은행 등의 설립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법규 내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인체유래물을 기타의 생물자원(bio-resources)과 구별하여 관리, 저장, 사용토록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서도 아직 완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영국의 인체조직법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체조직법은 인체 장기 및 조직의 적출, 저장, 사용 등을 관리·감독하는 국가 기관으로 인체조직기구(Human Tissue Authority, HTA)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구를 통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Codes of Practice를 제정하고, 인체 조직에 대한 해부·저장 및 검시 활동 등에 대한 인증과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활동에 관한 통일적이고 독립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체조직법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제1부. 별표의 목적을 위한 인체장기 및 다른 조직의 적출, 저장, 사용
- 제2부. 인체조직과 관련한 활동에 대한 규제
- 제3부. 기타사항과 일반사항
- 별표

다) 기존 번역의 재검토

이미 국내에 번역된 주요 법령에 대하여 그 번역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술어 관용의 변화에 맞춰 번역어를 재정비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다음의 세 법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검토의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용어의 정정과 번역시 누락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추가가 이루어졌다.

(1)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배아보호법)

독일의 배아보호법은 1990년에 제정된 전문 13개조의 법률로서 인간 배아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금지행위의 목록을 제시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개체복제의 금지 내지

키메라 형성의 금지 등은 국제적인 윤리 기준이 되어 있다.

- (2)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배아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줄기세포법)

독일 줄기세포법(StzG)은 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독일에서 배아 줄기세포를 획득하거나 이를 위해 배아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연구목적의 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을 일정한 윤리적 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최근까지도 번역 용어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만능세포(totipotent Zelle)와 전분화능 줄기세포(pluripotente Stammzellen) 등의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들어 있다.

- (3) ヒトに關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關する法律

(인간 클론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복제규제법)

일본 복제규제법은 복제기술 등이 인간의 존엄의 유지,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의 확보 내지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개체복제 또는 키메라 내지 이와 유사한 개체의 인위적인 생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이 복제 실험이나 인간 성융합배의 제조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는 별도로 최소한 이 목적 조항만은 엄격한 윤리적 원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제언

가) 합본화(consolidation)의 필요

법률의 개정 방식에는 revision 방식과 amendment 방식이 있다.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해당 법률의 존재 양식이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revision 방식을 취할 경우, 가령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된 이후의 법률만 보면 당해 법률의 전체 모습을 최신의 버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amendment 방식으로 개정될 경우,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개정 대상 법률’과 ‘개정 법률’의 양자를 한 데 모아야 비로소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나게 된다. 일례로 호주의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Act(2002)와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Act(2002)는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for Reproduction and the Regulation of Human Embryo Research Amendment Act(2006)에 의해 개정되었는데 개정 대상 법률과 개정 법률의 입법 방향이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이 세 문서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합본화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는 한 관련 분야에 대한 호주의 입법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개정 법률’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개정 대상 법률’이 현재에도 여전히 개정 전의 모습으로 현행법의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호주의 법제도를 정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주석집 번역 검토

외국의 법령을 번역하였다고 하여 그 규율 내용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법률 전문가조차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고 각 법률에 대한 독립된 주석서를 내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실정법에 대한 변변한 주석서도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한 몇몇 법률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는 United States

Code Annotated, 영국의 경우는 Halsbury's Law of England, 독일의 경우는 Beck'sche Kurz-Kommentare, 프랑스의 경우는 Juris Classeur 등이 자국의 법령들에 대해 상세한 주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석집에 들어 있는 생명윤리 관련 법령의 주석을 번역하여 법령 번역 사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미국의 주(州)법 및 각국의 판례 소개

미국의 경우 연방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주법에 대해서도 수집, 분석 및 번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의 주법과 연방법과의 관계는 HIPAA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특별히 연방법의 규율 사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한, 각 주는 연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배제하는 주법을 제정함으로써 연방법과 다른 규제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Privacy Rule의 경우에도 만일 주법이 연방 규정인 Privacy Rule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정도의 개인 식별 의료정보 규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이를 연방 규정의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법의 내용을 존중할 것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환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법의 연구는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판례법 국가의 경우 판례도 법이므로 관련 판례에 대한 수집, 분석 및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정책동향 연례 보고서

1) 취지 및 의의

가) 필요성

국내 연구자들이 관련된 해외 연구에 대한 국가별 정책 동향 및 연구 동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관련 정책 입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연구 진행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센터는 정책동향 연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다. 1차년도 사업(2006-2007)에서는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줄기세포연구 부분과 유전자관련 부분에 국한하여 조사·정리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동향 연례보고서는 백서의 성격을 지녀 다양한 이슈를 모두 조사·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생명윤리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대효과

줄기세포와 유전자 관련 부분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생명공학 및 과학 연구가 생명윤리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제적인 연구 수준에 도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내 법률 및 각종 가이드라인의 정비에 기여하고, 향후 제정되어야 할 정책 방향이나 지침에 대한 자료로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 진행 과정

가) 줄기세포에 대한 동향 조사

(1) 주요 참고 문헌과 사이트

줄기세포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은 언론사의 뉴스와 각국의 해당 부처의 보고서 및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먼저 줄기세포 관련 국내 정책 및 연구동향은 다음의 문헌과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 자료, 2006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보도자료, 2006년 3월 13일 보도자료, 2006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6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6.06.1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136호, 배아 폐기 관련 국민일보 기사(5. 25)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각종 자료 (<http://www.mohw.go.kr>)를 조사하여 줄기세포 관련 정책 동향에 활용하였다. 특히 줄기세포 관련 국내 연구 및 임상시험 현황과 연구기관 근황 등에 관하여는 국내 주요 언론사의 관련 보도자료를 활용하였다.

세계 각국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지원 및 입법 현황은 다음의 문헌과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미국의 경우, New York and Stem Cell Research: a Scientific,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미국 각 주별 동향 파악), www.advisorybodies.doh.gov.uk/uksci/global/index.htm (미국 각 주별 줄기세포 관련 입법 및 연구지원 상황), <http://www.eurekalert.org,2006> (뉴욕의 줄기세포 관련 동향) 등을 참고하였다. 유럽의 경우,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bioethics in member states, oth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rasbourg, 19 April 2006, STEERING COMMITTEE ON BIOETHICS, the European Group on ethics: http://europa.eu.int/comm/european_group_ethics, ETHICALLY SPEAKING/Issue No6, European Commission, 2006 등을 참고하여 줄기세포 관련 동향을 조사하였다. 특히 영국은 www.advisorybodies.doh.gov.uk를 추가로 조사하였고, 스웨덴은 Swedish national Ethics Council: www.smer.gov.se과 Swedish Research Council: www.vr.se/english/를 조사하였다. 독일의 경우, National Ethics Council: www.nationalerethikrat.de Central Thics Commission of the German Medical Association: www.aerzteblatt.de를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프랑스는 National Consultative Bioethics committee: www.ccne-ethique.fr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벨지움의 경우, Belgium National Consultative Bioethics Committee: www.health.fgov.be/bioeth를, 덴마크는 Council of Ethics: www.etiskraad.dk를 참고하였다. 유럽연합의 줄기세포관련 동향은 Council of Europe, Steering Committee on Bioethics (CDBI):2006 www.coe.int/T/E/Legal_co-operation/Bioethics/를 추가로 참고하였다. 아시아는 <http://www.advisorybodies.doh.gov.uk/uksci/global/index.htm>도 함께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발간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각국의 입법/지원 동향”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5.12)과, 국내의 주요 언론사의 줄기세포 관련 보도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2) 국가 별 선정 기준

국가별 줄기세포 관련 현황은 크게 국내와 국외로 나누었다. 먼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과 임상시험, 국내 연구 기관의 근황을 살펴보았다.

국외의 경우, 북미와 중남미, 유럽, 아시아, 기타로 나누어 각국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지원 동향 및 입법 동향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국가는 줄기세포연구 진행 여부와 이에 대한 정책 및 입법 움직임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생명공학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관련 업체들의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의 줄기세포 관련 동향은 국외동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미국 각 주의 정책 및 입법 현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주별 관련 동향을 상세하게 나누어 조사하였다.

아메리카는 북미와 중남미로 나누어 각각 미국, 캐나다, 브라질의 3개국의 줄기세포 관련 동향을 조사하였다.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벨지움, 덴마크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유럽연합(EU)의 줄기세포관련 동향을 별도로 함께 조사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 대만, 싱가포르의 줄기세포관련 동향을 조사하였다.

(3) 보도자료 검색 및 정리 방식

줄기세포 관련 각국 연구 동향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의 국내외 주요 언론사의 보도 자료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검색한 기사는 총 64건이며,

각 기사에 관하여 보도자료명, 보도일자, 출처, 리뷰를 작성하였다.

나) 유전자에 대한 동향 조사

유전자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은 유전자치료와 착상전 및 산전 유전자진단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유전자연구는 워낙 다양하고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아직 동물 단계의 연구도 있기에 이를 모두 체계적으로 포괄하지는 않았다.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검사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국의 Department of Energy 산하, Office of Science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설명자료를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현황을 소개하였는데, The Journal of Gene Medicine에서 제공하는 “Gene Therapy Clinical Trials Worldwide”란 웹사이트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유전자치료, 착상전 및 산전 유전자진단에 대한 각국의 현황은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각국의 법률과 관련 운영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유전자치료부분에 관한 운영지침 및 제도보완 방안마련』(권복규, 김현철, 정성철, 장영민, 보건복지부 정책연구과제, 2006. 8. 31.)을 참조하여 본 보고서의 구성에 맞게 활용하였다. 그밖에도 구영모, “유전자치료: 기술적 난점, 규제 현황, 윤리적 쟁점”, 『의료·윤리·교육』, 2002, 5권1호, Susannah Baruch, et al., *Human Germline Genetic Modification: Issues and Options for Policymaker*, Genetics & Public Policy, 2005, 독일 국가윤리위원회에서 펴낸 *Genetic diagnosis before and during pregnancy*, German National Ethics Council, 2003 등을 참고하였다. 각국의 법령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수행하였던 각국의 생명윤리 관련 법령 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였고, WHO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참조하였다. 국내 현황에 대해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 자료 등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www.mohw.go.kr>)를 바탕으로 참고하였다. 각국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주로 국내외 언론사의 유전자관련 보도자료를 활용하였다.

(1) 국가 별 선정 기준

국가별 유전자 관련 현황은 유전자치료, 착상전 유전자진단, 산전 유전자진단을 중심으로 우선 우리나라의 정책을 정리하고 연구 동향은 주로 유전자치료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물론 언론에서 보도된 유전자연구 관련 현황도 정리해 두기는 했다. 해외의 경우, 모든 나라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만 정리하였는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만을 정리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일본만을 정리하였다.

(2) 보도자료 검색 및 정리 방식

유전자 관련 각국 연구 동향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의 국내외 주요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검색한 기사는 총 45건이며, 각 기사에 관하여 보도자료명, 보도일자, 출처, 리뷰를 작성하였다.

3) 동향에 대한 평가

가) 줄기세포에 대한 개괄적 리뷰

각국의 줄기세포 연구와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인간 배아와 관련된 모든 연구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에서는 불임 치료 후 남겨지는 잔여배아에 대한 연구는 허용하고 복제에 의해서든 수정에 의해서든 연구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엄격한 법적 통제 및 감독 아래서 복제 연구를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연구가 매우 활발하였으나, 2005년 11월 황우석사태 이후 이에 대한 관련 정책 및 지침 등 논의와 수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6년 2월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황교수팀의 난자제공상 윤리적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전체회의 개최하여, 여성의 난자 제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유전자검사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이 유전자 지침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추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대통령령으로 지침의 내용들을 반영할 예정에 있다.

2006년 3월 23일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법개정안 등을 확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이종간 핵이식 금지, 줄기세포의 인간배아 이식 금지, 줄기세포주연구, 유전자연구 등에 대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2006년 4월 25일에 범부처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이를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다양한 줄기세포 관련 제품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2006년 5월 29일에는 과기부, 교육부, 산자부, 복지부 등 4개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줄기세포 종합추진계획안’을 최종 심의·확정하였으며, 2006년부터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약 4,300억 원을 줄기세포연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연구 및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식약청 제대혈 유래 간엽줄기세포 연구자 임상 시험과 간경화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전임상시험,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급성 심근경색 치료용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 시험, 성체줄기세포의 이식을 이용한 뇌졸중 치료 임상연구 등이 승인되었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폐질환 치료제, 인간 단백질 성장인자 추출 기술, 인공결막 및 인공각막상피 재생 기술, 성체줄기세포 늘리는 기술 등이 개발되었다.

미국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미국의 여러 주 의회들이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승인하거나 고려한 것이 60억 달러 이상이 되며, 2005년도에 미정부는 1억 6천만 달러, 한국 돈 약 1,552억 원을 줄기세포 연구에 지원했다. 캘리포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가 줄기세포 연구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의욕만큼 진전은 없는 상황이며, 주민투표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 지지를 얻어낸 캘리포니아는 소송으로 연구기금 마련이 늦어지고 있으며 메릴랜드 주는 부지사가 줄기세포 연구를 나치의 생체실험과 비교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각 주의 정책 입안자들이나 결정권자들의 입장에 따라 줄기세포 지원이 각 주의 사정에 맞춰 매우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주에서는 단지 배아나 태아에 관한 법률로 줄기세포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고, 몇 개 주에서는 배아나 태아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금지하고 있기도 하며, 몇몇 주에서는 금지의 범위가 불분명하기도 하다.

캐나다에서 줄기세포 연구는 다양한 건강관련 자선단체들과 산업계 등의 지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줄기세포 연구는 역사적으로 주로 성체줄기세포에 대하여 이루어져왔는데, 그러나 2004년 법률 통과 후에 일부 캐나다에서 추출되어진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한편 오랜 논쟁 끝에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4년 3월에 생식 또는 치료 목적의 인간복제를 금지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유럽에서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 정책은 극명하게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영국,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선두에 있는 반면 스위스나 독일, 스페인과 같은 나라에서는 연구 금지나 제한으로 이 분야에서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현재 EU 25개 회원국 가운데 인간줄기 세포 연구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인간줄기세포 연구를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벨기에, 영국, 스웨덴은 치료목적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는 줄기세포 연구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 많은 나라에서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제한들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프랑스나 스페인의 경우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하고 있다고는 하나 개인 연구자들이나 연구소들은 줄기세포연구를 하고 있으며 Euro Stem Cell과 같은 유럽 전역을 선도하고 있는 연구소와 동반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브라질의 경우, 브라질은 2005년 4월에 인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법안(Bio-safety bill)이 의회에서 10년간의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후에 브라질 정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위한 기금 2500만 파운드의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브라질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입법이 최근에 이루어져 줄기세포 연구는 매우 초기 단계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보조생식의 학 기술은 상당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연구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의 줄기세포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에서는 최근 중국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를 특별

투자 분야로 책정하였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연구 환경이 개선된다면 중국은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서 서구에 버금가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1998년 법률에 의하여 생식 목적의 복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반면 치료 목적의 복제에 의한 새로운 인간배아 줄기세포 주의 생산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느슨한 법률로 인하여 중국이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 초강국이 되지 않을 까 서구 사회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자국의 배아를 원천으로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였고, 그 이전에는 연구자들은 수입된 줄기세포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불임치료에 쓰다가 수정되지 않은 난자만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담은 복제기술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또 사람의 수정란에서 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한 기관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에 한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 연구에 조건을 달고 있다.

싱가폴은 정부는 영국의 줄기세포 연구관련 법률을 입법 모델로 채택하여, 줄기세포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하여 허가제를 도입하고 생명의학 성장과 벤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세금우대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영국의 복제양 돌리를 만든 연구 팀의 일원이었던 과학자등과 같은 외국의 연구자들도 영입하였다.

인도는 치료용 복제는 허용하고 인간 생식 목적의 복제는 불허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줄기세포연구 분야에서 비교적 새로운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몇몇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고무적인 연구결과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공적 및 사적 지원금을 늘리고 과학의 기초를 배가하고 숙련시키려는 인도 정부의 노력들이 조만간 인도의 줄기세포 연구 분야를 세계적인 위치로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정부가 관여하는 Industrial Technology Institute는 줄기세포 연구에 투자를 통해 국가 생명공학 부분에 시동을 걸려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2002년에 제정된 배아 줄기세포 연구 관련 법률에서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 2002년에 제정된 법률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어 이 검토를 바탕으로 치료목적

의 인간배아복제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개정이 마련되었고 2006년 12월 8일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호주 의회를 통과하였다.

호주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 기금은 협력 기업으로부터 오는 것 등 다양한 기획에 의해 주로 호주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의해서 조성되었다. 호주의 줄기세포 연구는 주로 조혈작용, 심장 재생과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영국과의 과학연구 협력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줄기세포 연구 분야도 성공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나) 유전자에 대한 개괄적 리뷰

유전자치료와 관련하여 2007년 5월 15일까지 파악된 허가받은 임상시험은 총 1283건이었으며, 이중 미국이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은 영국이었다. 이 두 국가가 전체 임상시험의 77%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은 허가 받은 임상시험이 4건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신청 중인 임상시험은 포함되지 않았다.

각국은 임상시험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도 기본적으로는 각국의 약사법이나 임상시험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유전자치료에 대한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각국마다 사정이 달랐다.

유전자검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도 많이 있으나, 좀 더 첨예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착상전 유전자진단과 산전 유전자진단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각국의 법률이나 가이드라인 역시 일관된 형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미국의 경우, 착상전 진단에 대한 미국은 연방법은 없었고, 주별로 의학적 지침에 근거해서 허용이 결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협회나 학회 차원의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했고 이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산전 진단의 경우도 미국 소아과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었다.

유럽의 경우, 착상전 진단을 법률 허용하는 국가로는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이 있고, 법률로 규제되지 않아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국가가 벨기에, 사이프러스,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이 있다. 법률로 금지된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이고 독일로

명시적인 법은 없으나 배아보호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률은 없으나 헌법으로 금지됐다고 볼 수 있는 국가로 아일랜드가 있다. 유럽에서 산전 유전자진단 역시 다양한 형태로 규제되고 있었다. 영국과 독일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었고, 프랑스는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착상전 진단과 마찬가지로 산전 진단의 경우도 승인된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유전자치료에 대한 법률은 없고 지침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으며, 착상전 또는 산전 유전자진단에 대한 법률 역시 없지만 관련 학회의 지침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되고 있었다.

4) 향후 조사에 대한 제언

가) 줄기세포 연구 심의 및 줄기세포주 등록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

세계 줄기세포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ISSCR)을 마련하면서 국내에도 몇 가지 이슈들이 등장했다. 과연 국내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인지, 줄기세포주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느냐 등에 대한 것들이다.

2차년도 사업에서는 이 두 주제에 대한 해외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문제들에 대한 현황이 조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심의 대상 연구, 심의 절차, 승인 기관 등
-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심의 대상 연구, 심의 절차, 승인 기관 등
- 줄기세포주가 확립된 후, 줄기세포주의 등록과 관리는 어떻게 하며, 어디에서 하는가?

나) 향후 유전자 관련 동향 조사에 대한 제언

유전자 관련 부분은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법률과 가이드라인의 현황을 조사하고 일부 국가의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나 각국의 운영 현황을 모두 상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세부적인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각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의 조사도 존재 여부 정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규제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부족한 점들이 2차년도 사업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차년도 사업에서는 유전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좀 더 상세히 조사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

- 주요국들의 유전자치료에 대한 규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 주요국들에서 착상전 및 산전 유전자진단에 대해 운용되는 법률 또는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무엇인가?
- 미국, 유럽 주요국 및 아시아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진단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는가?
- 각국의 유전자연구에 대한 관련 법률은 무엇이고, 연구를 어떻게 심의하고, 관리하는가?

다. 익명화

1) 취지 및 의의

가) 필요성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유전자은행이 정의되어 있고,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하는 규제 내용은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제42조에서는 “유전자은행은 수집한 모든 검체등을 익명화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익명화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익명화 방안의 표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은행 뿐만 아니라 인간의 검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상정보나 유전정보 등을 수집·보관·관리하는 여타 기관도 이를 참고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기대 효과

익명화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둘째, 연구에 제공되는 검체 또는 검체에 부착된 임상정보 및 유전정보의 효율적 관리

셋째,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도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한 검체 및 부착 정보의 관리 체계 확립

넷째, 향후 유전자은행 및 바이오뱅크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시 검체 및 부착 정보 관리의 효율성

증진

2) 연구 내용

가) 초기 연구 방향과 범위

- 의료 정보학과 익명화 방안의 분리 필요성
- 검체 은행의 가이드라인은 별도 연구를 통해 수행
- 익명화 방안 자체에 대한 보고서로 성격 결정

나) 최종 연구 내용과 범위

- 익명화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
- 개인정보 익명화 방향, 절차, 관리지침 마련
- 외국 유전자은행 사례연구
- 유전정보 관리 절차수립

3) 사업 진행 내역

가) 과제수행체제

과제 수행을 위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되었다.

- 연구의 전반적 관리 및 진행 책임, 최종 보고서작성 : 최경석
- 익명화의 법률적 고려사항 및 효율성 점검 : 김현철
- 기초자료 수집 및 자문 제공
 - 유전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저장에 관한 방법 마련 : 강민아
 - 유전자 정보의 암호화와 보안에 관한 방법 모색 : 임시근
- 전문적 자문 제공 : 김수진, 진승현, 차정학 등
- 연구자료 검색 및 연구 수행 보조 : 모효정

나) 과제진행 세부일정

(1) 2006년 9월 4일 익명화 과제 시작

(가) 익명화 사업에 관한 일정표 작성

- 운영위원진 구성과 수행업무 파악
- Working Group 구성원 후보 물색
- 총 회의일정 및 계획 구성

(나) 자료수집의 방법 구상

(2) 2006년 9월 18일 공동연구원 최종 선정

(가) 공동연구원 선정 : 강민아, 김현철, 임시근, 최경석

(나) 정책협의회 1차회의 일정 결정

(3) 2006년 9월 28일 정책협의회 1차회의

(가) 역할 및 문헌검색의 분담

- 익명화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한 자료 수집 : 강민아
- 암호화에 관한 자료수집 : 임시근
- 유전자은행에 관한 자료수집 : 김현철
- 익명화에 관한 자료 수집 : 최경석

(나) 자문위원의 추천 : 강민아, 임시근, 모효정

- 암호화와 유전자은행 관련 자문위원 물색

(다) 정책협의회 2차회의 일정 결정

(4) 2006년 10월 11일 정책협의회 2차회의

(가) 자문위원 선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 : 진승헌(디지털ID보안연구팀 팀장)
- 유전자은행을 이용하는 연구자 : 차정학(휴마시스주식회사, 전무이사)
- 의료정보학 전공자 : 김수진(미국 켄터키대학 의과대 바이오정보학 교수)

(나) 자문위원 위촉

(다) 관련 기관의 방문 여부 확인

(라) 검색된 문헌의 일차 분석과 토론

- 유전자정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상세기술이 있어야 한다.
- 보안과 관련된 중간 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 2006년 10월 23일 자문위원의 방문

(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ID보안연구팀 진승헌 팀장

- 익명화의 코드화 방식과 관련된 기술문서의 검색

(나) 휴마시스주식회사(의약품제조업체) 전무 차정학 이사

- 검체 이용시의 연구자의 요구사항 파악
- 유전자정보에 대한 필요 항목의 제공

(6) 2006년 10월 30일 정책협의회 3차회의

(가) 검색된 문헌의 간략 발표

유전자은행의 일반적인 검체처리과정과 익명화에 대한 개요 확인

(나) 익명화에 대한 방향성 설정

익명화의 범위와 보고서의 작성 내역 설정

(7) 2006년 11월 10일 자문위원의 방문

미국 켄터키대학 의과대 바이오정보학 김수진 교수

- 익명화과정에 대한 자료 제공
- 코드화방법에 대한 자료 검색 요청

(8) 2006년 12월 8일 정책협의회 4차회의

검색된 문헌의 간략 발표

- 익명화에 대한 외국의 사례 검토
- 익명화를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때의 장단점 파악

(9) 2006년 12월 27일 자문위원의 방문

미국 켄터키대학 의과대 바이오정보학 김수진 교수

- 바이오뱅크의 코드화 관련 Protocol 제공
-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 파악
- 보건정보학이나 의료정보학과의 연계성 제기
- 사례 연구(case study) 제안

(10) 2007년 1월 익명화 방안 연구의 내용 확정

익명화 연구의 구체적 내용 결정

- 익명화와 의료정보학 관련 연구의 분리
- 유전자은행의 일반적 운영지침 내용과의 분리

(11) 2007년 3월 23일 익명화 방안에 대한 초고 완료 및 내부 검토 회의

초고 완성 및 내부 검토 회의

(12) 2007년 4월 5일 익명화 방안에 대한 초고 검토 회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과장 및 담당사무관 검토

- 사용하는 용어는 현행법 및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
- 실무자들로부터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 받을 것
- 병리학회 등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방법 모색

(13) 2007년 4월 12일 익명화 방안에 대한 1차 의견 수렴

- 김한겸 교수가 수행하는 검체 은행의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회의 참석
- 회의에 참석한 병리학회 회원 및 프로젝트 연구자들로부터 의견수렴

(14) 2007년 4월 26일 익명화 방안에 대한 2차 의견 수렴

- 대한병리학회가 참여하는 기초의학회 심포지움에서 발표 및 의견 수렴
- 2007년 4월 일 대전 건양대학교

(15) 2007년 5월 18일 익명화 방안에 대한 전산 전문가 자문

-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의 한복기 팀장과 주민석 연구원 방문
- 고유식별번호 부여에 대해 주민석 연구원의 의견 수렴
- 바코드 등의 고유식별번호 체계에 대해 논의

<표 4-3-1> 과제진행 일정

일시	제목	내용
2006.09.04	익명화 과제 시작	일정표 작성, Working Group 결성
2006.09.18	공동연구원 선정	강민아, 김현철, 임시근, 최경석
2006.09.27	정책협의회 1차회의	역할 및 문헌 검색 분담, 자문위원 추천
2006.10.11	정책협의회 2차회의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검색된 문헌 공유
2006.10.23	자문위원 방문	암호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진승헌) 유전자정보에 대한 연구자들의 요구사항 제공(차정학)
2006.10.30	정책협의회 3차회의	문헌 간략 발표와 방향 설정
2006.11.10	자문위원 방문	익명화와 코드화에 대한 정보 제공(김수진)
2006.12.08	정책협의회 4차회의	익명화에 대한 외국 사례의 분석
2006.12.27	자문위원 방문	익명화와 코드화에 대한 문헌 제공(김수진)
2007.02.07	정책협의회 최종회의	익명화 방안 연구의 방향 확정
2007.03.23	원고(초안) 완성 및 검토회의	연구진 초안 검토 회의
2007.04.05	원고검토회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과장 및 담당 사무관 회의
2007.04.12	익명화 방안 검토 1차	유전자은행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김한검) 모임 참석 발표
2007.04.26	익명화 방안 검토 2차	기초의학회(대전건양대), 익명화 방안 발표 및 검토
2007.05.18	익명화 방안 검토 및 자문	익명화 방안에 대한 전산 전문가 자문 (유전체센터)

4) 익명화 방안에 대한 간략 소개

가) 익명화 방법

개인식별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식이 아닌 복원가능한 방식으로 익명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 익명화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개인식별정보의 복원은 연구자가 필요시 검체기증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잇점이 있고, 개인식별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익명화가 가능한 방법이다.

나) 익명화 절차

(1) 개인정보로부터 개인식별정보의 분리

검체 획득 후 유전자은행의 보안담당자는 검체에 부착된 개인정보(개인식별정보, 임상정보, 유전정보 등)으로부터 개인식별정보를 분리해 낸다.

(2) 개인식별정보 파일의 암호화

개인식별정보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되, 보안담당자는 이 파일을 암호화한다.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접근은 보안담당자의 인증키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인증키가 있어야만 열릴 수 있도록 한다.

(3) 검체에 고유식별번호 부여

검체에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한다.

(4) 검체 부착 정보의 DB화 및 고유식별번호 부여

검체 제공자의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보안담당자는 검체 부착 정보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검체별로 부착된 정보의 파일에 검체 고유식별번호에 확장명을 붙인 파일명을 생산한다.

다) 고유식별번호 부여 방식

기본적으로는 기관별 자율성을 부여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을 권장함.

EH-HS-001-0-008-04

5) 향후 사업에 대한 제언

현재 유전자은행과 관련된 쟁점들이 중심으로 향후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한 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 주요 쟁점

현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검체에 대한 용어로서의 “인체유래 생물자원”이란 표현에 대한 상이한 의견들이 있다. 심지어 “인간유래 생명자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해가 없는 정확한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 생물자원은 정보 자원이므로 이에 따른 산업 정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물자원은 일반적인 광물자원과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모아진 자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자원은 단순한 검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물자원에는 검체에 부착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는 아무나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의 자원은 아니다. 따라서 정보자원으로서의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 기준과 그것을 공유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정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유전자은행 및 바이오뱅크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이 때 정보 보호에 대한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나) 향후 연구 과제

이상의 쟁점들에 대한 연구로서 향후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 검체은행간의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운영 지침 및 정보 보호 대책 연구
- 정보자원으로서의 생물자원 통합 관리에 따른 운영 지침 및 정보 보호 대책 연구

라. 생명윤리기본법 프로젝트

1) 기본법의 개념과 필요성

가) 기본법의 개념

기본법에 관한 확립된 개념 정의는 없지만, 학설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 어떤 분야의 정책에 있어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법
- 같은 법률임에도 어떤 특정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을 경우, 그러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법
- 실생활에 있어서 광범위한 역할을 발휘하는 개별법 내지 복수의 법률들로 구성된 법군(法群)

소위 ‘생명윤리기본법’이라 함은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법을 일컫는 것으로, 위의 세 가지 개념 정의 중에 첫 번째 정의에 따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나) 기본법의 필요성

생명과학기술 분야를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는 개별 법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각각의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발전 속도가 일정치 않은 관계로 해당 기술 분야를 규율하는 규범도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과 각 기술 분야에 따라 규제 목적 및 규제 수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법률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 각 기술 분야별 법률들이 중복되는 분야의 존재 가능성 및 그에 따른 규범 충돌의 문제 및 관련 집행기관간의 권한쟁의 발생 가능성
- 각 기술 분야별 법률들 중 어느 것으로도 규율되기 곤란한 분야의 존재 가능성 및 그에 따른

규제 공백의 발생 가능성

- 개별 법률들 간의 체계 정합성의 저하 및 그에 따른 연구자 내지 일반 시민의 법에 대한 몰이해 가능성

따라서 생명과학기술 분야를 규율하는 일련의 개별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보다 일반적인 법정책의 밑그림을 제공하는 총괄·조정·관리 법률로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분야가 아닌 기술 단계의 차이에 따른 차등 규제의 필요성도 현재의 개별 법률 체계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규제 모델을 실행한 결과,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생명윤리 영역이 각각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정률>(이하 『생명윤리법』), 『약사법』, 『의료법』의 영역 등으로 분할되어 고립됨으로써, 현행 『생명윤리법』은 임상 연구나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예컨대 응급 임상 또는 말기 환자 임상, 치료 중단 및 거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낙태, 대리모 문제 등 종래 대표적인 생명윤리 문제로 분류되어 온 사례들과 단절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술 단계의 차이에 따른 생명윤리 영역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 규제 모델로서의 기본법이 각각의 개별법들과 함께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의 관계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연구 및 유전자 연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생명윤리가 문제되는 여러 분야들에 대한 총괄 규범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몇 가지만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 현행 『생명윤리법』이 예상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연구 및 기술 영역이 개발될 때마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예) 성체줄기세포의 연구,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생식세포를 만드는 연구 등

- 『생명윤리법』과 다른 법률들(예컨대 『형법』, 『모자보건법』 등) 간의 체계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예) ‘배아’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의함으로써 한 법률에서는 ‘배아’로 취급되던 존재가 다른 법률에서는 ‘태아’로 취급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생명안전의 문제에 대한 규율이 빠져 있어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분야에 대한 규율이 불가능하다.

예) 이종이식과 인수공통감염성 질환의 문제

라) 외국의 입법례와 국제 규범

외국의 경우에도 생명윤리 분야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일반법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생명과학기술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발달하기 시작한 분야이니만큼, 그러한 기술의 연구 및 적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외국의 입법례는 특정한 몇몇 연구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기본법의 위상에 근접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연방 규정인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Subjects(연구 대상자 보호에 관한 규정, 45 CFR 46 Subparts A · B · C · D, 소위 Common Rule)를 두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 방향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규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인간이 연구피험자가 되는 경우 즉 임상 단계에서의 규율에 있어서는 기본법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임상 단계나 치료 단계의 경우를 포함한 기본법 모델을 염두에 둔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규정은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 자금의 출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금을 사용한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미국의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한 윤리적 타당 근거 및 제도적 우월성 등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에는 Loi relative au respect du corps humain(인체 존중에 관한 법률, Loi n° 94-653 du 29 juillet 1994)과 Loi relative à la bioéthique(생명윤리에 관한 법률, Loi n° 2004-800 du 6 août 2004)가 생명윤리 일반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다.

인체 존중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생명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인간중, 인체 및 인간 배아의 보호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프랑스의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에서 윤리, 생명의학, 인체유래물의 사용·보존·수입·수출, 인체유래물에 대한 특허, 유전자 치료제 및 세포 치료제, 산전 진단, 보조생식술, 배아 연구, 우생학적 차별 및 인간개체 복제의 금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그야말로 망라적인 의미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률의 구성 조문 중 상당수가 타 법률들에 대한 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이 법률들만으로는 프랑스의 생명법 체계 일반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며,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본법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인다.

(3)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은 한 국가가 생명윤리 분야의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정한 국제적 윤리 규범이다. 따라서 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법의 구상을 위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언의 목적 조항(제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가 생명윤리 분야의 법률, 정책 수립에 지침이 되는 원칙과 절차의 보편적인 틀 제공(제1호)
- 개인, 집단, 공동체, 기관, 공적 또는 사적 기업의 행위에 대한 지침 제공(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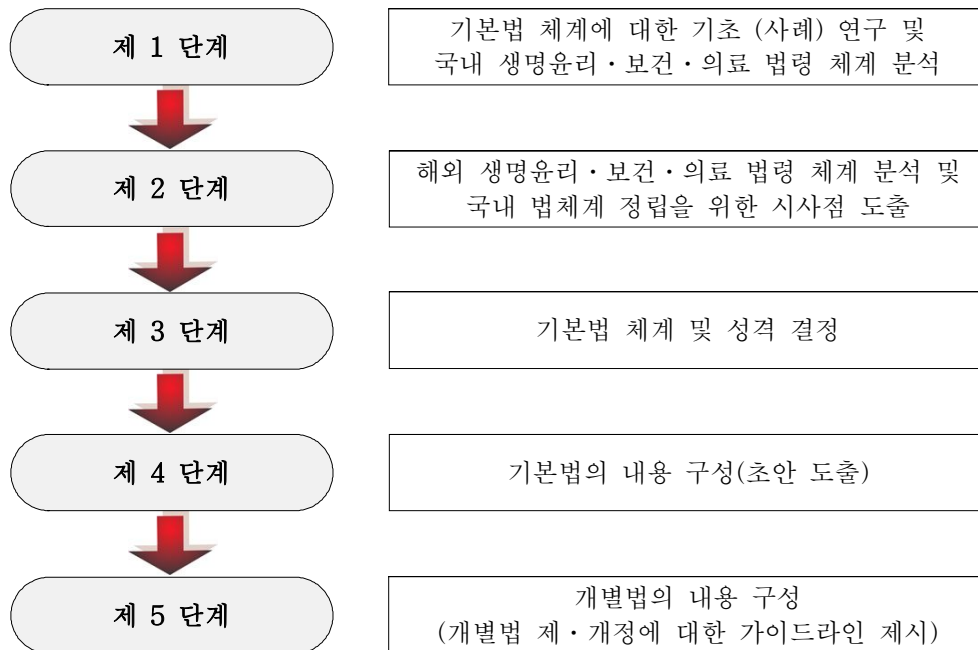
-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간 생명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 인간 존엄성의 존중 및 인권 보호(제3호)
- 과학 연구의 자유 및 그로 말미암은 이익과 동시에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연구 수행 강조(제4호)
- 생명윤리 문제에 관한 이해 당사자들 및 시민 사회 간의 대화 촉진(제5호)
- 의학, 과학, 기술 발달의 이익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촉진(제6호)
-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의 보호·증진(제7호)
- 생물다양성과 보전의 중요성 강조(제8호)

다만 191개 유네스코 회원국의 만장일치 채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부분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했던 만큼, 그 내용적 정합성은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단히 기본법의 모델로 삼을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2) 사업의 내용

가) 사업 체계

(1) 연구의 단계



<그림 4-4-1> 기본법 프로젝트 추진 단계

(2) 연구의 쟁점

<표 4-4-1> 기본법 프로젝트의 핵심 쟁점

쟁점	선택지
쟁점 1 : 규제 모델의 채택	법령에 의한 규제/행정적 규제/자율적 규제
쟁점 2 : 규제 범위의 채택	생명과학/의과학, 연구/치료, 생명윤리/생명안전/연구윤리
쟁점 3 : 규제 내용의 채택	단순 규제/지원/구성

(3) 연구 수행 방식

연구자별 분담 세부 주제의 연구·발표를 통해 기본법의 핵심 쟁점 사항들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진척시킨다. 세부 주제별 연구 성과는 기본적으로 이원적 회의 진행에 따른 피드백 (feed-back) 작업으로 수렴된다. 즉 전체 기본법 회의를 통해 이론적 기초 연구를 진행하며, 이 기초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내부 연구진만으로 구성된 기본법 TFT가 실무적 축조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TFT가 축조한 안(案)을 전체 기본법 회의를 통해 검토·확정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초 연구를 통한 문제 제기와 해소 방안이 실제 법안의 형식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4-2> 기본법 프로젝트 수행 모델

나) 연구진 구성

연구진은 센터 소속의 내부 연구진과 센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법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연구진 그리고 해외 입법 및 제도 현황에 관한 문의에 수시로 응할 수 있는 (국외) 자문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내부 연구진

센터 공동연구자 2인과 센터 소속 박사후과정연구원 1인으로 구성되었다. 내부 연구진은 또한 기본법 TFT를 이루어 기본법 프로젝트를 위한 입법 기초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전체 기본법

회의의 연구 성과를 조문화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표 4-4-2> 내부 연구진 구성 현황

성 명	소속 및 지위	전공 분야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센터 공동연구자)	법철학, 생명법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센터 공동연구자)	생명윤리학
박준석	센터 박사후과정 연구원	법철학

(2) 외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은 생명윤리 및 생명안전의 문제와 관련 있는 세부 전공의 법학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외부 연구진은 내부 연구진과 더불어 전체 기본법 회의를 구성하고, 각자 세부 주제를 분담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표 4-4-3> 외부 연구진 구성 현황

성 명	소속 및 지위	전공 분야
박수현	강원대학교 교수	행정법, 과학기술법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미국법, 과학기술법
이석배	경남대학교 교수	형법, 의료법
김호기	서울대학교 BK 박사후 연구원	형법
고봉진	Frankfurt Univ. 박사	생명법, 형법

(3) 자문 연구진

자문 연구진은 내부 연구진과 외부 연구진의 문의에 응하여 국가별 생명법 체계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수시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국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표 4-4-4> 자문 연구진 구성 현황

성 명	소속 및 지위	전공 분야
임상혁	숭실대학교 교수	민법, 일본법
김미경	Stanford Univ .post-doctoral researcher	의학, 의료법
한동훈	Paris 2대학 chercheur invité	프랑스 헌법
송윤진	Basel Univ. 박사과정	법철학, 생명윤리와 법
이정념	Goettingen Univ. 박사과정	생명법, 형법

다) 세부 연구 주제 목록

<표 4-4-5> 세부 연구 주제 분담 현황

주 제 명	담당 연구진
기본법-개별법 체계의 구성 모델	박수현
기본법 관련 행정 및 감독 체계: 기관과 절차를 중심으로	박수현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미국을 중심으로	박경신
연구 피험자의 인권	최경석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보호	이석배
인간종의 정체성 보호: 키메라 형성의 금지를 중심으로	김호기
생명과학연구와 생명안전의 문제	김현철
IRB 모델과 윤리위원회 모델의 비교 연구	최경석
유네스코 선언 및 의협 지침의 분석	이석배
줄기세포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연구: 독일을 중심으로	고봉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	박준석

3) 로드 맵

가) 경과(2007년 1월 - 2007년 5월)

(1) 전체 기본법 회의

<표 4-4-6> 제1차 기본법 회의

일 시	참석 인원	내 용
2007. 1. 22.	박수현, 박경신, 김현철, 이석배, 최경석, 박준석, 김유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 프로젝트 구성원 소개 ○ 세부 연구 주제 분담 ○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계획(최경석)

<표 4-4-7> 제2차 기본법 회의

일 시	참석 인원	내 용
2007. 2. 12.	박수현, 박경신, 김현철, 이석배, 최경석, 김호기, 박준석, 김유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의 개념 · 필요성 · 모델(박수현) - 국내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문제점(이석배) - 해외 생명윤리 관련 법제현황(박준석) - 생명윤리기본법의 쟁점(김현철)

<표 4-4-8> 제3차 기본법 회의

일 시	참석 인원	내 용
2007. 3. 12.	박수현, 박경신, 김현철, 이석배, 최경석, 김호기, 박준석, 권복규, 김유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PAA와 Privacy Rule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연구(박경신) - IRB 등 관련 위원회에 관한 고찰(박수현) - 생명윤리와 자율성의 문제(이석배) - 인간중의 정체성과 키메라 생성 I(김호기) - 생명 존중과 인간 존엄의 관계(최경석/박준석)

<표 4-4-9> 제4차 기본법 회의

일 시	참석 인원	내 용
2007. 3. 26.	박수현, 박경신, 김현철, 이석배, 최경석, 김호기, 박준석, 김유석	○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 - 기본법 로드맵 보고(김현철/박준석) - TFT 회의 구성 제안(박준석) ○ 주제 발표: - 기본법에 규정될 위원회에 관한 고찰 (박수현) - 인간중의 정체성과 키메라 생성Ⅱ(김호기)

<표 4-4-10> 제5차 기본법 회의

일 시	참석 인원	내 용
2007. 4. 16.	박수현, 김현철, 이석배, 최경석, 김호기, 박준석, 권복규, 김유석	○ 주제 발표: - 생명윤리기본법 기본 체제에 대하여(김현철) - 생명윤리기본법 TFT 1, 2차 회의 보고(박준석)

<표 4-4-11> 제6차 기본법 회의

일 시	참석 인원	내 용
2007. 4. 30.	박수현, 이석배, 최경석, 김호기, 박준석,	○ 주제 발표: - 기본법에 규정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관한 고찰(박수현) - 기본법의 이념: 원칙과 규제의 또다른 구성 방법(김호기) - 대한의사협회윤리지침 검토(이석배)

<표 4-4-12> 제7차 기본법 회의

일 시	참석 인원	내 용
2007. 5. 21.	박수현, 이석배, 최경석, 김현철, 김호기, 박준석, 김유석	○ 주제 발표: - 기본법에 규정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관한 고찰(박수현) -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분석(이석배)

(2) TFT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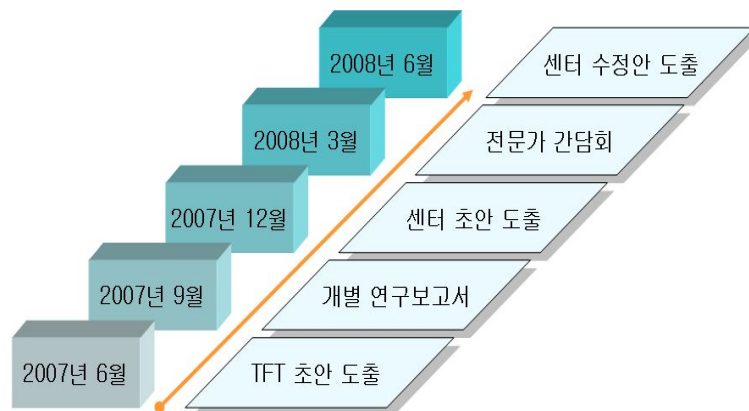
<표 4-4-13> 제1차 TFT 회의

일 시	참석 인원	내 용
2007. 4. 11.	김현철, 최경석, 박준석, 고봉진	○ 총칙, 관리, 규제, 지원, 절차, 벌칙 등 6개 장별 배치안 1차 작성

<표 4-4-14> 제2차 TFT 회의

일 시	참석 인원	내 용
2007. 4. 12.	김현철, 박준석, 고봉진, 박지윤	○ 총칙, 관리, 규제, 지원, 절차, 벌칙 등 장별 배치안 2차 작성

나) 향후 일정(2007년 6월 -)



<그림 4-4-3> 기본법 초안 도출 일정(2007-2008)

(1) TFT 초안 도출

2007년 6월 중으로 TFT 회의를 속개하여 6월 15일 제8차 기본법 회의 전까지 TFT 초안 기초 작업 및 연구진 회람을 완료하고, 제8차 기본법 회의 당일 연구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TFT 초안으로 확정.

(2) 개별 연구보고서 작성

2007년 9월까지 세부 연구 주제를 분담한 연구진은 개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개별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 TFT 초안의 각 조문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발췌하여 제안 이유서의 형식으로 첨부.

(3) 센터 초안 도출

개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TFT 초안을 최종 점검하고 자구 수정을 거쳐 센터 초안으로 확정. 2007년 12월 중으로 센터 초안과 제안 이유서를 묶어 외부 전문가 그룹에 검토 의뢰.

(4) 전문가 간담회

2008년 3월경 센터가 주관하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 그룹의 검토 결과를 듣고 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

(5) 센터 수정안 도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지적 사항에 대한 센터의 입장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적 사항의 반영에 따른 자구 수정과 체계 정돈을 거쳐 2008년 6월까지 1차 수정안 도출. 이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검토 요망.

마. 시소러스

1) 취지 및 의의

가) 필요성

시소러스는 국내 연구자들 및 일반인들이 생명윤리에 관련된 용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통일적인 번역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 생명윤리가 학문분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자도서관에서 자료검색 시 시소러스는 검색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용어를 잘 모르는 이용자가 브라우징의 차원에서 시소러스를 단어검색으로 사용하거나, 시소러스 한 개의 단어에 대한 관련어, 광의어, 협의어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검색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이게 된다.

나) 기대효과

생명윤리 관련 용어를 시소러스로 정비함으로써 번역어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초보자도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여 국내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2) 진행 과정

가) 자료 획득

2006년 10월 18일 케네디 연구소에서 'ALPHABETICAL LIST OF ALL BIOETHICS THESAURUS KEYWORDS WITH CORRESPONDING MESH TERMS'를 제공받았고

이 자료를 기본으로 시소러스 작업을 시작하였다.

나) 번역 및 검토 작업

시소러스 번역은 김명희 센터 연구 위원이 1월에서 2월에 걸쳐 1차적으로 마무리되었다. 1차적으로 마무리 된 시소러스는 센터의 모든 연구위원이 돌아가며 2월 3월, 4월에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검토하였다.

시소러스 검토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5-1> 시소러스 검토 진행 일정

일 시	제 목	내 용
2006.01.30	시소러스 검토 1차회의	번역된 시소러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최경석, 권복규, 김현철, 박준석)
2006.01.31	시소러스 검토 2차회의	문제 있는 용어번역에 대한 2차 검토 (박준석, 최경석)
2006.02.14	시소러스 검토 3차회의	시소러스 용어 번역의 최종 결정 회의 (최경석, 박준석, 김현철, 박준석, 김명희)
2006.03.20	시소러스 인수인계회의	시소러스 인수인계 결정 회의 (최경석, 박준석)
2006.03.27	시소러스 형태 작업	시소러스 형태로 작업 시작 (나은영)
2006.03.30	프로그래머 작업 개시 결정	DB에 들어갈 시소러스 형태로 가공작업 시작 (강지용)
2006.06.04	시소러스 출력	완성된 시소러스 웹페이지를 통해 출력 (나은영)

다) 입력 작업

시소러스의 항목인 RT,BT,NT,UF,SN 등이 엑셀파일에 컬럼으로 되어있지 않아 DB에 들어갈 형태로 갖추기 위해서는 수작업이 필요했다. 완성된 시소러스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나은영 사서와 강지웅 은아소프트 프로그래머는 2차례의 회의와 전화통화를 통해 시소러스 입력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라) 출력본 인쇄

최종적으로 출력한 시소러스는 출력용도이자 보고용도이고 실제 활용은 DB에서 쉽게 이용 가능하다.

3) 사용방법

가) 홈페이지에서의 사용

이용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소러스를 사용할 수 있다. 시소러스는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클릭하여 들어가면 알파벳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첫 화면에는 영어 표제어와 국문표제어가 보이고 각 항목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영문 광의어(BT), 국문 광의어, 영문 협의어(NT), 국문 협의어, 영문 관련어(RT), 국문 관련어, 영문 참조용어(UF), 국문 참조용어, 설명(SN)이 표시되어 있다.

BT(Broad Term)는 해당 단어의 광의어로 보다 상위개념의 단어를 말하고, NT(Narrow Term)는 해당 단어의 협의어로 하위개념의 단어를 뜻한다. RT(Related Term)는 해당 단어와 관련된 단어를 뜻하고, UF(Used For)는 해당 단어가 대체될 수 있는 참조용어를 의미한다.

시소러스에서 '+'의 의미는 표제어를 각 단어의 '+' 위치에 덧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의미이다.

나) 인쇄용 시소러스의 사용

인쇄용 시소러스의 사용법은 홈페이지에서의 사용법과 같다. 다만 인쇄용은 단어검색을 순차적인 알파벳 검색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다.

4) 향후 사업 일정

가) DB에서의 기술적 문제

현재 시간적인 문제로 시소러스와 전자도서관 검색 사이에 연동이 되어있지 않다. 이것은 프로그램상의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2차년도 사업 시 시소러스를 검색과 연동하면 보다 정확한 자료 검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시소러스 자체 내에서도 BT, NT, RT, SN 항목이 별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시소러스 자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나) 연구부분

2차년도에는 SN을 번역하고 번역어의 다양한 사용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첨부해가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바.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1) 개요

※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작성 사업의 개관, 이 사업과 정보센터 구축 사업 및 법령 번역 사업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4. 가. 법령 번역집 부분 참조.

2) 성과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가 포괄하고 있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 자료는 현재 자문위원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중국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자료를 기준으로 법률 127건, 시행령 및 시행규칙 212건, 선언 및 지침 299건 등 총 638건에 달한다.

<표 4-6-1>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 자료 통계

국가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선언/지침
미국	43건	14건	102건
영국	13건	10건	40건
독일	10건	2건	25건
프랑스	39건	129건	42건
일본	15건	23건	24건
EU	7건	34건	66건
계	127건	212건	299건

※ 작성된 국가별 법령 매트릭스는 별첨 개별 보고서 참조.

3) 향후 계획

정보센터 구축 사업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이자 법령 번역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인 외국의 법령 정보는 어느 한 시점에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조사 시점 이후의 지속적인 갱신 및 보완 작업이 수반되어야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업데이트 작업의 범주 속에는 새로 제정된 법령 정보의 조사·수록 외에도, 매트릭스 시스템 자체의 개선도 포함되므로 금번 작업 수행의 과정에서 밝혀진 기존 매트릭스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가) 매트릭스의 포괄 범위 확대

- 현재 주요 7개국의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정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기타 국가(eg. 호주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 UN 등 국제기구가 주체가 되고 있어서 현재의 매트릭스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헌장, 조약 기타 선언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조사

나) 사용자 중심의 체제 확립

- 현재는 실제 조사를 수행한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국가 부문별로 편집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이를 통일화하는 작업 필요
- 매트릭스를 보고 원하는 법령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매트릭스에 포함되어 있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 자체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를 밝혀주는 작업 필요
- 법령 기타 가이드라인의 인용 약호, 제정 년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필요
-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트릭스와 센터의 DB를 연동시킴으로써 매트릭스가 센터의 법령 정보 DB에 대한 인덱스가 될 수 있도록 함
- 외국어로 되어 있는 법령명에 한글 번역명을 병기하도록 하고, 간혹 한글 번역명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어 법령명을 찾아 병기하도록 함

다) 매트릭스의 분류 항목 등의 개선

- 현재의 매트릭스는 Kennedy Institute of Ethics의 분류 코드를 기본으로 하여 개발한 ‘BPRC 분류표’ 상의 항목 분류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분류 기준이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작업 필요
- 실제로 특정한 항목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많은 법령들이 기타 항목(현 매트릭스 16번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재분류하여 별도의 항목들로 구성하는 작업 필요

사. 생명윤리 교재 (초안)

1) 취지 및 의의

생명윤리 분야의 연구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응용윤리학의 영역에 속하는 특수한 연구라고만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윤리의 문제는 과학적, 윤리적, 법적 측면과 연결되어 있어, 학제적인 접근법으로 연구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국내에 아직 학제적 성격의 접근법을 반영한 교재가 많지 않다는 아쉬움이 크다. 따라서 본 교재는 학제적 성격의 교재를 위한 초안으로 마련하였다.

2) 진행과정

가) 진행과정

본 교재 초안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연구위원인 김현철, 권복규, 최경석이 2007년 1학기에 팀티칭으로 운영하였던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와 법> 교양강좌의 강의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수업은 1주일에 2번씩 총 32회 제공되었다. 한 번의 수업은 총 1시간 15분 진행된다. 본 강좌는 학제적 성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제별로 현황, 윤리적 문제, 법적 문제의 방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현황에서는 생명과학 및 의학연구의 실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명윤리의 관련 주제에 대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에서부터 학자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주제에 이르기까지 포섭하고자 하였다. 물론 모든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한 두 가지의 문제를 심화 문제로 다루었다.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한

국의 현행 법률을 소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률적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법률적 시각에서의 고유한 문제도 다루고자 하였다.

나) 참고문헌

참고문헌 및 강의에 사용한 교재는 다음과 같다.

권복규/김현철. 『생명윤리와법』, 이화여대출판부, 2005.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대출판부, 2000.

그레고리 펜스. 『의료윤리 1』, 『의료윤리 2』. 광연제, 2004.

피터 싱어. 『생명윤리학』. 인간사랑, 2005.

최경석. 『인간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프로네시스, 2006.

3) 집필과정

본 교재 초안은 강의록을 작성하였던 강의 슬라이드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편집하고 필요한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교육 내용과 개념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전달해야 할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기에 이후 생명윤리 교재의 본격적인 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 록

O 센터 활동 일지 (2006.07.01~2007.05.31 현재)

가. 센터 선정

1)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사업 공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63호

2)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최종 선정 공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136호 (2006년 6월 14일)

3) 1차년도 사업 개시

- 사업기간 : 2006년 7월 1일 ~ 2007년 6월 30일

4)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개소식 및 현판식

- 일시 : 2006년 7월 5일(수) 14:3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 참석자 : 양명조(이대 법대 교학부장), 장영민(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장), 변재진(보건복지부 차관), 윤건일(이대 의무부총장), 이대 의과대학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외 20여명

나. 센터 주최 및 주관 학술행사

1) 국제 학술행사 개최

행 사 명	일 시 및 장 소	비 고
유네스코 아태지역 생명윤리 교육회의	2006. 7. 26~28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31호 및 세미나실 (201/202/301/40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부총장, 양명조(이화여대 법과대학장), 장영민(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장) 외 국내 참석자 70여명, Darryl Macer(유네스코 방콕사무소장) 외 해외 참석자 30여명 등 총 100여명 참석

2) 국내 학술행사 개최

행 사 명	일 시 및 장 소	비 고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재평가 토론회	2006. 7. 20 이화-신세계관 101호	맹광호(유네스코 IBC위원), 정형민(중문의대 교수), 전방욱(강릉대 교수), 강신익(인제대 교수), 권혁찬(매이지병원 부원장), 김동욱(연세대 교수), 김희원(한국일보 기자), 한용만(KAIST 교수), 허라금(이화여대 교수) 외 70여명 참석
한국생명윤리학회	2006. 8. 2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사범대학 10-1동) 308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검토 세미나
제1차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2006. 9. 28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의실	권복규 교수 발표 ‘나노기술의 생명윤리적 함의’
제2차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2006. 11. 3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301호	김계성 교수 발표(한양대학교 의대) ‘줄기세포연구의 실제와 전망’
기관생명윤리심의 위원회 운영지침서 설명회	2006. 11. 7 이화여자대학교 SK텔레콤관 컨벤션홀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 약 120여명 참석
제1회	2006. 11. 8	주제: 기계와 생명-기계적 세계관과 현대의

「이화생명포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	생명의 세계관 (연사: 시인 김지하 선생님) - 약 80여명 참석
제2회 「이화생명포럼」	2006. 12. 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31호	주제: 생명의 이해와 생명윤리 (연사: 장희익 선생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녹색대학교 석좌교수)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2006. 12. 7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 황우석 사태 1년 회고 심포지엄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제3차 연구위원 월례세미나	2006. 12. 20 태평로클럽	고인석 교수 발표(이화여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과학의 특성과 과학윤리 : 현황의 분석과 제안(현행 7차 교육과정 중심)’
제3회 「이화생명포럼」	2007. 4. 20 이화여자대학교 학관 110호	주제: 생명과학과 윤리학적 명상 (연사: 박이문 선생님-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특별초빙교수)

다. 외부 학술행사 참석

행 사 명	주 최 및 주 관	일 시 및 장 소	비 고
제8회 세계 생명윤리학회 The 8th World Congress of Bioethics, The 6th International Congress on Feminist Approaches to Bioethics	주최: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ioethics 주관: Chinese Society of Medical Ethics, Chinese Medical Association	2006. 8. 6~9 중국 북경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권복규 교수, 최경석 교수, 김은애 연구원, 박지윤 연구원 참석
BIO KOREA 2006 컨퍼런스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2006. 9. 6~8 COEX Grand Ballroom 및 컨퍼런스센터	* 9월 7일(목) 장영민 교수 발표 ‘Role of Biolaw and Bioethics in Advancing Biotechnology’

			* 9월 8일(금) 권복규 교수 발표 ‘Ethical Use of Human Materials in BT Research’
2006 대한 생화학·분자생물학 회 연수강좌	주최: 대한 생화학· 분자생물학회 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 연합회	2006. 9. 8 서울 아산병원 6층 대강당	권복규 교수 발표 ‘Ethical Considerations in Animal Experiment’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플라자 주관: 한국여성민우회 후원: Global Fund for Women, 생명윤 리정책연구센터	2006. 9. 20~21 서울여성플라자	최경석 교수 발표 ‘난자제공에 대한 법률 규제 및 윤리 심의’
제4회 KAIRB Annual Workshop		2006. 9. 20~21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	김현철 교수 발표 ‘연구윤리의 역사적 배경-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내외 법규 및 지침’
2006 Seoul Symposium on Stem Cell Research	주최: 세포응용연구사업단 후원: 과학기술부	2006. 10. 20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제19회 한국철학자대회 「새로운 교육수요와 철학교육의 대응」	주최: 한국철학회, 철학연구회,대한철학 회,동서철학회,범한철 학회,새한철학회 주관: 철학연구회, 서 울대 철학사상연구소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11. 3~4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인문대학 5동	최경석 교수 발표 권복규 교수 논평 제3분과-실천윤리와 전문직 교육 ‘의료윤리와 전문직 교육’
제1회 「국가지정인체유래 검체 거점은행 국제학술심포지움」	주최: 연구용 동결폐 조직은행, 연구용 간 암검체은행, 한국인 백혈병세포 및 유전 자은행, 한국인 눈조 직 및 실명관련 유전 자은행 주관: 국가지정 인체	2006. 11. 8~9 연세대학교 상남경영관	

	유래검체 거점은행 후원: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보건복지부		
<한국대학세계화(Ⅱ) : 연구윤리> 포럼	주최: 교육선진화운동본부	2006. 11. 24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김현철 교수 토론 ‘연구윤리’ session
제9차 한국의료윤리교육학 회 총회 및 학술대회	주최: 한국의료윤리 교육학회	2006. 11. 24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암연구동 이견희홀	권복규 교수, 최경석 교수, 모효정 연구원 참석
제2회 「한국줄기세포학회 학술대회」	주최: 한국줄기세포학회	2006. 11. 30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	
줄기세포 연구토론회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12. 15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C홀	권복규 교수 발표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 필요성 및 제언’
바이오이종장기개발 사업단 심포지움 「이종이식연구와 생명윤리」	주최: 바이오이종장기개발 사업단, XRC윤리위원회	2007. 1. 19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견희홀	최경석 교수 발표 ‘이종이식연구의 윤리와 규제방안’
2007연구윤리 워크숍	주최: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	2007. 2. 13 연세대학교 상남경영관 로즈우드룸	김현철 교수 발표 ‘배아연구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절차와 ISSCR 가이드라인 소개’
대한의료법학회 준계학술대회 「인체 유래 시료와 관련된 법적 문제」	주최: 사단법인 대한의료법 학회	2007. 4. 21 서울의대 합춘강의실	
기초의학 학술대회	주최: 대한병리학회	2007. 4. 26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의과학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Workshop	주최: 세포응용연구사업단	2007. 5. 1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은명대강당	김현철 교수, 최경석 교수 발표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주최: 보건복지부	2007. 5. 16	

관한법률』 제정(안) 및 『생식세포관리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 정(안) 공청회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컨벤션홀	
생명윤리학회 연차정기학술대회	주최: 한국생명윤리학회	2007. 5. 1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	주제: 체외 수정 및 생식세포 관리에 대 한 고찰 * 최경석 교수 발표 ‘생식세포 관리 방안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중심으로’

라.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

1) DB 구축을 위한 회의 진행

주 제	일 시	장 소
제1차 DB 구축 실무 회의	2006. 8. 1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제2차 DB 구축 실무 회의	2006. 8. 28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제3차 DB 구축 실무 회의	2006. 8. 30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제4차 DB 구축 실무 회의	2006. 9. 5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제5차 DB 구축 실무 회의	2006. 9. 12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의학교육학교실
제6차 DB 구축 실무 회의	2006. 9. 19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의학교육학교실
DB 구성초안 프리젠테이션	2006. 9. 28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교수회의실
제7차 DB 구축 실무 회의	2006. 10. 9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의학교육학교실
서버 설치	2006. 12. 2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13호 서버실

2)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 구성 회의

주 제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제1차 실무 회의	2006. 10. 11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권복규 교수, 모효정 연구원, 강지움 대표 (은아소프트)
홈페이지 임시 수정	2006. 10. 16		
제2차 실무 회의	2007. 4. 4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권복규 교수, 모효정 연구원, 나은영 사서, 강지움 대표 (은아소프트)
제3차 실무 회의	2007. 4. 25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김현철 교수, 권복규 교수, 모효정 연구원, 나은영 사서, 강지움 대표 (은아소프트)

3)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로고 제작 회의

주 제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제1차 아이디어 회의	2006. 10. 13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최경석 교수, 모효정 연구원, 허브지엔 디자이너 2인
제2차 아이디어 회의	2006. 10. 17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최경석 교수, 모효정 연구원, 허브지엔 디자이너 2인

4) 유전정보 익명화 연구과제 추진

주 제	일 시	장 소	참 석 자
working group 1차 정책협의회	2006. 9. 27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최경석 교수, 김현철 교수, 강민아 교수, 국립과학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임시근 연구관, 모효정 연구원
working group 2차 정책협의회	2006. 10. 11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최경석 교수, 김현철 교수, 임시근 연구관, 모효정 연구원
1차 자문회의	2006. 10. 23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전문가: 진승현, 차정학
working group 3차 정책협의회	2006. 10. 30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최경석 교수, 김현철 교수, 강민아 교수, 임시근 연구관, 모효정 연구원
2차 자문회의	2006. 11. 10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전문가: 김수진 교수
working group 4차 정책협의회	2006. 12. 8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최경석 교수, 김현철 교수, 강민아 교수, 모효정 연구원
3차 자문회의	2006. 12. 27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전문가: 김수진 교수
working group 5차 정책협의회	2007. 2. 7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최경석 교수, 김현철 교수, 강민아 교수, 임시근 연구관, 모효정 연구원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회	2007. 2. 26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최경석 교수, 김현철 교수, 방혜자 사무관
원고 검토 회의	2007. 3. 23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최경석 교수, 김현철 교수, 박준석 연구원

5) 생명윤리법령 개정 및 정책 관련 자문회의

주 제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제1차 자문회의	2006. 10. 26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김현철 교수, 최경석 교수, 김영호 사무관, 김성희 주무관 참석
제2차 자문회의	2006. 10. 31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김현철 교수, 최경석 교수, 박경신 교수, 김영호 사무관 참석
제3차 자문회의	2006. 11. 9	보건복지부	김현철 교수, 권복규 교수, 박경신 교수, 김영호 사무관 참석

6)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서 작성 및 검토 회의

주 제	일 시	장 소
제1차 회의	2006. 8. 29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제2차 회의	2006. 9. 7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제3차 회의	2006. 9. 12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제4차 회의	2006. 9. 19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제5차 회의	2006. 9. 27	현대아산병원

7) 생명윤리기본법안 수립작업

주 제	일 시	장 소	참 석 자
1차 전문가 자문회의	2007. 1. 22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김현철 교수, 최경석 교수, 박수현 교수, 박경신 교수, 이석배 교수, 박준석 연구원, 보건복지부 김유석 사무관
2차 전문가 자문회의	2007. 2. 12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김현철 교수, 최경석 교수, 박수현 교수, 박경신 교수, 이석배 교수, 박준석 연구원, 고봉진 박사, 김유석 사무관
1차 로드맵 조율회의	2007. 2. 15	보건복지부	김현철 교수, 박준석 연구원, 김유석 사무관
2차 로드맵 조율회의	2007. 2. 21	보건복지부	김현철 교수, 박준석 연구원, 김유석 사무관
3차 전문가 자문회의	2007. 3. 12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권복규 교수, 김현철 교수, 최경석 교수, 박수현 교수, 박경신 교수, 이석배 교수, 김호기 박사, 박준석 연구원, 김유석 사무관
4차 전문가 자문회의	2007. 3. 26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김현철 교수, 최경석 교수, 박수현 교수, 박경신 교수, 이석배 교수, 김호기 박사, 박준석 연구원, 김유석 사무관
5차 전문가 자문회의	2007. 4. 16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김현철 교수, 최경석 교수, 박수현 교수, 이석배 교수, 김호기 박사, 박준석 연구원, 김유석 사무관
6차 전문가 자문회의	2007. 4. 30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최경석 교수, 박수현 교수, 이석배 교수, 김호기 박사, 박준석 연구원
7차 전문가 자문회의	2007. 5. 21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김현철 교수, 최경석 교수, 박수현 교수, 이석배 교수, 김호기 박사, 박준석 연구원, 김유석 사무관

8) 생식세포관리법안 수립검토 협조

주 제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제1차 회의	2007. 3. 13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김현철 교수, 박준석 연구원, 고봉진 연구원, 보건복지부 이수연 사무관
제2차 회의	2007. 3. 19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박준석 연구원, 고봉진 연구원, 이수연 사무관
제3차 회의	2007. 3. 21	보건복지부	김현철 교수, 박준석 연구원, 고봉진 연구원, 이수연 사무관
제4차 회의	2007. 4. 3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최경석 교수, 권복규 교수, 고봉진 연구원, 박준석 연구원

9) 기타 회의

주 제	일 시	장 소	참 석 자
난자채취 및 제공에 있어서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서울선언 기초회의	2006. 8. 18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김현철 교수, 한국여성민우회 손봉희, 김은애 연구원
언론인과의 간담회	2006. 10. 9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생명윤리 시소러스 검토회의	2007. 2. 14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김현철 교수, 권복규 교수, 최경석 교수, 김명희 교수, 박준석 연구원
ISSCR 영문검토 및 생명윤리 관련용어 정리회의	2007. 3. 6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김현철 교수, 권복규 교수, 최경석 교수, 박준석 연구원, 고봉진 연구원

마. 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약 체결을 위한 활동

목 적	일 시	출 장 자	성 과
미국 생명윤리관련 기관 방문 및 협약 체결	2006. 10. 17 ~22	김현철 교수, 박수현 교수	- The Poynter Center for the Study of Ethics and American Institutions와 협약 체결 -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와 협약 체결
미국 유관기관 방문 및 관련학회 참석	2006. 10. 9	최경석 교수, 이수연사무관	Western IRB, OHRP, ORI 방문 및 2006 Annual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s Conference 참석
거점은행 관련 해외학자 방문	2006. 11. 10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iobank 관리자(Dr. Robert Hewitt, Eng Chen Boon) 및 김한겸, 이상민, 김수진 교수 센터 방문	

O 행사 홍보 및 보도 자료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316호
Tel (+82. 2) 3277. 4227 Email. eilb@ewha.ac.kr Fax (+82. 2) 3277. 4221

수	신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부 출입기자
발	신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교육홍보팀 (담당: 박미영. 3277. 4233)
제	목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 설명회
날	짜	2006. 11. 1.

보 도 자 료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 설명회

오는 11월 7일(오후3시, 이화여자대학교 SK텔레콤관 컨벤션홀)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 설명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배아 관련 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과 유전자 관련 기관(유전자 검사기관, 유전자 연구기관, 유전자 은행, 유전자 치료기관)이 기관위원회를 표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기관위원회 운영의 중요성 및 지침서 작업의 취지’라는 주제로 김옥주 교수(서울대 의대)의 기조발제와 ‘총론 및 공통 심의사항 등 개론’(최경석 교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발표가 있고, 이어 ‘배아관련 기관 기관위원회’(권혁찬 부원장, 메이저병원), ‘유전자관련 기관 기관위원회’(김장한 교수, 울산의대)의 운영 지침 및 심의사항에 대한 기관위원회 지침서 설명이 진행된다.

아울러 ‘기관위원회 개선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복지부의 발표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지침서에 최종 반영되어 생명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함께 편집된 삼단 법령집과 함께 11월 중순 이후 배포될 예정이다. 끝.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316호
Tel (+82. 2) 3277. 4227 Email. eilb@ewha.ac.kr Fax (+82. 2) 3277. 4221

수	신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부 출입기자
발	신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교육홍보팀 (담당: 박미영. 3277. 4233)
제	목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개최 (12월 7일)
날	짜	2006. 12. 1. (총 2 쪽. 초청장 파일 첨부.)

보 도 자 료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개최

오는 12월 7일(목), 오후2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주최로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이 심포지엄에서 줄기세포논문조작 사건 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정립을 위해 과학계, 윤리계, 교육계, 시민사회에서 펼친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포지엄은 제1부 분야별 회고와 전망, 제2부 정책방향 제시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사건 전후 줄기세포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이상호 교수(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발표와 ‘생명윤리, 연구윤리는 필요악인가?’라는 주제로 박찬구 교수(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의 발표가 있고, 이어 ‘황우석 사태와 생명공학감시운동’이란 주제로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의 발표와 ‘국내 생명과학 연구자의 연구관리 및 연구원 교육 현황’이라는 주제로 황은성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양병국 팀장이 ‘생명윤리 ·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조선대학교 과학교육학부 조은희 교수가 ‘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 지원’에 관해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끝.



올바른 생명윤리정책 수립은
인간행복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 ◆ 일시 : 2006년 12월 7일 (목) 오후2시-5시
-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 ◆ 주최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는 오는 12월 7일(목) 오후2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1년 전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한국 사회는 커다란 충격을 경험했고, 그 충격 속에서도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정립을 위하여 각계에서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그동안 과학계, 윤리계, 교육계, 시민사회에서 펼친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모색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셔서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한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장 장영민

- 순 서 -

제1부 : 분야별 회고 및 전망

- ▶ 사건 전후 줄기세포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
- 이상호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 ▶ 생명윤리, 연구윤리는 필요악인가?
- 박찬구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 환우석 사태와 생명공학감시운동
-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 ▶ 국내 생명과학 연구자의 연구관리 및 연구원 교육 현황
- 황은성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제2부 : 정책 방향 제시

- ▶ 생명윤리 ·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 양병국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
- ▶ 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 지원
- 조은희 (조선대학교 과학교육학부 교수)

통합토론 및 정리



오시는 길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MONKAWITH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BIOETHICS POLICY RESEARCH CENTER

www.bprc.re.kr

이 화 포 럼 보 도 자 료

◎ 제1회 이화생명포럼, 김지하의 “기계와 생명”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는 오는 11월 8일에 제1회 이화생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계와 생명 : 기계적 세계관과 현대의 생명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현재 영남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지하 시인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김지하 시인은 현대 사회를 기계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계로 진단한다. 기계적 세계관은 이상 기후로 인한 환경 문제와 사회 경제망의 혼란 등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심각한 오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지하 시인은 기존의 기계적 세계관 대신 ‘생명의 세계관’을 제안하고, ‘기계’와 ‘생명’의 개념을 4분야에 걸쳐 각각 7가지의 특징으로 비교·설명할 것이다. 이번 강연은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기르고, ‘생명의 세계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포럼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11월 8일 수요일 오후 5시에 개최된다. 끝.

◎ 제2회 이화생명포럼, 장희익의 “생명의 이해와 생명윤리”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는 오는 12월 1일에 제2회 이화생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명의 이해와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장희익 교수(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장희익 교수는 현재 포유류의 급속한 멸종 현상의 원인을 인간의 개입으로 설명하면서, 이 현상은 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인간종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러한 극단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규제할 인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생명윤리’이다. 이를 위해 장희익 교수는 ‘생명’ 개념을 ‘온생명’으로 파악하면서, ‘날생명 중심의 세계관’ 대신 ‘온생명 중심의 세계관’을 제안한다.

이 포럼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31호에서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최된다. 끝.

O 외부 보도 자료

보 도 자 료 명	보도일자	출 처
생명윤리정책연구기관 국가연구센터 지정	2006-06-14	경향신문
유네스코 아태지역 생명 윤리 교육회의 개최	2006-07-01	유네스코뉴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개소: 국가 생명윤리정책의 싱크탱크로	2006-07-10	이화뉴스
보건복지부 지정, 본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개소식	2006-07-14	이대학보
맹광호 교수, 일 의학교육학회 참석	2006-07-21	메디게이트뉴스
‘아·태지역 생명윤리 교육회의’ 개최	2006-07-25	한국대학신문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신설	2006-09-18	이대학보
Korea's Ewha Institute for Law and Bioethics Joins Roster of International Partners	2006-10-12	Indiana Law School news
[플라자] ‘민주평통 종교인 포럼’ 외 : 제1회 이화생명포럼 광고	2006-11-07	조선일보
두 시인이 말하는 문학과 생명 :제1회 이화생명포럼 리뷰	2006-11-13	이대학보
제2회 이화생명포럼 개최	2006-11-27	이대학보
이화여대, 생명윤리에 관한 발표회 및 토론회 열려	2006-12-07	뉴시스
각계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명윤리 토론회	2006-12-07	뉴시스
1년전 황우석 사건이후 줄기세포 연구의 변화 입니다	2006-12-07	뉴시스
황우석 사건 1년후, 생명윤리의 변화에 대한 토론회 열려	2006-12-07	뉴시스
생명윤리의 정책과 학회의 움직임 볼수있는 토론회 열려	2006-12-07	뉴시스
황우석 사건이후 줄기세포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	2006-12-07	뉴시스
줄기세포와 생명윤리학의 변화 알 수 있는 토론회 열려	2006-12-07	뉴시스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 열려	2006-12-07	뉴시스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1)	2006-12-07	연합뉴스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현황과 전망 (2)	2006-12-07	연합뉴스
윤리지침 쏟아지는데 연구원 교육은 걸음마	2006-12-07	한겨레신문
생명과학 교수님! 지도 좀 부탁해요	2006-12-07	한겨레신문
황우석사태 후 ‘난자는 잊어라’ 새 방법찾기 골몰	2006-12-10	경향신문